



7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7 호

(루계 549)



## \*\*\*\*\* 차 례 \*\*\*\*\*

혁명의 1 세대, 2 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4
혈 맥 .....	6
백두산의 길 .....	13
고지우에 포성이 울리는데 .....	14
백가지 도술 .....	15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	16
헌 시 .....	16
등 산 .....	17
로병의 마음 .....	26
백두밀영의 마가목 .....	27
모시리 .....	29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이끄는 불멸의 사상리론 .....	30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리라 .....	35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에 대하여 .....	36
우리의 선언 .....	42
못잊습니다 .....	43
한마음 한 모습으로 .....	44
불멸하라, 승리의 탑이여! .....	61
고향과 추억 .....	62
그는 말없이 걸어가고있었다 .....	65

받아다오 이 기발을 (외 1 편).....	65
전 사 여!.....	67
척후의 밤 .....	68
잊지 못할 목소리 .....	68
동명왕릉 .....	69
그날은 오리라 .....	70
고국송 (3) .....	72
잠들수 없는 밤 .....	74
옛 병사의 노래 .....	76
병사의 어머니는 말한다 .....	78

## 혁명의 1 세대, 2 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사회주의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근로자들과 새 세대 청년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 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앞에 나선 이 숭고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1 세대, 2 세대들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 청년들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더 잘 형상하는것이다.

오늘 사회주의위업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도전으로부터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며 사회주의의 존망,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써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와 오늘의 정세는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되고있는 혁명의 3 세대, 4 세대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문학으로 하여금 새 세대 청년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참다운 인간전형을 감명 깊게 창조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1 세대, 2 세대의 혁명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당의 위업에 충실한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난 새 세대들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신 주체혁명위업은 이미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문학은 마땅히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양되는 영웅적위훈과 아름다운 소행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시대의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문학건설에서 혁명의 새 세대 인간들에 대한 형상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1 세대, 2 세대들처럼 살고있는 새 세대를 그리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새 세대 청년들이 전 세대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옹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기로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흥망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의 전도와 혁명의 운명은 혁명의 계승자인 새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이 강화되고 혁명이 높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새 세대들이 전세대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새 세대 청년들을 혁명의 1 세대, 2 세대들처럼 주체혁명위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든 청년들이 그 어떤 바람이 불고 력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도 추호의 동요나 변심도 없이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성스러운 혁명의 길로 드림없이 전진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1 세대, 2 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3 세대, 4 세대를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는 혁명의 1 세대, 2 세대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감명깊게 부각하는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보나 투쟁정신으로 보나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모범이다.

한편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혁명의 2세대들인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그들은 온 나라가 재더미로 되고 모든것이 완전히 폐허로 된 속에서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혁명의 1세대, 2세대의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이 깊이있게 형상됨으로써 혁명의 3세대, 4세대가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품모와 계승의 몫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이 주제의 작품에서 해결해야 할 매우 의의있는 문제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최근에만 하여도 영화예술인들이 창조한 경희극 《한마을 한모습으로》에서와 같이 혁명의 전 세대들이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고 혁명의 새 세대들이 전 세대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모습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새 세대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새 세대들의 전형적인 성격창조에서는 그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새 세대 청년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자라

나고있다. 그들은 세계정세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자, 조국의 보위자로서 자기의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을뿐아니라 당의 부름이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으며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검푸른 20리의 날바다우에 로동당시대의 대 기념비적건축물인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 사회주의농촌에 집단진출하여 위대한 농촌테제를 관철해나가는 청년분조원들, 21살의 애어린 처녀의 몸으로 영예군인부부의 친딸이 되어 그들의 보호자가 될것을 결의하고 그들이 있는곳으로 떠나간 녀대학생...

수많은 이 모든 사실은 오늘 혁명의 3세대, 4세대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세계의 숭고성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문학은 이들의 숭고한 지향과 정신적높이를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혁명의 1세대, 2세대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이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생활하고있는 혁명의 새 세대들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 혁명적 의리와 동지에 그리고 주체의 인생관과 생명관 등 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치면 그들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옹게 밝힐수 있고 인간적품모를 선명하고 품만하게 보여줄수 있다.

문학작품에서는 혁명의 대를 확고히 이어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고있는 혁명의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소행과 빛나는 공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성과 효성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여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그러한 작품이라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하나의 전형을 통하여 수백수천의 새로운 충신, 새로운 효자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혁명의 1세대, 2세대의 혁명정신을 이어받고 투쟁업적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혁명의 3세대, 4세대의 새로운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제 맥

김동호

### 1

하얗게 눈덮인 큰길 한복판으로 갈색군마 한 필이 달리고있었다.

해빛에 번들거리는 밤색갈의 가죽안장우에 켜 꿰어보이는 30 대의 인민군군관이 고삐를 짊들어잡고있었다. 그의 바른쪽어깨에는 앞가슴을 엇가로 지나간 전투가방이 메워져있었다. 최고사령부 작전국의 참모 지송호였다.

절커덕 절커덕...고르로운 박차소리가 단조롭게 울리었다.

사위는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었다. 귀뿌리를 쑥 뽑아갈듯 날씨는 몹시 맵찔다. 박달나무도 땡땡 얼어터진다는 추위가 온몸을 엄습했으나 지송호의 가슴만은 얼귀붙일수가 없었다.

최고사령부를 향해 달리고있는 그의 가슴은 세차게 뛸뛰고있었다.

### ×

전선동부지구 무명고지계선에 나가있던 지송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름을 받고 부대를 떠났다.

공화국북반부지역에 깊숙이 축수를 뻗치였던 적들은 인민군대의 재진공에 넋을 잃고 남으로 도주해가면서 교량과 도로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였다.

그러다보니 수송이 단절되어 전투기재와 공급물자가 전선으로 제때에 가닿지 못했다.

무명고지계선에서는 한달 가까이 적아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있었다. 련일 수십키로메터씩 남쪽으로 줄행랑을 놓던 적들은 화천, 양구, 린계 계선에서 얼마동안 주춤거리더니 무명고지를 축으로 동서부익측을 련결하면서 집요하게 뻗대고있었다. 적들은 이 무명고지를 내놓게 되면 100 여리를 퇴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들은 거듭되는 아군의 공격을 제어해보려고 새로 각종 신행무기들과 기동수단들 그리고 몇개 사단을 더 끌어들여 무명고지를 양보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무렵 지송호는 무명고지계선에 나갔던것이다.

부대에서는 신철법을 조장으로 하는 정찰조를 적구에 파견하였다.

정찰조는 적들의 무력배치와 기동상태, 유생력량을 비롯한 중요한 작전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돌아왔으나 신철법은 적구에 떨어졌다. 불의에 조우한 적들을 단신으로 유인했던것이다.

지송호는 이러한 실태를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리었다.

그 이튿날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름을 받았다. 그가 최고사령부의 프락에 들어섰을 때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최고사령부는 숲이 우거진 깊숙한 계곡에 위치하고있었다. 밤새 눈이 내려 추녀높은 합각지붕우에 하얗게 눈이 덮여있었다. 하지만 길바닥과 프락에는 어느 한구석에도 눈이 쌓여있지 않았다.

뒤프락쪽에서 인적기가 들리었다.

(혹시 그이께서!)

그는 룡감으로 서둘러 뒤프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내 의바람으로 녀가래를 드시고 온실앞에 쌓인 눈을 반반히 치고계시였다. 유리로 지붕을 해썩은 여러칸의 온실이 산락을 등지고 아담하게 꾸려져있었다.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지 며칠만에 친히 그이께서 전사들을 데리고 온실을 지어놓으신것이였다.

지송호는 눈굽이 시큰해져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이의 뒤로 가까이 다가서며 도착보고를 올리었다.

《왔구만!》

그이께서는 반색하시며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는 인차 그를 데리고 온실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삽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감미로운 향기가 폐부를 자극했다. 발그스레 익어가 는 도마도와 오이가 가지마다에 주렁주렁 달리었다.

《동무가 전선에 떠날 때만 해도 열매가 익지 않았더랬지.》

《예, 그새 이렇게...》

지송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기야 보름도 지나지 않았소.》

문득 자기가 전선에 나가있는지 퍼그나 오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파일들을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우리 전사들한테 가져다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손수 온실남새를 가꾸시며 전사들을 생각하고계셨던것이다.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모든 부대들에서 온실을 지어놓고 여러가지 남새들을 심게 합시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천천히 온실을 나서시었다.

뜨락에는 그이께서 손수 벼짚과 새끼로 원줄기밑에 옷을 입힌 포도넝쿨이며 애어린 추리, 복숭아 나무들이 여러군데 보였다.

이윽고 앞마당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깔밋하게 깔아놓은 토방넝마루를 손짓하시며

《날씨도 푸근한데 자, 여기 와서 앉소.》 하고 지송호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방안에 들어가시여 나무로 만든 담배함을 들어다 마루우에 놓으시었다.

《담배나 한대 피우면서...》

지송호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며 좀처럼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의 손목을 잡아 곁에 앉히었다.

《동무의 보고도 받았구 부대장한테서도 들었지만 동무가 전선에 나가서 보고 느낀바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시오. 무엇이 제일 걸렸소?》

지송호는 현재 전선형편이 매우 어렵고 간고하다는것을 다시 상세히 보고드린 다음 제일 걸리고있는것이 탄약이라고 말씀드리었다.

탄약만 보장되면 무명고지는 능히 탈환할수 있다고 믿어져 이 문제만은 그이께 보고드리려고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그다음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직이 물으시었다.

《무기와 식량입니다. 그리고 피복과 전술기재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보니 지금 조국이 처한 형편도 고려함이 없이 자기가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를 제기한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인차 마음을 다잡으며 결연히 말씀올렸다.

《저- 최고사령관동지! 탄약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것은 탄약입니다.》

《그래 그것만 충분히 보장되면 될것 같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지송호의 너부죽한 얼굴을 지켜보시었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말씀올렸지만 지송호자신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무거워 잠시 머뭇거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상좌전장이 달린 그의 한쪽어깨

를 가볍게 부여잡으시며 타이르듯이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주저하지 말고 생각되는바를 그대로 말하시오.》

그제야 지송호는 마음을 녹잡히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실태 그대로를 보고드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급물자가 제때에 가당지 못해 전투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때가 드문합니다. 그래도 먹는거나 입는것 같은것은 어지간히 극복할수 있지만 탄약이 떨어지면... 현재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얼마간 목소리를 높여 물으시었다.

《전투원들이 고향에서 보낸 편지를 제때에 받아보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에 지송호는 사뭇 놀라운 눈빛으로 대답을 망설이였다.

사실 전투원들은 고향에서 편지가 오지 않아 몹시 궁금해고있었다. 고향에다 여러번 편지를 보냈지만 회답이 오지 않았다.

신철범의 경우만 놓고봐도 그랬다.

제진격후 그는 고향에 있는 안해앞으로 여러장의 편지를 써보냈지만 적구에 떠나기전까지 단 한장의 회답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적구정찰을 떠난 이튿날 이전 야전우편함주소로 보내온 편지가 중대에 도착했다. 봉투뒤면에다 날자까지 쏘아박았는데 50 일도 훨씬 넘는 편지였다.

아마 여기저기 수신인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우편함대호를 알아낸 모양이었다.

《...정찰조원들은 자기 조장앞으로 보내온 편지를 보면서 막 가슴을 쳤습니다. 어데 돌아치다가 이제야 왔는가고, 조장동무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적구로 떠났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것인가고 하면서 나어진 꼬마정찰조원은 지어 눈물까지 그렸더랬습니다.》

편지 한장을 놓고도 전사들이 것처럼 가슴을 뼉이고있는것을 지송호는 직접 목격했지만 작전 이외의 모든 문제들은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던것이다.

그이의 안색이 어두워지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담배를 한대 꺼내 불을 붙이시며 하늘가 멀리에 시선을 보내시었다.

전투원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여서였다.

남진의 길에서 만났던 꼬마전사며 리농맹위원장을 하다가 입대하였다는 아바이전사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으시었고 하늘과 바다, 이 땅을 지켜선 모든 전투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안겨들었다.

한동안 사랑에 겨운 눈빛으로 전사들을 그려보시던 그이께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뇌이시었다.

(신철범동무가 돌아오지 못했던 말이지! ...)

그이께서는 신철범을 잘 알고계시었다.

최고사령부가 고산진에 자리잡고있던 전략적 후퇴시기의 어느날이었다.

…최고사령부를 찾아 락동강계선에서부터 험준한 산밭을 타며 적구를 뚫고 들어왔다는 인민군 한 전사가 도착하자바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송호에게 그 전사의 의식을 회복시킨 다음 최고사령부로 데려오도록 지시하시였다.

적구에 정찰을 나갔던 그는 미처 후퇴명령을 받지 못했었다. 뒤늦게야 연락을 받고 부대를 찾아 북으로 들어왔는데 적들과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조우끝에 부상을 입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부대를 찾아왔던것이다.

전사를 만나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야말로 불사신이요!》하고 그를 따듯이 품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까이에서 치료받으며 휴식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가 바로 신철범이었다.

그가 몸이 회복된 어느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신철범을 데리고 호수가에 나가 물오리사냥을 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날 철범은 고향땅인 장진에 안해가 있으며 자기가 군대에 나온 사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그의 안해 강수옥과 신철범은 어렸을 때부터 한마을에서 자라났다. 수옥이보다 세살우인 철범이 아홉살 되던 해인 어느 봄날이었다. 철범은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수옥이를 생각해서 피꿀새둥지에 올라 새끼 한마리를 잡아다주었다.

《잘 키워야 돼. 엄지새로 자라나면 고운 목청으로 노래를 잘 부를거야!》

수옥은 엄지새로 크게 키우리라 맘먹고 자기 밥그릇을 축내여 피꿀새새끼한테 먹이를 주었다. 피꿀새는 조밥이 돼서 그런지 먹지 않고 울기만 했다. 그래서 새로 맛있는 수수찰밥과 기장밥을 한공기씩 끓여주었으나 그마저 한알도 입에 대지 않고 그냥 울어댔다. 어린 수옥은 피꿀새가 불쌍히 여겨져 눈물이 그렇게했다.

《엄마가 보고싶어 그러니?》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수옥은 피꿀새새끼가 가엾게만 생각되어 엄지새의 품에 도로 안겨주려고 밖에 나가 놔주었다. 피꿀새새끼는 한껏 기를 펴고 멀리 숲가로 날아갔다.

그날저녁 철범은 피꿀새새끼한테 먹일 벌레를 잡아가지고 수옥이를 찾아 뛰어왔다. 사연을 알게 된 철범은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말했다.

《피꿀새는 쌀을 먹지 않고 벌레를 잡아먹어.》

그러면서도 철범은 수옥이의 그 가룩한 마음에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그때부터 철범은 수옥이를 더 극진히 사랑해주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들 서로의 가슴에 사랑이 움터나기 시작했고 해방을 맞아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해방이 되어 세해째 봄을 맞던 어느날 그들은 결혼을 했다.

그해 겨울 어느날이었다. 리민청위원장사업을 맡아보던 철범이 군에 강습나갔다가 며칠만에 돌아오자바람으로 감기에 걸려 밥맛을 잃고있었다.

수옥은 남편의 밥맛을 돋구어주려고 호수에 나가 얼음을 까고 손을 얼구면서 반두질을 해서 봉어를 잡아왔었다.

손등이 시뻘겋게 얼어든것을 본 철범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겨웁게 말했다.

《손을 이지경 만들다니… 사람에게 손이 얼마나 귀중하오. 낫놓고 기속자도 모르던 우리가 이 손으로 처음 우리 글을 쓰지 않았소. 이 손에 처음으로 공민증과 선거표를 받아취였구 이 손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곡식을 가꾸고 나라를 받들어가고있지 않소. 다시는 이렇게 손을 얼कु지 마오. 물고기를 못먹어도 수옥이만 곁에 있어주면 인차 병이 낫게 되오.》

철범은 수옥이의 그 정성에 목이 메었고 수옥은 것처럼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철범이가 더없이 미더웠다. …

《제가 인민군대에 탄원해나오는 날 수옥이가 한달이면 돌아오게 될것 같은가고 묻는게 아니겠습니까. 철이 없다고 봐야 할지 천진스럽다고 해야 할지… 하긴 그때 우리가 서울을 해방시킨 직후였었으니까 기껏해서 한달사이에 남녘땅을 다 해방하리라 믿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그래, 그렇게 돌아오게 되겠지.〉하고 달래였습니다. 그러자 수옥은〈혹시 인차 돌아오시지 못할가봐…〉이렇게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다수긋하고 저고리고름만 만지작거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다하면서…)

저는 이렇게 속으로 나무랐습니다. 제가 정말 지각이 무딘놈이었습니다. 그때도 저같은걸 남편이라구 기둥처럼 믿고 그런 말을 비쳤했는데 저는 전혀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저… 최고사령관동지, 이젠 좀 속스러운 일인데 일없겠습니까?》

철범은 쭈뼛거리였다.

《어서 이야기하오.》

그이께서는 무뎠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수옥이가 임신중이었는데 제가 돌아오기전에 해산하면 아이이름을 누가 지어주겠는가 하는 걱정때문이었습니다. 전 그런줄도 모르구… 전선에 나오니 늘 그때 일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의 말을 긍정하시였다.



《글쎄 저보구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난사가 어데 있겠습니까. 아들이겠는지 딸이겠는지 어떻게 알구 이름부터 먼저 지어놓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내구...》

철범은 후에 아들을 봤다는 안해의 편지를 받고 고지우에서 온 중대가 달라붙어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처럼 혁명군대가 되라고 《군혁》이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다.

《이름을 참 잘 지었소.》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하시였다.

《고향에 두 적들이 기여들었을텐데...》

철범은 자기도 모르는새 입밖으로 한숨이 새어나갔다.

《후퇴전까지만 해 두 편지가 자주 오갔는데 인젠 소식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동안 명상에 잠겨계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부대에서는 철범동무의 행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조원들은 자기네 조장이 수류탄으로 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기슭 벼랑으로 적들을 유인했는데 잠시후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은 총소리도 더는 나지 않았답니다.》

《부대장동무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소?》

《예, 조원들의 보고를 받은 그는 철범동무가 두손에 수류탄을 들고 추격해오는 놈들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을거라고 하며 용감무쌍한 전사를 잃은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예, 저 역시 그렇게밖에는...》

지송호는 피로운 어조로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조용히 트락을 거니시였다.

(신철범이가 정녕 그렇게 갔을까?)

도저히 그들처럼 생각할수 없는 그이이시였다.

(누구든 막다른 처지에 처했을 때. 자결하기는 쉬운법이다. 그런만큼 철범은 절대로 그렇게 순쉬운 길을 택할 전사가 아니다. 지난날 그는 그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이겨내며 불사신같이 살아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가.)

《나는 그가 살아있으리라고 믿고싶습니다.》

그이께서는 항일의 그날에 산에서 싸우실 때에도 자신께서 믿어오신것은 틀림없었다는것을 더듬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신철범동무를 잘 압니다. 그는 불사신과도 같은 전사입니다. 그런 전사는 역경을 순경으로 돌려세우는 법입니다. 모름지기 그 동문 추격해오는 적들을 막바지에 유인해다 일격에 소멸해버리고 번개처럼 사라졌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폭발소리를 그렇게 믿고싶습니다. 그 동문 고

향에 있는 안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동무가 안해와 그리고 아직 보지도 못한 아들을 뒤두고 그렇게 손쉽게 떠나갈 전사가 아닙니다.》

지송호는 심장벽이 쿵 울리는것을 느끼였다.

그이께서는 방안에 들어가자고 하시며 토방에 올라서시였다.

지송호는 그이의 뒤를 따라 방안에 들어갔다.

그이께서 일을 보시는 작전실은 그리 넓지 않았다. 방안 한가운데 량수책상에 잇닿아 작전탁이 놓여있었고 그우에 작전도가 펼쳐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35 번》을 찾으시였다. 신철범이 소속되어있는 부대장에게 거신 전화였다.

가벼운 소음에 뒤이어 전화가 련결되였다.

《부대장동무입니까? 방금전에 지송호동무가 도착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명고지는 탈환해야 합니다. 며칠후에 군사위원회를 열고 그 문제를 토의하려고 합니다. 신철범동무의 행방을 빨리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찰조를 더 보강해서라도 시급히 찾아내시오! 왜 동무들은 신철범동무가 적구에 살아남았으리라는 생각은 못합니까? 대책을 세우고 정형을 보고하십시오.》

부대장에게 임무를 주신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전화기구에 얹어놓고 지송호쪽으로 돌아앉으시였다.

《철범동무 고향집주소를 알고있습니까?》

《장진군이라는건 생각하는데 주소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꼭 쉬시오!》

이튿날아침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그를 찾으시였다.

《동무 생각엔 신철범동무한테 안겨줄 가장 큰 표창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송호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물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문제는 이미전부터 마음속에 새겨두고있던것이어서 그를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는 길이라고 거침없는 대답을 드리였다.

《물론 신철범동문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동무한테 안겨줄수 있는건 그런 값높은 명예만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바라던 고향소식을 전해주는겁니다. 인제 적구에서 돌아와서 안해가 보낸 편지를 보면 알수도 있겠지만 그 편지는 적들이 강점하기전에 쓴것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하늘색바탕의 표지를 해색은 자그마한 수첩을 책상서랍에서 꺼내놓으시였다.

지난밤에 부대에 전화를 거시여 신철범의 집주소를 알아보시고 손수 써넣으신 수첩이였다.

《동무가 신철범동무의 고향에 찾아가서 그의 집소식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수첩에 주소가 적혀있으니 알아가지고 가시오. 혹시 집을 옮

겼더라도 기어이 찾아내어 신철범동무가 정찰병으로 영웅적위훈을 세웠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주어야 하겠소. 안해가 남편의 소식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릴테요. 갔던길에 군당에도 들려 후방 가족들이 모두 전선에서 편지를 쓰게 하고 올라올 때 그 편지들을 가지고 오시오. 〈93번〉 동무한테 가시오. 말을 대기시켜놔줄거요. 전선에서 싸우는것만 못지 않게 중한 임무라는것을 알아야 하겠소.》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기어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송호는 그달음으로 신철범의 고향을 찾아 떠났다.

×

장진군에 도착한 지송호는 먼저 군당에 찾아가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군당에서는 지도원 한사람을 붙여주려 했지만 지송호는 굳이 사양했다. 혼자 말을 타고 달려야 하는 사정도 있었지만 그만한 일에 안내까지 받고싶지 않아 혼자 찾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지송호가 신철범의 집을 찾아갔을 때였다. 집은 폭격에 불타버리고 마을은 형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그의 안해 강수옥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수십리 떨어져있는 친정으로 피신해가고 없었다. 재진공후에도 수옥은 어린애를 데리고 그냥 거기에 눌러있었다.

지송호는 다음날에야 산골짜기 막바지에 싸리울바자를 둘러친 추녀났은 그의 친정집을 찾아내었다.

그가 대문가에 들어서며 주인을 찾자 부엌에서 딸과 함께 전선원호미를 넣어보낼 쌀가마니를 짜고있던 허리 구부정한 안늙은이가 부엌문을 열고 밖에 나와 손님을 맞이했다.

지송호는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놀랍게 듣고있던 늙은이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소식을!...》 하고는 목이 메어 말끝을 잊지 못하였다.

지송호는 실주름살이 한가득 실린 늙은이의 눈지방밑에서 뜨거운것이 흐르는것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었다.

그러자 늙은이는 발이 굵은 토목치마자락을 휘저으며 부엌으로 났없이 뛰어들어갔다.

《애 집난이야, 군혁의 애비가 살아있다는구나.》

늙은이는 다시 부엌문을 열고 나와 지송호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귀한 손님을 밖에서 세워놓고 주책머리없이 안됐습네. 집안이 루추한대루 어서 방안으로...》

마주 나온 강수옥이도 지송호를 방안으로 맞이하였다.

송호는 마치도 고향집에 온듯한 따뜻한 정을 느끼며 방안에 들어섰다.

구름노전을 깬 아래목에서 보름달같이 환하고 복스러워보이는 어린것이 새각새각 숨소리를 내며 자고있었다. 지송호는 눈썹리가 시큰해짐을 어찌할수 없었다. 어린것이 어찌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워보이는지 볼을 마구 쓸어주며 꽃이파리같은 입에다 자기의 두툼한 입술을 한껏 대이고 싶었다.

지송호는 가방에서 완구를 꺼내놓았다. 떠나올 때 장군님께서 손수 마련해주신 것이었다.

《돌이 잡힐 어린애가 있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갈수야 없지.》 하고 웃으시며 친히 그것을 마련하여 가방에 넣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모녀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너무나도 큰 걱정이 온몸을 휩싸고 돌았던 것이다. 그러자 어린것이 어느결에 깨어났는지 두팔을 짹 벌리며 욕심사납게 그 완구를 와락 부둥켜안고 방실거리었다.

지송호가 아이를 안아 무릎위에 앉히었다.

《아직 찌새도 가리지 못하는 애를 안고있다가 오줌벼락을 맞겠습네.》

늙은이의 그 말에 수옥이가 애를 안으려 했다.

《차라리 제 군복에 이너석의 오줌자리가 얼룩진걸 보시면 장군님께서 더 기뻐하실겁니다.》

지송호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띤 얼굴로 모녀를 마주보았다.

《이애 아버지도 좋아할거구...》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늙은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강수옥이 가볍게 한숨을 내그으며 남편의 소식을 몰라 안타까와하던 지난날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재진격후 야전우편함대호로 여러문장의 편지를 보냈어도 오늘까지 단 한장의 회답도 받지 못했다는거며 전선에서 소식이 오지 않는 군인들때문에 사람들이 손땀을 놓고있다는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송호는 부대에 도착한 편지가 수옥이 보낸 여러통의 편지들중에 하나였다는것이 짐작되었다.

그는 이번에 자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더 상세히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에 목이 메어 눈물을 머금던 늙은이가 딸을 보고 말했다.

《애야,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무나.》

수옥은 얼굴을 상그레 붉히며 일어나서 농작속에 넣어두었던 나무함을 꺼내들었다. 뚜껑을 열고 그안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놓았다.

《그 사람이 군대에 나갈 때 아이 백날사진을 찍어보내라구 신신당부했는데 읍에두 사진관이 폭격에 불타버린게 아니겠수. 그래서 또 백리길을 더 걸어가서 찍어온 사진이라우, 그런데 통소식이 없으니 어디 보낼수가 있어얍지요...》

늙은이는 눈물이 그렁한 눈길로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한숨을 토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지송호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런걸 아직도 보내지 못하고있다니!...)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송호는 어린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안아주고 자리를 떴다.

## 2

군사위원회가 열리고있는 최고사령부의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까이하고있었다.

회의에서는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여 무명고지를 탈환할데 대한 문제와 전선 동부와 중부, 서부를 연결하는 전전선이 총공격으로 이행할데 대한 문제가 토론되었다. 또한 전선에 소요되는 탄약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량식, 피복물자들을 모든 부대들에 공급할데 대한 대책안들이 토론되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위원회를 계속지으신 다음 송수화기를 드시고 직일관을 찾으시였다.

《많아서 성의가 아니지. 작은대로 어서 들여보내시오.》

송수화기를 놓으신 그이께서는 앉아서 담배나 한대 태우라고 이르시며 담배갑을 책상우에 꺼내놓으시였다.

잠시후 직일관이 도마도가 수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온실에서 따온 첫물인데 다들 들어보시오.》

그이께서는 손수 도마도를 들어 하나하나 돌리시였다.

《축배는 전쟁을 이긴 다음에 들기로 약속합시다.》

그이께서도 빨강계 익은 도마도를 한개 집으시였다. 그이의 소탈하신 품격에 모두의 가슴은 뽕뽕해지였다.

《어서 드시오. 동무들이 들어야 나도 첫물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차마 입에 가져가지 못하는 장령들을 보고 또다시 권하며 말씀하시였다.

《전투원들의 사상정신적준비,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혈맥처럼 튼튼히 이어져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의 일시적강점으로 하여 전선과 후방의 련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파가 오늘까지도 미치고있습니다. 조국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할 때 혈맥이 끊기거나 제때에 순환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안에 빙 둘러앉은 장령들을 둘러보고나신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지휘관들은 작전전술적문제를 하나 놓고도 먼저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총을 잡고있는 전사들의 심장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것인가? 그들

이 가슴아파하고 그리워하며 바라고있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의 정신력역에 어떤 작용을 미치게 될것인가?》

그이께서는 신철범이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로 레증하시였다.

장령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 장령이 정중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자기가 부대에 도착하자바람으로 모든 전사들과 군관들이 집에다 편지를 쓰도록 하겠다고 말씀올렸다.

총참모부의 한 장령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전선에 있는 전투원들과 후방가족들이 모두 편지를 쓰도록 군사위원회결정을 하달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는 그 누구의 강요나 결정에 의해 씌여져서는 안됩니다. 편지자체가 자기 마음을 글로 옮겨 말 대신 전달하는건데 뭇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전사들과 후방가족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편지는 서로 자주 할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써보낸 편지들을 어떻게 하면 제때에 정확히 본인들의 손에 들어갈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겁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해당 일군들을 불렀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편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고 보는데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이의 말씀에 공정을 표시해드렸다.

이윽하여 장령들은 방을 나서려고 서둘렀다. 그들이 방을 나서기 바쁘게 부관이 그이께 지송호와 체신성의 한 일군 그리고 민족보위성 야전우편소장이 도착해서 기다리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어서 들여보내시오.》

지송호의 뒤를 따라 이마가 번듯한 한 일군과 허우대 큰 군관이 들어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송호의 보고를 받으시였다.

지송호는 군당에 들렀던 일이며 후방형편에 대해 세세히 말씀올린 다음 차곡차곡 개켜서 노끈으로 동인 편지묶음과 백날된 신철범의 아들의 사진을 그이의 앞에 꺼내놓았다.

그이께서는 사진에 뜨거운 눈길을 떨구시였다.

어린아이의 백날사진을 찍기 위해서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은 그 녀인의 마음은 얼마나 소박하고 뜨거운것인가. 전선에 나간 남편의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으면서도 기어이 승리하고 돌아오리라 굳게 믿고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신철범에게 전해준다는것은 그의 가슴에 생명소를 부어주는것으로 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사진을 함께 들어온 체신성의 일군과 야전우편소장에게 보여주셨다.

《보시오. 후방인민들의 심정이 이 한장의 사진에도 뜨겁게 어려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눈길을 주고있던 일군과 군관은 눈굽이 달아올랐다.

지송호는 그이께 후방에 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바를 더 말씀드리었다.

《후방가족들은 전선에 나간 아들과 남편들의 소식을 몹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는것은 후방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이께서는 야전우편소장과 체신성일군쪽으로 얼굴을 돌리시었다.

《이 문제를 바로 동무들이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무들은 비단 적들과 직접 맞서 싸우고있지 않지만 일선병사나 다름없습니다. 동무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이께서는 야전우편소장에게 설사 우편함대호를 변경시켰다 해도 당분간 종전우편함대호로 보내온 후방편지들은 모두 본인들에게 가당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이르신 다음 전사들이 제때에 편지를 쓸수 있도록 야전우편역을 비롯해서 편지지와 봉투를 요구대로 보장해주라고 지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야전우편물송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10 여대의 자동차와 수십대의 모터씨클을 새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 시각 그이께서는 전신하의 통신 및 신문을 비롯한 우편물체송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할 결심을 마음속으로 굳히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 지송호와 마주하시었다.

《동문 이번에 후방에 가서 아주 큰걸 안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전투원들에게 이 편지들을 전해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창가에 다가서시여 산발너머의 아득한 전선의 하늘가를 바라보시었다.

《전선에 나가서 이 사진과 편지를 동무가 직접 신철범동무의 손에 쥐여주고 전투원들의 손에도 지체없이 가당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하겠습니다. 동무가 전선에 가닿을무렵이면 신철범동무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이께서는 신철범이 꼭 살아있으리라는것을 굳게 믿고계시였으며 한편 그를 구원하기 위한 정찰조가 적구로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셨던것이였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

《눈에 피발이 졌는데 너무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걱정하시었다.

《극복하겠습니다. 철범동무를 한시바빠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니 나도 어쩔수가 없구만. 하지만 이틀동안 대기하면서 휴식하시오. 이틀후에 전선에

내보낼 편지와 신문, 잡지를 실은 새 기통차가 도착합니다. 그 차를 타고 가시오.》

《알았습니다.》

지송호가 힘있게 대답을 올리었다.

### 3

기통차가 최전선을 향해 달리였다. 운전실 바른쪽 창턱에 팔굽을 얹어놓고 앉아있는 지송호의 눈길은 졸곧 앞시창에 가있었다.

화염에 휩싸여있던 저녁해는 지평선너머에 숨어버리고 고지상공을 피빛으로 물들인 황혼은 검은빛을 띠기 시작했다.

어느새 저녁어스름이 깃을 드리우며 련련히 뻗어간 고지우에 어둠을 몰아왔다.

지송호는 이런 전선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벅차오른 때가 일찌기 없었다.

전선과 후방을 잇는것은 조국의 《혈맥》과도 같은것이며 그렇게 보면 전선과 후방으로 오가는 편지들과 소식들은 피의 흐름과도 같은것이 아니겠는가! 이 피의 순환이 잘될수록 전선은 더 강해지며 그만큼 승리가 빨리 마련될것이다.

《혈맥!》

지송호는 심장으로 뇌이였다.

한시바빠 전선에 닿고싶었다.

《속도를 높이시오!》

지송호는 앞시창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좌우쪽에 산발을 끼고 길다라니 드러누운 강이 보이였다. 강은 온통 얼음으로 덮여있었으나 폭격에 군데군데 얼음장이 호수처럼 꺼져있었다.

운전수는 가속답판을 힘껏 밟았다.

기통차는 차체를 들썩거리며 깊숙한 계곡을 빠지고있었다. 우중충한 산발들이 시창에 비껴 흘렀다. 기통차는 점점 다리를 가까이했다.

어느덧 기통차가 다리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붉은 신호기발을 든 교통보안원처녀가 호각을 불며 드바빠 여기저기 뛰어다니였다.

다리목에는 수십대의 자동차들이 모두 전선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긴장하게 줄을 지어 서있었다. 다리가 끊어진것이다.

이윽고 다리가 복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모든 차들이 거의 동시에 시동을 걸었다. 각이한 음향의 경적소리가 울리였다.

호송원들이 저마끔 앞질러 교통보안원 처녀앞으로 뛰어갔다.

《우리 차는 탄약차란 말이요. 탄약이 있어야 싸울게 아니요. 전투원들이 탄약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는지 알기나 하오!》

운전사들은 서로 앞질러 맨 선참으로 달리려고 자동차를 다리목에 바짝 들이밀었다.

지송호 역시 이대로 그냥 양보할수 없다고 생각되였다.

전선으로 나가는 길엔 끊어진 다리도 많고 자동차 한대밖에 통과할수 없는 길도 여러군데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지

체하다나면 이밤으로 전선에 가닿지 못할수 있었다. 날이 밝으면 적기가 까맣게 밀려들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기통차가 걸음이 떠질수 있고 혹여 폭격에 피해를 입을수도 있을것이었다.

지송호는 결연히 마음을 다잡고 교통보안원 처녀앞으로 다질러갔다.

그는 자기가 타고있는 기통차엔 전선으로 보내는 후방인민들의 편지가 실려있다고 의의를 담아 강조했다. 그러자 교통보안원처녀는 기통차가 맨선참으로 통과할수 있도록 다른 모든 차들은 무조건 길을 비켜주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교통보안원처녀도, 지송호도 적구에서 구원된 신철범이 이 시각 사경에 처해있다는것만은 알리가 없었다.

《빨리 후진해서 길을 내시오. 1 분내로!》

처녀의 말에 억이 막혀 짐짓 기가 눌린 호송 군관이 검질기게 늘어졌다.

《차, 이런... 동무, 우리 차엔 탄약이 실려있다고 하지 않소. 탄약이!... 1 분이라도 지체하면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하오?》

그 말이 지송호의 가슴에 쇠못처럼 쿵 박히었다.

이때였다.

교통보안원처녀는 차렷자세로 엄숙히 서서 모든 차들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했다.

《방금전에 최고사령부에서는 전선으로 나가는 기통차를 맨 선참으로 통과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순간 지송호는 온몸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었다.

(동서고금의 세계전쟁사에 과연 이런 일이 언제 한번 있었던가!)

×

지송호가 편지묶음을 안고 야전병원을 거쳐 전선에 도착한 이튿날 아군은 무명고지를 점령했고 신철범은 소생되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지송호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심장으로 깨달았다...

전후에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자라난 신철범은 종종 그때를 감회깊이 추억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처럼 큰 한개 협동농장 살림을 맡아 볼수 있게 자라난것은 그때 장군님께서 후방의 소식을 전해주도록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는 산도 떠다 바다를 막을 그런 힘이 온몸에 솟구쳐올랐습니다.》

## 백두산의 길

김종백

천리길에 반겨주던 이빨나무숲이여  
그만 작별하자 여기 무두봉에서  
앞에는 무연한 용암대지  
흰머리 근엄한 산정도 가깝게만 보이네

누구누구 먼저 걸어 이 길을 냈던가  
숙영각에 배낭을 벗어놓으니  
손에는 지팡이 하나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지는 이 길

준엄한 년대의 그날  
눈보라 헤치고 먼저 간 투사들  
고향도 집도 사랑하는 부모처자도 뒤에 남기고  
홀몸으로 이 길을 걸었네

남의 집 문전에 귀여운 살불이를 떼어놓고  
단발한 너인도 이 길을 걸었네  
멀리 갈수록 크게만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눈물도 없이

혼자서만 누릴 행복이 따로 있어도  
선뜻 버리고 떠났네  
잃어버린 내 조국

찾아서 지고올 조국이 너무도 커서  
홀몸으로 이 길을 걸은 사람들  
아, 장군별 우러러 눈길을 헤쳐간 사람들

내 또한 그들의 자욱을 따라 이 길을 걸나니  
자신을 위해 무엇을 아껴두랴  
등판에 세찬 바람아 씻어다오  
혼자의 안락을 꿈꾸는  
티눈만한 사념의 먼지라도 옷자락에 묻어온다면

산정에 묵어있는 깨끗한 만년설을 어서 보고싶어  
그만 지팡이마저 쥔던지고 달려올랐네  
그랬어도 나를 위해 남겨둔것이 있다면  
또 한번 깨끗이 씻으라고  
천지의 맑은 물이 기다리는 백두산의 길

이길을 걸어  
나는 누구보다 깨끗해지리  
나는 누구보다 아름다워지리  
하여 그 어데 가도  
한생 이 길을 홀몸으로 가볍게 걸으리  
이 땅우에  
공산주의란 큰것을 지고오기 위하여

# 고지우에 포성이 울리는데

함영근

이젠 그만 떠나시자고  
부관은 안타까이 아뢰이는데  
수령님께선 움직일줄 모르시네

화선천리 불의 길 헤치시며  
병사들 찾아오신 수령님  
습격의 길에서 소식없는  
한전사를 기다리시며  
벌써 몇번째 반복하시는 말씀

- 열일 곱살이라...  
나무리벌 태생이라 했지?!

쿵쿵...  
고지우에 포성은 울리는데  
수령님 안녕을 지켜야 할  
전사들의 가슴은 조여만 들끓

걸음걸음 원쑤의 숨통을 짓누르시며  
이제 수령님  
가셔야 할 전선길은 또 몇천리  
불타는 도하장에서  
격전을 치른 전호가에서  
만나셔야 할 전사들은 그 얼마이시랴!

허지만 모든것을 잊으신듯-  
돌아올 전사들을 기다리시던  
30년대 유격구의 그밤처럼  
수령님께선 조용히 거니시여라!

그러면 금시라도 애송이 그 전사  
넓으신 품에 안길것만 같으신 마음  
쌍안경으로 불먼지속을 훑어보시며  
이제사 저제사  
안타까이 마음쓰시는 수령님

그 전사 곁에 있으면  
아버지와 애국미달구지 끌고가던 이야기  
쉬는 날이면 재령강가에  
송어 낚던 이야기도 들려주시련만...

고지우에 불붙는 나무등결  
흙도 바위도 불속에 타는데  
사단장도 군단장도 아닌  
나어린 전사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그이를 우리르며  
눈물에 젖어드는 병사들 가슴이여  
정녕 불보다 뜨거운 그 사랑  
일만군단에 비길수 있으랴  
천만문의 포화력에 비길수 있으랴

오 장군과 병사  
이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  
그 어느 세계전쟁사에 있었더냐  
승리한 전사들의 힘이 무엇이었던지  
력사는 길게 기록했다 기록했다

## 백가지 도술

### 2. 최면술에 걸린 《토벌대》

왕청현사람들은 장군님께서 최면술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최면술이란 사람을 잠이 들게 하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법을 이르는 말이다. 대체로 최면술은 한사람이거나 극상해서 몇명을 상대로 하여 적용하는 술법이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적병 몇백, 몇천명을 동시에 최면술에 걸리게 하셨다니 참으로 신비하지 않은가!

한번은 왜놈 《토벌대》들이 장군님유격대를 추격해서 며칠째나 바투 따라다닌적이 있었다고 한다.

《토벌대》놈들의 수는 무려 수천명을 헤아리었다.

왜놈들은 장군님부대를 어찌해보겠다고 악착하게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장군님부대에는 갓 입대한 문철이라는 어린 대원이 있었다.

벌써 여러날째나 놈들의 추격을 받으며 행군을 계속하니 누구보다도 지친것은 문철이었다.

뒤에서는 놈들이 쏘는 총소리가 계속 들리었다. 이제는 그놈들이 지껄여대는 말소리까지 들릴정도로 바짝 따라오고있었다.

신출귀몰하는 술법을 지니신 장군님이 계시니 별로 걱정되는것은 없었지만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는 문철이로서는 은근히 조바심이 생겼다.

발이 천근만근 무거워 더 빨리 걸을수 없는데다가 수심배나 되는 《토벌대》놈들이 뒤에서 계속 추격하고있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철이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그에게로 다가오시어 부축하여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문철이, 겁먹지 말라구. 왜놈들이 더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테니까 천천히 가도 일없소. 자, 힘을 내라구.》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문철은 장군님께서 자기를 안심시키느라고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더우기 자기를 위해 부려 왜놈들이 따라오는데도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신다고 생각하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휴식을 하면서 산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따라오던 왜놈들이 모두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놈들은 유격대가 휴식하는동안 절호의 기회인데도 따라올념을 안하고 우두커니 서서 그저 바라보고만있었다.

유격대가 휴식을 충분히 한다음 행군을 시작하니 그제야 왜놈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놈들은 비칠거리며 여드레 80 리걸음으로 겨우 따라오고있었다.

유격대가 휴식을 하면 따라오던 왜놈들도 그자리에 서있었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면 그놈들도 움직이군하였다.

마치 왜놈들도 장군님의 구령에 따라 행동하는것 같았다.

이것을 본 유격대원들은 《〈토벌대〉놈들이 또 장군님의 최면술에 걸려들었구나.》하면서 통쾌하게 웃었다.

몇천명의 왜놈들이 몽땅 최면술에 걸려 눈을 감고 줄면서 제정신없이 걷고있었다.

실은 장군님의 령활한 전법에 걸려들어 며칠째 유격대에 끌려다니느라고 한잠도 자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이해 겨울 놈들은 이렇게 장군님부대를 따라 끌려다니다가 모두 얼어죽고말았다고 한다.

#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니싸르 나씨크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으신  
당신은 혁명의 계승자  
당신은 혁명의 맑은 피 부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신은 세계의 화불  
그 명성 누리에 알려지고  
당신의 예지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주체사상은 세계에 널리 퍼졌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꽃들도 거리마다에서 당신을 반기고

당신의 존함 제국주의를 떨게 하네  
당신은 억압받는 민족들의 희망  
세계는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내 뜨거운 인사 삼가 드리노라  
당신은 평화의 수호자 자애로운 어버이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다운 후계자  
탁월한 사상과 령도 자애로운 사랑으로  
인민을 이끄시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필자는 파키스탄 시인임)

## 헌 시

에스. 아르. 썬니

하늘만 쳐다보며  
애타게 찾던 태양  
반세기전 솟아 빛나는  
조선의 태양이시여  
  
당신의 담력으로 풍랑을 뚫을 때면  
사람들 가슴속에 용맹 샘솟고  
당신의 두리에 뭉친 혁명가들

당신을 어제보다 더 우러러 모십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찬란한 광원  
붉은기의 수호자 인류의 심장  
불굴의 의지와 용맹으로 조선은 빛나거니  
**김정일** 당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필자는 인디아사람임)



## 등산

김성관

## 1

오일민장령이 좋아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묘향산유원지에 도착한것은 저녁무렵이다.

아담한 각에 숙소를 정한 그는 려장을 풀어놓기바쁘게 응접실로 나갔다. 방의 한쪽 벽에는 명승지안내도가 걸려있다. 그는 갖가지 색깔과 그림으로 명승지의 일경을 일목로연하게 표시한 그 안내도앞에 떡 버티고 마주섰다. 전혀 속을 알수 없게 똑한 표정과 짝 다물린 입... 지금도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 무슨 작전지도를 연구하듯 안내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뜻밖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묘향산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하게 되느니만큼 그 일정계획을 잘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우리 나라 서북지대인 금평에서 긴장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낮에 밤을 이어 그 지구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점심식사를 마치시자 갑자기 묘향산으로 가자고 하시였다.

《일민동무랑 그동안 나를 도와주느라 수고들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모두 폭 쉬도록 합시다.》

수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기실 누구보다도 귀가 번쩍 트인것은 오일민자신이였지만 처음 한동안 그는 혹시 말을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고 제귀를 의심했다. 그는 군사부문의 요직에서 사업하면서 누구보다도 오래동안 그이를 몸가 가까이 모셔온다. 그이께서는 현지도도를 떠나실때나 국가사업 전반을 토론할 때에도 그를 자주 곁에 불러주곤하시였다.

그 기나긴 나날, 오일민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해왔고 일구월심 바라마지 않은것은 그이께서 어느 하루만이라도 만시름을 놓으시고 폭 쉬시였으면 하는 그것이었다.

오일민은 그이께서 건강을 좀 돌보시도록 청을 드리기도 했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기하여 조직적인 대책도 마련해보았다.

그때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감사해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건강하니 걱정말라고 도리어 일군들을 위안해주시였다. 간혹 권고대로 휴양지에도 가시였으나 집무실을 옮기신데 불과했을뿐 자신

의 건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으시였다. 결국 오일민은 어느 한번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지 못했다.

언제인가는 수령님께서도 사람이 무죄가 아닌이상 그렇게 일을 하고서야 어떻게 견디여내겠느냐고 걱정을 하시였다.

그렇게 일만을 해오시던 그이께서 묘향산에 들어가 며칠간 폭 쉬자고 하시였을 때 오일민은 몹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뜻밖에 차례진 그 며칠이나마 자기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휴식일정을 잘 짜볼 작정이였다. 그래서 지금 도착하자바람으로 안내도앞에 선것이였다.

그는 그 며칠동안의 휴식일정에 산 좋고 물 맑은 명승지에서의 즐거움을 몽땅 담고싶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지도자동지께서 열흘이나 한달, 지어는 그이상의 휴식맛잡이로 피로를 풀실수 있는 보람있는것으로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문제를 설정해놓고보니 휴식일정을 짜기도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오일민은 수령님을 따라 항일대전에 나선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군복을 입고 늙어오는 오랜 장령들중의 한사람이였다. 한개 전선의 운명이 걸린 전투도 한두번만 지휘해온것이 아니지만 어느 한번도 작전지도앞에서 망설이거나 바재여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작전지도도 아닌 명승지안내도앞에서 선풍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것이였다.

(허어, 오일민이 언제 이런 줄장부가 되였는가.)

이런 생각이 불쑥 마음속에 갈마들자 그는 안내도에 도전이라도 하듯 두손을 허리에 얹으며 한걸음 다가섰다. 산촌의 기기묘묘한 자연풍치를 표시한 갖가지 부호들이 더욱 뚜렷이 안겨온다. 그것들은 점차 오일민의 눈앞에 천태만상의 절묘한 바위들과 웅장한 폭포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묘향산은 그가 처음 와보는곳이 아니였다. 언제인가는 훈련의 여가에 병사들과 함께 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즐겁던 오락회, 병사들의 성화에 못이겨 독창을 하느라 찢찢 매던 일... 그렇지! 이번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아야지... 어느덧 그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손기척소리가 났다. 뒤미처 문이 열리더니 키가 늘씬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젊은 대위가 나타났다. 오일민의 연락군관이다.

《장령동지!》

그는 차렷자세를 하고 힘있게 입을 열었다. 허나 다음순간 그는 우물쭈물하며 뒤말을 미치지 못하고있었다.

《어서 말하오.》

오일민이 무뚝뚝하게 독촉해서야 그는 말했다.

《방금 정원에 나갔다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었는데 장령동지가 무엇을 하고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올렸소?》

《잘 모르겠다고 말씀올렸더니 혹시 피곤해서 누워있지 않는가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오일민은 저도 모르게 빙긋 웃었다.

《그럼 왜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는다고 즉석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소?》

대위는 두눈만 껴먹거릴뿐 대답을 못했다.

《유감인걸, 대위동무도 아다싶이 내 몸은 그이께서 늘 돌봐주시기에 이렇게 피곤을 모르고 건강하지 않소.》

그는 저으기 불만스럽게 말을 이었다.

《기왕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서 가서 동무가 본대로 말씀올리라구. 나도 인출 나가겠소.》

대위가 바람처럼 환관밖으로 사라진 다음 그는 서둘러 옷단장을 바로했다. 늘 깨달으면서도 어찌지 못하는 문제이지만 그는 이번에도 다시는 그이께서 자기때문에 마음쓰시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방을 나섰다.

문밖은 곧 정원이다. 봄도 마지막 고비에 이른 5월이라 정원은 한창 물이 오르기 시작한 풀냄새와 갓가지 꽃향기로 짙어차 있었다. 원예사의 고상한 취미와 세련된 솜씨가 아지마다 엿보이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은 멋진 정각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명승지의 운치를 한층 돋궂주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정각 오른쪽 농촌집마당만큼이나 벌추를 잡은 누운향나무앞에서 수원들에게 예뻐싸이신채 대위와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었다. 젊은 대위가 손세를 써가며 무엇인가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연한 수박색 코트자락을 뒤로 젖히시며 호방하게 웃으시었다. 오일민의 마음은 벌써부터 그이곁에 가있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그이께 다가갔다. 그이께서는 반쯤 몸을 돌리시었다.

《이 좋은 산천에 와서 두문불출하기에 웬일이냐 했더니 지금껏 그 안내도를 연구했다면서요? 그래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일민이 미처 대답을 찾지 못해하자 그이께서는 한술 더 뜨시었다.

《혹시 콜롬부스를 무색케 할 그 무슨 〈대륙〉 쯤이라도 찾아냈습니까?》

오일민은 그제서야 빙글썩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쯤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저런?》

《허허...》

그것이 무엇인지 오일민이 더이상 말을 하려하지 않자 그이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지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었다.

《더 물으나마나 우리모두를 기쁘게 해줄 휴식일정이겠지요. 그 얼굴에 다 드러나있습니다.》

오일민은 단마디에 정통을 짚어주게 되자 그만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고말았다. 지도자동지께서도 쾌활하게 웃으시며 수원들을 둘러보시었다.

《그런 문제일수록 안이 선 다음에는 대중토의에 붙이는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우리 동무들에게 오장령의 독단때문에 흥미없는 휴식을 했다는 원망을 들을수도 있단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휴식일정을 두고그렇듯 마음을 쓰는 오일민의 심정을 모르지 않으시었다. 오일민이 명승지안내도앞에 떡 버티고 서있더라는 젊은 대위의 보고를 들으시는 첫 순간에 벌써 그 점을 강하게 느끼셨던것이다. 그 심정이 뜨겁고 고맙게 느껴질수록 이번만이라도 오일민이 하자는대로 응하여 그에게 만족을 주고싶은 그이이시기도 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그렇게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이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오일민을 바라보며 의논조로 말씀하시었다.

《휴식일정에 우리 일행 매 사람의 기호와 취미를 다 담자면 조련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휴식할수 있게 일정을 짜면 되겠지요?》

《그건 물론입니다.》

오일민이 쾌히 응했다.

《그렇다면 론리를 세워보잔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굴지의 명산에 들어와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우리의 휴식은 웅당 등산이 기본으로 되어야 할것입니다. 론리는 단순하지만 그만큼 명백하단말입니다.》

늘 그러하지만 오일민은 이번에도 무슨 일에서나 단마디로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시는 그이의 비범성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명백합니다. 등산을 주축으로 휴식일정을 짜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만족해하시며 쾌히 응수하시고 나서 물으시었다.

《그래 등산목표는 어디로 정할 작정입니까?》

오일민은 상원암로정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되새기며 선뜻 대답했다.

《상원암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상원암이라... 그곳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있는 등산로정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고개를 기웃하시며 수원들을 둘러보시었다.

《우리 일행중에 아직 상원암로정을 밟아보지 못한 동무들이 있습니까?》

《...》

《그것보시오. 없단 말입니다.》

붉디붉은 저녁노을이 정원수우듬지들을 조심스럽게 물들이고있었다.

《일민동무, 기왕이면 초행길을 헤쳐보지 않겠습니까?》

오일민은 말문이 막혀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이 명산에 다시 들어왔던 인상이 깊숙이 배기게 아예 비로봉으로 정하잔말입니다.》

《네?》

오일민은 그만 아연해졌다. 비로봉은 묘향산의 주봉일뿐만아니라 오일민에게 있어서 전혀 파악이 없는 생소한곳이었다. 그런곳에 지도자동지를 모신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곳은 파악이 없습니다.》

그는 똑하게 이 한마디를 울렸을뿐이었다.

《그러기에 한번 통이 크게 파악해보잔말입니다. 잘 아는 길이야 오를수록 앞이 뻗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등산이란 호기심과 탐험심을 동반해야 제격입니다. 세계적인 등산가들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험산준령을 남먼저 정복하려는 바로 그 탐험심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등산에 열중했던 말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오일민자신도 오래간만에 험준한 산발과 무성한 수림을 마주하고보니 오금이 쭈서와서 견딜수가 없었다. 지금 그의 가슴속에서는 산에서 싸우던 어제날의 그 용맹이 되살아나 비로봉만이 아니라 온 묘향산발을 종횡무진 타보고싶은 욕망이 쇠물끓듯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생각할 때 자신의 그 욕망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것이였다.

오일민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이께서는 뒤짐을 지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백두의 험산준령을 제집마당밭듯 주름잡던 백전로장이 비로봉쯤이 두려워서 망설이지는 않

을것이구... 그러니까 실은 일민동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혼자소리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오일민을 향해 돌아서시었다.

《그렇다면 나도 동정이나 받고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일민동무! 비록 내 경험은 없지만 산발을 타는데서 지고싶은 생각이 없단말입니다. 그래 묘향산에 들어왔던김에 우리 한번 거뵈보지 않겠습니까?》

그이의 은근한 물으심에 오일민은 이상하게도 온몸에 그 어떤 승벽비슷한 젊음이 부쩍 되살아남을 느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을 다잡으며 똑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다.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치자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일민동무가 동의하지 않으면 별수 없지요.》

오일민은 그만 마음이 죄스러워짐을 느꼈다. 그이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집행만을 알아오던 그가 아니였던가. 그랬건만 이번 등산만은 그렇게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자신을 다시한번 다잡았다.

불시에 그 어떤 한가지 묘안이 그의 머리속에 번쩍 불꽃을 튀겨놓았다. 음력보름이라 달도 밝겠는데 유원지의 일군 몇을 데리고 등산길을 밟아보면 그만인 아니냐. 오일민은 자기의 그 속심을 무표정한 얼굴에 깊숙이 묻어둔채 입을 열었다.

《지도자동지께서 정 원하신다면야 저로서도...》

《그러니까 동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겠소?》

《그렇습니다.》

오일민은 비로소 무표정을 풀고 빙그레 웃음을 띄우며 말씀올렸다.

《허나 아까 하신 약속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산발타기말이지요? 겨루어봅시다.》

그이의 쾌활한 대답으로 해서 좌중은 힝충 즐거움에 잠기었다.

오일민은 방으로 돌아오자 은근히 《일》을 조직했다. 현대 날이 저물어 등산을 떠나려고 할 무렵, 그이께서 불시에 전화를 걸어오시었다.

《일민동무, 옳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래일 아침에 우리모두 함께 오르도록 합시다.》

오일민은 더이상 어찌는수가 없었다.

## 2

눈부신 아침해빛이 웅장한 골안에 환히 비쳐들 무렵, 등산복차림의 십여명대오는 등산길에 올랐다. 키가 꺾뚝한 유원지관리소 소장이 동행하고있었다. 일행은 소나무, 참나무, 분비나무를 비

못한 갖가지 나무들이 꼭 들어찬 울창한 수림속을 헤치며 기세쫓게 전진했다.

앞에는 담청색 등산복에 채양이 긴 운동모를 쓴 오일민이 서고 몇걸음 떨어진 그뒤에 지도자동지께서 서시였다. 그이께서도 등산복차림이시였다. 잠바식으로 지은 연회색 등산복과 전이 넓은 등그런 등산모는 그이의 인자하신 인품을 한층 돋구어주고있었다.

오일민은 락엽이 썩는 냄새와 짙은 풀냄새가 맑고도 청신한 공기와 한데 어울린 그 독특한 숲냄새를 폐부가 서늘해지도록 한껏 들이키며 말없이 걸었다. 숲속은 해빛이 들지 않아 어둡침침했다.

그는 될수록이면 제손으로 지도자동지께 길을 내드리려고 마음쓰면서 그이와의 간격을 보장하느라 자주 뒤를 돌아다보곤했다. 부근부근한 락엽을 여러번 밟아 빠지지 않게 다져놓기도 하고 앞을 가리운 잡관목을 온몸으로 와삭와삭 헤치기도 하면서 쉬임없이 앞으로만 나갔다.

지도자동지께서 믿음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좀 쉬엄쉬엄 갑시다. 일민동무보다 뒤따라가는 내가 먼저 지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을 타는데서는 일민동무가 나보다 낫겠습니다.》

오일민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주시는 말씀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때문에 더욱 가슴이 후터워진 그는 고로쇠나무가지를 한옆으로 밀어젖히다 말고 뒤를 돌아다보며 말씀드리였다.

《제가 뭐 지도자동지께서 산을 타시는 솜씨를 모르는줄 아십니까? 지도자동지께서는 피곤하시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오일민은 한층 기운차게 풀대들을 쓸어놓으며 앞으로 나갔다.

아름드리 진대나무 하나가 앞을 막고 가로누워있었다. 그는 물푸레나무가지를 끄당겨잡고 힘껏 밀었다가 그 힘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렵지 않게 그 진대나무를 훌쩍 뛰어넘었다. 산에서 싸울때 배워둔것이였다. 그는 그자리에 멎어서채 지도자동지께서 넘어오시기를 기다렸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진대나무 건너에서 환히 웃고계시였다.

《대단합니다. 일민동무에게 그렇게 날개가 돋우리라구는 미처 생각 못했었습니다.》

오일민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오래간만에 숲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숲에 들어섰지요. 숲… 정말 감회가 깊어집니다. 그러니 일민동무야 더 말해 펼쳐겠습니까.》

오일민은 묵묵히 그이의 말씀에 수긍했다. 그의 지나온 한생은 숲과 떼여놓고 생각할수가 없었다. 그가 혁명의 길에 들어선것도 이국땅의 눈보라 사나운 이런 숲속이였고 수령님을 따라 장수천리리를 헤쳐온 그 혁명의 가시덤불길도 이런 숲을 떼여놓고는 생각할수가 없었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솟

아오르시였다는 그 가슴벅찬 소식을 받아안은것도 바로 이런 숲속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 그날의 백두광명성을 오늘은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였다.

어느사이에 진대나무를 넘으셨는지 그이께서 오일민의 결으로 다가오시였다.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여보이시며 말없이 오일민의 한쪽 팔을 끼신 그이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그를 이끄시며 걸음을 떼시였다. 오일민은 묵묵히 그이께 몸을 기대며 걷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혁명가요의 선창을 떼시였다.

###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오일민장령도 따라볼렸다. 수원들도 입속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이윽고 숲을 뒤흔드는 우렁찬 합창으로 번져졌다.

휘날리는 붉은기, 달리는 대오, 만세의 함성…

오일민은 지금 십여명의 대오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대군단이 수림을 휩쓸고 지나가는것과 같은 환각을 느꼈다. 그는 그이의 팔을 더욱 힘있게 꼭 끼고 웅글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 힘있게 전진했다.

어느덧 평퍼짐한 수림지대가 끝나고 경사 급한 산길이 시작되였다. 비로봉초입이였다. 가파로운 산기슭을 에돌고 이끼돋은 바위벼랑을 뚫으며 그는 비로봉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한참 오르고나니 숨이 차서 견딜수가 없었다. 평퍼짐한 숲지대와와는 전혀 달랐다. 마음과는 달리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것이다.

그이께서 그를 부축해주시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때로 앞서 오르시다가는 되돌아오시여 적당한 휴식장소를 마련해놓곤하시였다. 그래서 전진속도는 숲을 지날 때와는 달리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였다. 일행은 물소리가 소연한 산중간쯤에서 다시 휴식을 하게 되였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너럭바위우에 올라서신채 그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사방을 둘러보시였다. 끝안을 짝 메웠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하늘끝에 닿을듯이 치솟아오른 산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기암괴석들이 우줄우줄 키돋음을 하며 그이앞에 묘향산의 신비로움을 아뢰이듯 서서히 자태를 드러냈다. 아찔하게 높은 벼랑 하나가 그대로 산악같은 바위들과 수십수백년을 묵은듯한 아름답리거목들이 한데 어울려 산은 그대로 웅장하고 기세차보였다.

멀지 않게 올려다보이는 골짜기 웃쪽에 폭포가 있었다.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수십길 벼랑우에서 허공 날아내린 물줄기는 밑에 떨어지자마자 뿐만 물보라를 일으켰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그 물보라는 즉시에 골안가득 쌍무지개를 불러왔다. 바로 그 무지개를 불러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이를 맞은 묘향산의 환호성인지

끝안을 들었다놓는 그 폭포소리는 산의 웅장함과 굳건한 기품을 한층 돋구어주는 듯싶었다.

《묘향산은 확실히 산세가 웅장하고 기상이 도도합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묘향산 유원지관리소 소장이 한결을 나섰다. 그는 뜻밖에 그이를 자기네 명승지에 모신데다가 더우기 그이를 따라 등산까지 하게 된 그 기쁨을 감출수가 없어 노상 벅글거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명승지에 찾아오는 답사자들은 모두 말하기를 묘향산의 그 기상에 탄복하여 입구에 들어서는 첫순간부터 야, 야하는 감탄이 저절로 터져나온다고들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감탄을 해야 될 상원동에 이르러서는 너무도 황홀하여 그 야 소리마저 감감 잊어먹고 그저 입만 하 벌리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이께서 쾌활하게 받으시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와서 저 절경까지 다 보고나면 입마져 제대로 벌리지 못하게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집니다.》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는 답사자들모두가 묘향산의 절경을 한가슴에 안고 돌아가도록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신채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그에게 묘향산으로 들어오는 답사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었다.

소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설명해드리었다. 국가적으로 러비를 비롯한 모든 조건을 훌륭히 보장받으면서 오는 사람들만도 하루 수백을 헤아린다는것이며 게다가 기관기업소별로 자체로 조직해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평양에서 운영하는 유람용직통렬차를 리용하여 들어오는 수도시민들까지 합하면 수천명이나 된다는것 등...

《특히 름근에 사는 늙은이들은 왜놈때에는 명승지를 곁에 두고도 입산료가 없어서 그렇게 보고싶은 명산에도 한번 와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달이 멀다하게 자주 들어오고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착취사회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마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독점되어있기때문에 근로하는 절대다수 인민들은 이런 명산에는 발을 들여놓을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것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든 답사자들이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백방으로 편의를 도모해주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생각은 어느덧 여기 묘향산만이 아닌 전국각지의 명승지들로 이어지고있었다. 그것은 곧 그이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곳을 새롭게 잘 꾸리어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으로 무르익고있었다. 머지 않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그 모든 명승지들

에서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벌써부터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귀전에 와닿는듯하시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겹쌓였던 그동안의 피곤이 일시에 가셔지고 필요하다면 이제 당장이라도 눈앞의 산밭들마저 떠 옮겨놓으실상싶은 크나큰 열정이 온몸에 솟구쳐오름을 새삼스럽게 느끼시였다.

골짜기에서는 칠색령통한 쌍무지개가 한층 짙어가고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미노루 한마리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폭포 아래쪽, 하늘처럼 새파란소에 다가가서 한가하게 물을 마시고있었다. 새끼노루 한놈이 물을 마시다 말고 급기야 강충 뛰어올랐다. 수면에 비친 무지개를 발견한 모양이다. 그놈은 무지개와 그 무슨 수작을 붙여볼 모양인지 고개를 가웃거리기도 하고 두다리를 들고 우뚝 서기도 하면서 못가를 강충거리며 뛰어다닌다. 《노루다!》

《복작노루다!》

수원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노루가 도망칠것 같아 저어하시듯 얼른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대며 조용하라는 신호를 하고는 발을 저저디디며 빨리 아래로 내려가시였다. 오일민장령도 그이를 뒤따라 아래로 움직였다. 그런데 경사가 급한데다가 돌이끼가 어찌나 미끄러운지 발을 붙여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그런대로 짧은 대위의 부축을 받으며 뒤걸가량 내려갔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였다. 지적거리며 따라서는 오일민을 띄여보자 그이께서는 인차 되짚어올라오시였다.

오일민은 자기를 걱정해서 그러신다는것을 깨닫자 손을 흔들며 급히 말씀올렸다.

《저는 일없습니다. 천천히 뒤따라가겠으니 어서 가십시오.》

《생각해보니 내려가보았etzt 여기서 보던대로 폭포, 노루, 바위... 그 이상은 더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곧장 다시 올라오시자 그의 다른쪽 옆을 부축하시였다.

《어서 올라갑시다.》

오일민은 그이께서 자기때문에 걸음을 돌리신것이 아쉬워서 거듭 제격정은 말라고 말씀드리였다.

《내림길이란 오름길보다 몇갑절 더 힘이 드는 법인데 내가 미처 일민동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일민은 지금 자기의 몸움직임이 욕망과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자기자신을 두고 느낀 처음으로 되는 공허한 감정이기도 했다. 그는 친애하는 그이를 우려러보며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늘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산에 오르면서 보니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것이 알립니다. 사실은 제 지도자동지앞에서 산을 타는 숨씨를 한번 〈시위〉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고보면 세월이 흐르긴 흘렀는가 봅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생각깊으신 눈길로 그를 정겹게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었다.

《세월의 흐름이야 어쩔수 있습니까? 그저 마음만 늙지 않으면 됩니다.》

《! …》

오일민에게는 지금 우리 혁명의 수위에 친애하는 그이를 높이 모신 오늘의 영광이 생각할수록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때문에 그이앞에 서기만 하면 오랜 싸움으로 늙어온 장령이 아니라 마치도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애의 심정이 되는것이였다. 지금도 그는 그러한 행복감에 잠긴채 지도자동지의 부촉을 받으며 되짚어올라오자 그이께서 권하시는데로 너럭바위우에 주저앉았다.

《하긴 다시 되짚어올라오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저기 밑에까지 내려갔더라면…》

오일민은 불시에 말끝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랬더라도 지도자동지께 업혀서 숙소까지 돌아갈번했다고 무덤하게 말씀드리려던 자신을 깨달았기때문이었다.

《일민동무라면 내 업고서라도 숙소까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그의 마음을 앞지르며 호방하게 웃으시었다.

오일민은 지금 철부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듯 그이께 응석을 부리며 등산을 하고있는것이 정말 꿈만같았고 이제 비로소 평생소원이 이루어지는것 같은 행복감에 눈곱이 뜨거워졌다.

### 3

자신으로서도 어쩔사이 없이 노그라졌던 오일민이 편뚝 눈을 떴을 때는 새벽 2시였다. 그는 침대우에 벌떡 일어나앉았다. 무의식중에 창밖을 내다보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어계시는 각away 환하게 밝았다.

(아니 그럼?!)

오일민은 그런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잠을 잔 자신이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몰랐다.

그는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이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이께서는 책상앞에 조용히 앉아계시었다. 주단우를 저저디디며 조심스럽게 그이의 앞으로 다가가던 그는 그만 몸이 딱 굳어진듯 멈추어서고말았다. 그이께서 연필을 쥐고 앉으신채 쪽잠이 드셨던것이다. 오일민은 갑자기 눈앞이 확 흐려와서 그이상 아무것도 가려보지 못했다.

얼마나 피곤이 몰렸으면 저러시랴.

잠시후에야 그는 자신을 수습했다. 그이께서는 무슨 도면인가를 보다가 잠이 드신것이였다.

책상 한옆에는 수많은 문건들이 쌓여있었다. 이 밤중으로 다 보셔야 할 문건들인것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혁명과 민족의 장래가 전적으로 지도자동지의 어깨우에 놓여있는데 이렇게 자꾸 무리하시면 어찌겠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마음속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 무슨 인기척을 느끼셨던지 그이께서 편뚝 눈을 뜨시었다.

《일민동무, 이 밤중에 웬일입니까?》

그이께서는 자못 의아해하시었다. 오일민은 그만 목이 메어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체서야 그의 심정을 알아차리신듯 사람이 오는줄도 모르고 깜박 졸았다고 도리어 미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그를 책상옆에 있는 쏘파로 이끄시었다.

《내가 왜 일민동무의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오일민의 그 불같은 심정을 다 알고계시지만 달리는 어쩔수 없는 그이기도 하시었다. 오일민으로 말하면 수령님을 따라 조국과 민족,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의 험로를 꿇이 헤쳐온 우리 혁명의 제 1 세였다. 한평생 군복을 입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무장으로 지켜온 우리 혁명의 원로들중의 한사람이기도 했다.

그 혁명의 제 1 세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의 조선에 대해 생각이나 할수 있었던단말인가. 그들 때 사람을 금방석우에 올려앉혀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여기시는 그이시였다. 하기에 힘자라는것, 그들을 아끼고 돌보아주시면서도 무엇인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이시였다.

오일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계절에 맞추어 산 좋고 물 맑은 명승지에 휴양지를 정해주곤 하면서도 그보다 더 좋은곳은 없을가 하고 마음을 쓰신다. 건강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그가 혁명대오에 굳건히 서있기를 바래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손수 마련해주신 휴양지들에서 오일민이 아무런 사업적부담이 없이 즐겁게 휴식하고있다는 보고가 들어올 때면 여간 기쁘지 않으시였다.

이번에 그이께서 묘향산에 들어오신 진의도를 그에게조차 말하지 않은것도 다름아닌 그를 위해주려는 그 심정때문이었었다. 물론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그 심정에는 다른 수원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시였다. 그들로 말하면 었어치나 재쳐치나 당밖엔 모르는 충실한 일꾼들이었다. 금평지대에 대한 현지도의 나날에만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을 보좌하느라 그들모두가 밤을 지새우며 얼마나 성심성의로 노력해왔던가.

하기에 지도자동지께서는 며칠간이나마 오일민과 수원들모두에게 아무런 정신적부담이 없는 충분한 휴식을 마련해주고싶으시던것이다. 했으나 이제 더는 그러실수 없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오일민의 한쪽손을 가볍게 쥐시었다.

《일민동무, 사실 우리가 여기로 들어온것은 휴식도 휴식이지만 금평에 나왔던 걸음에 이곳에 들려 알아볼것이 좀 있어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금평지구로 현지지도를 떠나기 전날이었다. 그이께서는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건설하고있는 어느 중요 공장으로 나가시던 길에 길가의 한 농장에도 잠간 들리시었다. 집무실을 떠나신 걸음에 농촌형편을 직접 땅을 다루는 농민들에게서 들어보고싶으셨던것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서시려던 그이께서는 묘향산답사를 마치고 방금 돌아온 한 농장원청년을 만나 그와 뜻밖의 담화를 하게 되시었다. 답사가 어떻던가라는 그이의 물으심에 청년은 싱글벙글 웃으며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답사가 즐겁고 유쾌하기는 하였지만 묘향산초입에나 잦아온 기분이라는것이였다. 경치가 하도 기막혀 보고싶은 곳은 많았으나 등산날자가 제한되어 그럴수 없었다는것, 지금 생각해보아도 꼭 꿈에 땀맛을 보고 돌아온것 같다는것이였다.

지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서 돌아오신 다음에도 그 청년의 일이 어찌나 아쉬운지 다른 일이 영손에 잡히지 않으셨다. 그 청년의 마음이자 그곳에 다녀오는 모든 답사자들의 심정이겠는데 결코 소홀히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시었다. 차라리 그 청년이 답사기간의 생활조건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라면 것처럼 생각이 많아지지 않으실 것이였다. 도리어 청년은 생활조건을 두고 물으시는 그이께 아무런 불평도 없었다고 대답을 드리였다.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었다. 왜 불편한 점이 없었겠는가. 그이께서는 청년을 통해 리해력있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민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시었다. 그런 인민이기에 그들이 바라는 모든것을 하루빨리 더 좋게 마련해가실 의지를 더욱 굳히시었다.

그 청년이 바라는것은 큰 본전이 먹거나 품이들 그런 성격의것이 아니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답사조직이 그렇게 되었던말인가.

《나는 어제 여기로 오면서 묘향산동무들이 등산날자를 그렇게 바투 정한데는 필경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하는 길로 한 일군에게 알아보니 여기 동무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해 그렇게 되었던 다른 리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답사로정을 며칠 늘키보라고 하였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안을 가지고있지 못했습니다.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이께서는 그것이 여기 묘향산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겠지만 그 한 일군이나 한 단위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었다.

한가지를 생각해도 인민을 위해, 한걸음을 내짚어도 인민을 위해-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는 전과정에 철칙으로 삼고계시는 좌우명이였다.

《수령님께서 인민은 하늘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인민이 향유할 모든것을 하늘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그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더라도 묘향산은 철두철미 인민의 강산, 인민의 명승지로 되어야 합니다. 묘향산의 세계적인 경지도 인민을 위해 필요한것입니다. 국가적인 답사를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할뿐아니라 답사기간을 결정적으로 늘려야겠습니다. 어째서 우리 일군들이 답사조직하나 바로하지 못해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일군들속에 인민에 대한 헌신성이 부족한것으로밖에 달리는 해석할수가 없는 것이였다.

《문제는 그 헌신성의 부족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조건작건 일을 하나 설계할 때면 그뒤에 있는 큰것을 내다보고 그에 맞게 조직사업을 해야겠는데 그렇지 못하단말입니다. 이곳 형편이 그것을 실증해줍니다. 상원동이나 만곡동같은 개개의 황홀한 경치를 거쳐 모든 답사자들이 묘향산의 주봉인 비로봉에도 응당 오를수 있게 답사날자를 넉넉히 정해놓았어야 했을것입니다. 비로봉마루에 올라 발밑에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묘향산의 웅장한 전경을 부감하며 그것을 그대로 가슴뿌듯이 한품에 안아볼수 있도록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잠간 동안을 두셨다가 계속하시였다.

《그랬더라면 아마 묘향산구경이나 실컷 하려고 가볍게 달려왔던 답사자들도 무엇인가 가슴속에 큰것을 안고 송엄한 감정으로 돌아갔을것입니다. 애국심이라 할가. 애국주의는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감수하고 음미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트고 가꿔지는것입니다.》

오일민으로서선 전혀 생각하지도 예견할수도 없었던 뜻밖의 말씀이였다. 듣고보니 그이께서는 이미 더 이상 놓쳐서는 안될 그렇듯 작은것 같으면서도 중대한 문제를 안으신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것이였다. 결국 묘향산에 들어오신것도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현지지도의 연장이였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고 인민에게 묘향산의 아름다움을 통채로 안겨주려고 마음쓰시며 이밤도 새우고 계시는 지도자동지시였다.

오일민은 점점 머리를 수그리였다. 이제 비로소 그에게는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그이께서 밤을 지새워가며 금평지구의 현지지도일정을 앞당겨가시던 일, 등산로정을 굳이 비로봉으로 정하시고 몸소 험한 산길을 툴아오르시던 일... 순간 오일민은 등산길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할, 오직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는 그이께서만이 개척하실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길임을 확신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말인가. 수령은 인민을 위해 밤을 새워 일을 하시고 전사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편안히 잠만 자고있으니...)

오일민의 눈앞에는 어제 등산길에서 있었던 일들이 방금전의 일처럼 선히 떠올랐다. 그이께서 오일민 자신과 등산보조를 맞추느라 자주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려주시던 일, 그이의 팔에 매달려 부축임을 받으며 산길을 돌아오르던 일... 결국 그 자신은 지도자동지의 그 성스러운 등산길을 도리어 지체시키고 방해를 논 셈이었다.

그는 생각할수록 그런 자신이 민망스러웠고 억이 막혀 눈을 꼭 감았다. 아아! 이 청맹파니같은놈아! 그는 몸부림을 치듯 번쩍 눈을 뜨고 저도 어쩔사이없이 불쑥 입을 열었다.

《그럼 어째서 그 말씀을 이제야 하십니까.》

뻔히 아는 투정질이었다.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러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어 도리어 뜨겁게 대해주시었다.

《그래서 내 이렇게 속을 터놓지 않습니까. 기실 묘향산에 들어왔던김에 내 휴식삼아 답사자들을 위해 등산길 하나 열어주자는건데 뭐 그리 큰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민동무가 그러는걸 보니 다른 동무들까지 알았다가는 정말 큰변나겠습니까.》

지도자동지께서는 환히 웃으며 책상우에서 별과 삼각형, 동그라미 등 각종 표식이 가득한 도면을 집어 그앞에 가져다놓으시었다.

《밤이 깊었지만 좀 토론해봅시다. 관리소장동무가 하루동안의 등산로정을 따라가며 만든 도안인데 내가 좀 보충을 했습니다.》

그 표식들은 앞으로 정각이 들어왔고 줄다리 와 란간과 등산에 도움이 될 각종 장치물들이 있게 될 장소들이다. 인공적으로 자연풍치를 더 돋구어줄 개소들도 있다.

밤은 그요하다. 폴벌레소리마저 몇어버리고 이제는 정원을 감돌아흐르는 개울물소리만이 소연하게 울린다. 수령님께서 지켜주신 산촌의 물소리다. 언젠가 이곳 일꾼들은 개울물을 막아 양어장을 만들고 산천어를 기르려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되면 답사자들이 산천어는 먹게 될지 모르나 개울물소리가 없어지므로 산촌의 독특한 밤정서를 맞보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타일려주시었던것이다.

깊디깊은 계곡을 지나고 울창한 수림속을 급히 빠져나온 개울물은 그날의 그 깊은 사연을 전하듯 잠시도 쉬지 않고 주절댄다. 주절주절 주절...

《물소리가 참 좋습니다.》

물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던 그이께서는 다시금 도면우에 눈길을 모으며 물으시었다.

《일민동무 생각에는 이 도안이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오일민은 목메인 소리로 겨우 이 한마디를 했을뿐이었다. 얼마나 웅심깊은 뜻이 담겨있는 도안인가.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헌헌하게 말씀하시었다.

《일민동무가 좋다고 하니 내 마음도 기쁩니다. 이제 평양에 올라가면 전국적인 판도에서 명승지 답사정형을 료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 조금전에도 비쳤지만 등산길얘기는 우리만 알고있어야겠습니다. 나나 일민동무의 힘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일을 바로잡아놓을수 있겠는데 공연히 다른 동무들까지... 금평지구에서 나를 돕느라 모두 수고들을 했는데 아무 정신적부담이 없이 꼭 쉬게 하잔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민은 그 말씀속에 담긴 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에 격해지는 심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이렇게 대답올렸다.

## 4

오일민은 여느때보다 좀 늦어 잠에서 깨여났다. 밤새껏 뒤척이다가 밝을녘에야 눈을 붙였던 것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혁명에 바쳐온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았고 그것을 인민에 대한 그이의 헌신성에 자주 비추어보게 되는것을 어찌는 수가 없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방을 나섰다. 발걸음은 이미 계획이나 했던것처럼 그이께서 계시는 정각앞으로 옮겨지고있었다.

밖은 아직 어둡컴컴했다. 그이의 방에는 불이 꺼져있었다. 그러실테지! 그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아무쪼록 그는 지도자동지께서 달게 폭 주무시기를 바라며 그이의 안녕을 지켜 보초근무를 서듯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한동안이 지나 날이 환하게 밝았다. 했으나 여전히 그이의 방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아무리 밤늦어 잠자리에 드신다 해도 이처럼 밖이 환하도록 누워계실 그이가 아니시였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현관으로 들어섰다.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온 나이 듬직한 수원이 급히 밖으로 나오고있었다. 오일민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것을 예감하며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오일민이 다시 물어서야 그는 당황해하며 그이께서 벌써 어디론가 떠나신것 같다고 대답했다.

《뭐요?》

오일민은 대뜸 눈꼬리가 들렸다.



《방안에는 들어가보았소?》

수원은 대답을 못했다. 오일민은 제잡담 그이의 방으로 다가가자 성급히 문을 두드리 손기척 소리를 냈다.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텅 비어있었다. 정갈하고도 규모있게 정돈된 방안 어디에서도 그이께서 주무신 흔적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책상우에는 밤에 본 것과 같은 도면이, 하지만 그것보다 몇곱절 더 크고 구체화되고 정리된 그런 도면이 놓여있었다. 어제밤에 오일민 자기를 바래주신 후 다시 정리하신 모양이었다. 두손으로 책상을 짹 눌러짚고서서 모진 아픔을 참는 때처럼 얼굴을 이지러뜨리며 도면을 들여다보던 그는 문득 그 도면 한복판이 손바닥만큼이나 아무 표식도 그려지지 못한채 공간으로 남아있는것을 발견했다. 밤에는 미처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곳이었다. 그 공간이 다름아닌 그 새끼노루 한놈이 쌍무지개를 향해 수작을 보여보던곳이라는것을 알아본 순간 그는 다시한번 뼈아픈 죄책감을 느꼈다. 일단 손을 대신 일은 크건작건 끝장을 보고야 마시는 그이의 성미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오일민은 급히 방안에서 나왔다. 그 수원이 한가닥 기대를 품은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 오일민은 점차 얼굴이 침침해졌다. 입귀마저 푸들푸들 떨리기 시작했다.

《정말 한심한 일ियो.》

그것은 오일민이 그 수원에게 앞서 자기자신에게 한 심한 질책이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뼈아픈 원망과 불만의 분출이기도 했다. 그는 그런 제마음을 어찌지 못해 성급히 몇걸음 옮기다가 문득 벗어섰다.

《나나 동무나 여기 묘향산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이의 안녕을 잘 지켜드리지 못했소. 다시말해서 우리 인민의 의사를 잘 받들지 못했던말ियो. 그이를 모시고 다니는 우리 수원들에게 인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겠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체 인민을 대표해서 그이의 안녕을 백방으로 지켜달라는거란말ियो. 헌데 우린...》

오일민은 걱정이 솟구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동무자신도 이제 알게 될거요. 그이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제 올랐던 그 노루굴로 가셨을거요. 어서 먼저 가보오.》

수원은 허둥거리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오일민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그의 뒤모습을 멍청히 바라보다가 그가 정원 저쪽으로 사라지자 바빠정각을 나섰다.

날씨는 그닥 좋은 편이 못되었다. 한소나기 쏟아부을 차비인 지 잔뜩 습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비로봉쪽으로 꾸역꾸역 밀려든다. 비구름은 그의 마음을 한층 무겁게 해주고있었다.

오일민은 오직 한가지, 그이께서 계실 노루굴로 한시바삐 가야 한다는 생각밑에 빠른 걸음으로 정원을 벗어났다. 그가 큰길에 나서기도전에

그이께서 환히 웃으시며 짧은 수원 몇사람과 함께 들어오고계시었다. 수원도 뒤따라 들어왔다.

지도자동지께서는 오일민을 향해 곧바로 걸어오시며 흔연히 말씀하시었다.

《일민동무 나왔습니까? 새벽공기가 하도 좋기에 산보를 좀 했습니다. 마침 이 동무들이 따라나서기에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그이의 웃은 새벽이슬에 온통 화락하게 젖어있었다. 오일민은 그 옷자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두눈을 습벽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올리었다.

《알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무한한 존경과 신뢰와 안타까움과 지어 그 어떤 원망까지를 담은, 천만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그의 얼굴표정을 잠시 여겨보던 그이께서는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믿음과 사랑을 담은 그 은근한 음성으로 곁곁 웃으시었다.

《내 일민동무가 이럴줄 알고 인차 돌아서려 했는데... 그놈의 노루때문에 발목을 잡혔었습니다. 어찌나 천진스러운지 영 사람 무서운줄을 모르더라말입니다. 어제는 글썽 그놈이 어데서 문득 뛰어들었는데 생각했었는데 정작 가보니 기막힌 노루굴이 폭포 안쪽에 있더라말입니다. 옛말에 나오는 신선나라 관문 비슷한 돌문이 나타나기에 들어가보았더니 정말 탄 세상이었습니다. 그안 넓은 공지에 돌이끼가 얼마나 무성한지 그 무슨 푸른 주단을 편상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루들을 보호만해주면 얼마든지 번식시킬수 있겠습니다.》

그이께서는 기억을 생생히 되살리시듯 잠시 비로봉쪽을 돌아보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노루골경치가 정말 기막힙니다. 산우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판판 다릅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기묘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섰는데 금강의 만물상에 견주어도 손색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물은 수정같이 맑고 수림은 울창합니다. 묘하게 또 바위짜에 뿌리를 박고 자랐는데도 나무들이 어찌나 수세가 좋은지... 바위경치, 물경치, 나무경치, 그 세가지 경치가 어울려 골안에 신비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노루란놈들이 뛰어 들었던것 같습니다. 그 골안을 세경터라 하겠는지...이제 거기에 정각이나 잘 짓고 올라왔으면 옛날 신선부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묘향산에 찾아오는 우리 근로자들이 모두 로동당시대의 신선이 될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로동당시대의 신선이 될겁니다.)

오일민은 마음속으로 열렬히 공경했다.

《일민동무, 어서 들어가 식사나 하고 오늘은 비로봉을 점령해야지요.》

오일민은 그이께서 등을 가벼이 미시는대로 식당을 향해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는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오자 옷을 갈아입었다. 바지에 붉은 줄이 간 장령복이었다. 군복이 몸에 붙기도 하거니와 언제나 마음을 다잡고 신들미를 조이게 해서 그런지 이 아침따라 그

것을 입고싶었던 것이다. 평생을 입고 살아오는 군복이지만 그것만 입으면 자신에게조차 엄격해지는 그였다.

오일민의 마음은 벌써부터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오르고있었다.

돌이켜보면 구슬픈 일이지만 그는 어제의 등산길에서 자신의 육체적로쇠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허나 정신적로쇠란 있을수 없었다. 그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아침 군복이 입고싶어졌는지 모른다. 그는 거울앞에 다가서서 옷단장을 바로하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재삼 그것을 확신하자 그는 정원으로 나섰다.

그이께서는 한발앞서 나와계시었다. 장령복을 입은 그를 보자 그이께서는 자못 놀라와하시었다.

《일민동무가 웬일입니까? 그렇게 군복을 입고 산에 오를 작정입니까?》

한동안이 지나서야 오일민은 대답했다.

《저야 한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오는 몸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오늘따라 더욱 진지해진 오일민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참말 그렇습니다. 일민동무에게는 군복이 상 몸에 붙는것이 없을것입니다. 일민동무가 그렇게 엄숙하게 차리고 나서니 우리 대오가 한층 무게있어보이고 힘이 있게 느껴집니다.》

오일민은 자기의 그 모태기는 심정을 뜨겁게 리해하시고 긍정해주시는 그 웅심깊은 말씀에 더없이 가슴이 훈훈해졌다.

대오는 떠났다. 웃음, 말소리, 노래소리... 수원들은 저마다 어제 그이께서 몸소 찾아내신 그 세경터와 같은 절경을 오늘 등산길에서도 기어이 발견할 흥심을 안고 걸음을 다그쳤다. 허나 오일민은 숭엄한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었다.

어느덧 수림지대를 벗어나 비로봉 초입에 이르렀을 때였다. 검은 구름이 밀려다니던 하늘에서 비방울이 천둥천둥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비는 소나기로 번져졌다. 삼시에 끝안은 소나기의 란무속에 잠겼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옹위한 등산일행은 산마루를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오일민장령은 설사 일진광풍이 밀려든다 해도 그이께서 발길을 돌리시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미끄러지고 에돌며 바위벼랑을 뚫아오르기도 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선창에 따라 혁명가요를 부르며 무성한 풀숲을 헤쳐나가기도 했다.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에서 무한한 기쁨을 찾으시고 최상의 휴식을 느끼시는 그이시였다. 이제 그이의 발걸음이 가닿을 령마루 어디인가 비로봉이 거연히 솟아있을 것이었다. 문득 오일민에게는 모진 폭우에도 끄떡없이 솟아있을 아아한 비로봉이 마치도 인민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헌신성의 높이처럼 느껴졌다.

다음순간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헌신성의 높이를 어떻게 감히 비로봉에 비길수 있단말인가.

이제 머지 않아 그이께서 몸소 열어놓으신 비로봉등산길은 온 나라의 방방곡곡, 우리 인민이 사는 모든곳으로 잇닿아지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비로봉을 향해 끝없이 밀려들 것이었다. 그것은 그대로 그이를 우러러 영원히 변함없을 충성의 대하가 되어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희망찬 래일로 도도히 굽이치게 될 것이었다.

오일민장령은 자기 역시 그 대하속의 한방울 물이 되리라 생각하며 비로봉을 향해 번쩍 머리를 추켜들었다.

어느덧 소나기는 지나가고 유난히도 밝은 찬란한 해빛이 숲속가득 비쳐들기 시작했다.

## 가사

# 로병의 마음

심봉원

머리우에 흰서리 내리였어도  
로병의 이 마음 변함이 없네  
한시절 조국 위해 바친것 있다고  
추억속에 남은 여생 보낼수 없네

조국 위해 피도 땀도 우리 바쳤네  
그날에 맹세도 잊을수 없네

흘러간 지난날도 위안하면서  
값없이 살수 없는 로병의 마음

전승탑에 서있는 나의 전우들  
오늘도 나를 불러 기발흔드네  
나가자 로병들 그날의 자세로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병사

## 백두밀영의 마가목

(전호에서 계속)

어머니에게 쓸 약을 남에게 주었으나 곰손이는 마음이 가버렸다.

그는 어서 빨리 보고싶은 어머니와 그리운 버들아기를 만나기 위해 말을 땀다 몰아갔다.

공골말의 엉치엔 한때의 뽕얀 먼지가 뒤따랐다.

그날저녁 그는 또 하루밤 묵으려고 길가의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마을은 웬일인지 초저녁부터 등잔불하나 켜놓은 집이 없었고 무거운 침묵속에 잠겨있었다.

피자누룩한 밤길엔 곰손이의 말발굽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울릴뿐이었다.

곰손이는 짙광나무가 마당가에 서있는 어느 한 집 대문을 두드렸다.

오래동안 두드려서야 주인이 나왔는데 오십이 좀 넘었음직한 그 사람은 《뉘시오?》하고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맞아들였다.

곰손이는 길가던 사람인데 하루밤 묵어가려고 한다고 곰손히 말했다.

주인은 곰손이의 팔을 잡아끌며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자고 서둘렀다.

영문을 몰라하는 곰손이에게 주인은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 마을 뒤골짜기에는 백년 묵은 범이 있는데 호환이 심하여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네다. 매일 고운 처녀와 젊은이들을 꼭꼭 한 사람씩 물어가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그해 해가 지면 문을 닫고 그 누가 와도 열어주지 않는 풍습이 생겼으니 손님은 널리 량해하여주소이다.》

《백년 묵은 범이라구요?》

곰손이는 그 범을 잡아 이 마을의 호환을 없애주리라는 생각이 불끈 치솟았다.

다음날 곰손이는 건장한 젊은이 몇사람을 거느리고 범이 산다는 뒤골짜기로 올라갔다.

마침 흰바위위에 올라앉아 산천이 울리게 《파웅!》하고 울부짖는 범을 만난 곰손이는 창을 비껴들고 그놈을 마주 향해 달려올라갔다.

아찔하게 높은 벼랑우에서 백년 묵은 범과 싸움이 벌어졌다. 곰손이는 시뻘건 호랑이의 입을 찢어발기려고 그놈과 한몸이 되어 뒹굴다가 그만 천길나락으로 같이 떨어지고말았다.

《앗! -》

같이 간 젊은이들이 벼랑밑으로 달려가니 밑에 깔린 범은 그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곰손이는 마지막힘을 모아 《버들아기! 버들아기! 어머니를 잘 돌봐주소!》하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고 말았다.

마을사람들은 슬픔에 겨워 모두 울고 또 울었다. 그들은 호환을 막아준 고마운 곰손이의 시신을 렴습하여 발구에 싣고 애마-공골말의 뒤를 따라 그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였다.

이때 웬 사람이 급하게 말을 달려 이 마을로 왔다.

그 사람은 오자마자 곰손이를 찾았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곰손이를 보자 그 사람은 하늘땅이 울리게 통곡을 하였다.

그는 곰손이가 전날에 묵었던 그 집 주인이었다.

주인집어머니는 곰손이가 준 약을 쓰고 언제 앓았던가싶게 깨끗이 나았던것이다. 그것이 고마와 재삼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달려 뒤쫓아왔는데 그 은인은 눈을 감고 누워있었던것이다.

《여보시오! -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멀리멀리 메아리쳐갔다.

다음날 마을사람들은 곰손이의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들중엔 어머니의 병을 고친 길가집주인도 함께 있었다.

이틀후에 곰손이네 고향마을에 당도한 그들은 어머니와 버들아기가 살고있는 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들아기만이 그들을 반겨맞아주었다.

버들아기는 곰손이의 시신을 보자 《앗!》하더니 그자리에서 까무라치고말았다.

어머니는 마을사람들한테 아들의 행동거지에 대해 자초지종을 듣고나서 머리를 끄덕이더니 《장하다! 내 아들이!》하고 눈을 스프르 감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눈굽에선 두줄기의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다음날 그들은 곰손이를 양지바른 산기슭에 안장하였다.

그런데 그후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곰손이가 그토록 사랑하던 공골말이 집에 당도하여 마당주위를 한바퀴 빙 돌았는데 그 말발

굽자리마다에서 싹이 트고 잎이 피더니 웬 나무 줄기가 자라오르는것이였다.

얼마후엔 그 나무가지마다에 아름다운 흰꽃이 피고 동글동글한 열매가 빨갭게 열리는것이였다.

버들아기는 그것이 하도 신기하여 열매를 따서 숯불에 달여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더니 백지장같던 어머니의 얼굴에 불깃 불깃한 혈색이 돌고 얼마후엔 침상을 털고 일어나앉는것이였다.

참으로 신기한 약효였다.

그런데 그 나무의 잎번두리를 보니 에움이 신통히도 말의 발모양으로 되어있었다.

그래 사람들은 그 나무에 마가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마가목은 여러가지로 약효가 많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버들아기는 곱손이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후세사람들은 마가목을 의리와 구원의 상징, 선과 미의 상징으로 여기고 무척 사랑하였다.

이런 마가목이 백두산고향집 주변과 소백수굴수림속에서 자라게 되는데는 여러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있다.

원래 소백수굴에는 마가목이 없었다고 한다.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르신 지도자동지와 함께 백두산밀영을 떠나시던 그해 어느날,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울더니 마가목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머님께서 지도자동지와 같이 말을 타시고 백두산산발들을 넘나드셨는데 그 말발굽자리에서 마가목들이 자라났다는 전설도 있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전해지고있는것은 광명성에서 떨어진 별찌와 관련한 전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신 그해 봄이였다고 한다.

백두광명성을 맞이한 크나큰 기쁨과 끝없는 희망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전민적반일항쟁준비를 다그쳐나가고있던 유격대원들은 며칠째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잠을 자듯 잔잔하던 천리수해가 갑자기 파도쳐 설레이기 시작하더니 저 멀리 소백산마루에서 연삼일 하늘땅을 뒤흔드는 때이른 봄우뢰가 울었다고 한다.

《파르릉 광!》

신비로운 자연의 모든 소리를 누르며 은은하면서도 장엄하게 울리는 봄우뢰였다.

때를 같이하여 백두의 하늘가에 감빛노을이 일더니 천지를 붉은 화광으로 뒤덮었다.

신비경의 노을이였다.

그날 저녁, 백두의 하늘 높이 솟아 누리를 밝히던 광명성에서 별찌 하나가 튀어나와 밝은 빛을 뿌리며 고향집마당에 내리쏘는것이였다.

(무슨 일일까?)

언제나 백두광명성을 우러르며 조국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띠고있던 유격대원들은 너무나 신기하여 저저마다 그리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백두산밀영과 그 주변에 전에 없던 마가목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한동안 갑자기 나타난 마가목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그 나무들은 소백수굴에서 흔히 보는 분비, 가문비, 이팔나무와는 다른 넓은잎키나무였다.

다음날 아침 류달리 밝은 해빛이 온종일 마가목을 따듯이 비쳐주었다.

또 밤에는 밤대로 달빛이 유정하게 비쳐주었고 별들이 빛을 모아 마가목아지들을 어루만지었다.

마가목들은 어느 사이에 지심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함뿍 머금은 푸른 잎새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런가 했더니 가지가득 꽃망울이 부풀었다.

초여름에 접어들자 하늘땅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흰꽃이 송이송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왔는데 빨간 열매들이 어찌나 가지가 휘게 주렁주렁 열렸는지 고향집뜨락에 황홀경을 이루었다.

이때로부터 그 이름 빛나는 정일봉 기슭이며 사시절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소백수가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마가목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의리와 구원의 상징인 이 마가목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덕망을 안고 생겨났다고 하면서 뜻깊은 이 나무를 각별히 사랑하였다.

그후 언젠가는 간백산밀영에 있던 나이많은 유격대군의가 소백수굴에 있는 마가목열매로 부상자를 치료하였는데 그 효과가 하도 좋아 그들은 이 나무를 더 신비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 유격대군의는 중하게 앓고있는 한 부상자에게 밤낮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치료를 하였으나 차도는커녕 병이 점점 더 깊어만져 몹시 안타까와하고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소백수굴에 나타난 신기한 마가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군의는 범상한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열매로 약을 만들어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열매를 한줌 따다 약탕관에 넣고 달여서 앓는 대원의 입에 한술두술 떠넣어주었다.

신기하게도 즉시로 약효가 나타나 백지장같은 얼굴에 불깃불깃한 혈색이 돌았다.

하루도 변지지 않고 마가목열매를 달여먹었더니 마침내 열흘만에 것처럼 병이 중하던 대원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것이다.

군의는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옳거니, 예로부터 마가목은 의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로 일컬어왔거늘 백두광명성과 인연이 있는 소백수풀 마가목은 필시 우리를 구원 해주시려는 백두산별님의 사랑일세.

백두산별님은 만백성을 구원해주시려는 참된 의리와 덕망을 안고 탄생하신 하늘이 낸 위인이심이 분명할세.》

그후 유격대원들은 소백수풀의 마가목을 더없이 귀중한 보물로 여기고 정성껏 가꾸었다고 한다.

최근 과학자들이 밝히는데 의하면 이 나무열매 속에는 비타민이 많아 몸건강에 좋고 잎껍질에는 휘톤찌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살균제와 방부제로 쓰인다고 한다.

나무껍질도 말리워 각혈을 막는데와 거담제로 쓰는데 이 나무는 실지 항일유격대원들이 약재로 많이 리용하였다고 한다.

오늘도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던 백두산혁명전적지에 가면 이르는곳마다에서 이 마가목을 그리 힘들지 않게 찾아볼수 있어 답사자들을 전설의 세계로 이끌어주고있다.

하늘이 낸 위인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과 때를 같이하여 나타난 이 마가목은 전설적인 나무임에 틀림없다.

## 모 시 리

(총련)손지원

아이들의 고르로운 숨결소리 들으며  
강의안을 준비하는 고요한 밤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은  
모시리

내 눈에 민족의 뉘 새겨주시고  
내 손에 붓대를 쥐여주시고  
주체과학의 령마루에 올라서라 떠밀어주시고  
오늘도 교단에 세워주시고...  
입은 은혜 커갈수록  
높이 모시리

세상에는 지도자를 모시지 못해  
좌절과 진통 속에  
허덕이는 나라 많은데  
더 높이 모셔야 하리

기쁠 땐  
감격속에 우러러보는 그 모습  
어려울 땐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는  
우리의 영명하신 지도자동지

빛나는 반세기 향도의 별빛 안고  
주체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  
시대의 앞길 밝혀주신 그이를 우러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이여

아, 만민의 축복속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와 함께 뛰는 심장을 지니고  
주체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쁨이여  
조선의 영광이여

만리 이역에서도 모시고가리  
그이를 모시는 길우에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리니  
나의 삶 나의 청춘 꽃으로 피리니

가는 길우에 바람이 불고  
애국의 길우에 눈보라 쳐도  
천리길 마다하랴  
만리길 주저하랴

우릴 불러  
영원한 동행자라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이를 모시리  
모시고가리

#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이끄는 불멸의 사상리론

리수립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령도의 예술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주체의 수령형상창조리론을 집대성하시고 가일층 발전풍부화하시는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사회정치적생명체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지나간 년대들에 이룩된 수령형상창조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한 토대우에서 오늘의 수령 형상문학앞에 새로운 시대적과업들을 내세우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적수령관과 미학관에 기초하여 수령형상의 예술적생리를 완벽하게 밝혀내심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창조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문학의 대강을 밝히고 수령형상창조리론을 과학적으로 완성한 바로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영원불멸할 가치가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헌이 있다.

## 1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제시된 수령형상문학론의 독창성, 심오성은 무엇보다도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사업을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보고 수령형상을 제일주인공으로 내세울데 대한 사상을 통하여 주체문학전반에서 수령형상문학이 차지하는 핵심적지위와 주도적역할을 뚜렷이 천명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새롭게 형성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주체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과 복무대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수령형상문학을 주체문학건설의 핵심적지위에 확고히 세우시였다.

문학은 예로부터 인간과 생활을 자기의 묘사대상과 형상원천으로 삼고 인간에게 복무하여왔다.

지난 시기 문학은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계급의 생활을 기본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계급에게 복무하였었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때마다 문학의 기본형상대상은 바뀌어지곤하였다.

그러나 자주시대에 이르러 문학은 영원히 변함없는 형상대상과 복무대상을 찾게 되었으니 그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우리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이다.

오늘 우리 문학은 지난날 인류문학이 대상하여 본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 다시말하여 온 사회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삼게 되었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는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 혈연적누대로 되고있으며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모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일심단결의 완벽성과 공고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진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의 전형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문학이 오늘은 물론 미래에도 영원히 형상의 원천으로 삼고 시종일관 옹호하고 복무하여야 할 항구적인 대상으로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주체문학의 형상원천으로 밝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문학의 묘사대상에 관한 지난날의 범박한 리해에 중지부를 찍은 거대한 문예학상 발견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문학과 현실생활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조성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수령형상문학의 핵심적지위가 과학적으로 심오히 밝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관계이며 이 관계를 떠나서는 현실을 리해할수도 그 본질을 밝혀낼수도 없다. 문학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관계를 화폭의 중심에 놓아야 하며 수령형상문학을 핵심적위치에서 적극 발전시키면서 이와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학과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 문학을 개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문학사업에서 첫째가는 의의를 가지고 정면에서 다루는 주체별문학이 수령형상문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서 수령, 당, 대중의 3 위일체의 원칙을 견지하는 문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지향과 요구를 명확히 형상하는 문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창작방향으로 견지하는 문제, 작가가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옹호하는 립장에 튼튼히 설데 대한 문제 등을 밝혀주시었다.

여기에서 명백한것은 문학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원천과 복무대상으로 삼고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일심단결, 수령의 사상과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사회정치적집단의 투쟁에 모를 박는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담담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주제분야는 두말할것없이 수령을 중심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사상과 령도,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력사와 더불어 감명깊이 그리는 수령형상문학이다. 주체문학건설에서 수령형상문학이 핵심적지위를 차지하고 기본의 기본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령형상문학의 핵심적인 지위는 그 주도적인 역할과 밀접히 련관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원천으로 삼는 주체문학에서 이 생명체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이 핵심적지위를 차지하는것이 필연이듯이 단결과 령도의 중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이 주체문학전반에서 주도적작용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것이 또한 필연이다.

주체문학의 총적목표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에 집중되어있으며 우리 문학은 이 성스러운 위업수행의 사상적적무기이다.

주체의 위대한 태양성인 경애하는 수령님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향도성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형상창조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갈 때 우리 문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숭고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높이 모신 두분의 위대한 령도자께서 주체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전형이시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들께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것으로 하여 문학은 마땅히 두분의 위대한 형상을 자기의 제일주인공으로 높이 내세워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들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품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수령형상을 제일주인공으로 내세워 빛나게 창조하는 사업을 우리 문학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며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은 수령형상문학이 주체문학건설에서 차지하는 주도적역할을 높이 발양시키게 하는 혁명적문제사상으로서 주체문학의 기본의 기본을 튼튼히 담보하고 감화력과 교양적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이 숭고한 사상은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주체시대 혁명적작가의 본분으로 첫째가는 임무로 삼는 새로운 창작관을 소유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주체문학건설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운 작가라면 그가 누구든 수령형상창조사업에 헌신함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수령형상창작집단뿐아니라 모든 창작집단과 작가의 공동의 임무이며 전당적, 전사회적 과제이다.》**

주체문학의 제일주인공으로서의 수령형상창조사업은 반드시 전체 작가집단의 본분으로, 공동의 임무로 되여야 한다.

수령형상에 낯을 돌리지 못한 작가는 설사 아무리 많은 작품을 가지고있다하여도 주체시대의 작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

수령형상문학은 그 지위로 하여 웅당 주체문학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주체문학의 본보기로서의 높은 사상에술성, 철학적집중성을 가진 수령형상작품만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작가들이 수령형상창조사업에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투신할 때 위대성형상이 요구하는 창작가적준비,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창작적열정과 대담성이 발양되어 혁신적성격을 이룩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창작관이 수령형상창조에서 가져야 할 참다운 관점과 자세이다.

##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내놓으신 수령형상문학론의 독창성, 심오성은 또한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이 문학발전의 새로운 강령적지침을 밝힌 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하는것은 오늘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힘있게 전진시켜야 할 중대한 역사적과제가 제기된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의 악랄한 공세하에서도 우리 혁명은 준엄한 시련을 뚫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다.

이 심각한 역사적국면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지키고 빛내여가는 근본담보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일심단결하도록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핵심으로 한 당의 사상적무기로 더욱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장구하고 험난한 투쟁의 로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위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단결과 령도의 중심을 계승하는 문제는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나서고있다.

시대는 문학으로 하여금 수령형상문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새 시대의 령도자, 수령의 위대한 후계자를 빛나게 형상하며 온 사회에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원한 충성심을 높이 발양시킬것을 요구한다.

오늘 세계반동들과 사회주의의 배신자들의 정치사상적공세는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고 혁명위업의 계승을 파탄시키는데로 그 예봉이 돌려지고있다. 이것은 혁명문학으로 하여금 수령형상문학의 필연성을 신념화하고 그 참다운 발전방향과 창작원리를 견지함으로써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수령형상문학을 기본의 기본으로 틀어쥔 충성의 문학으로 역세계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심오히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의 별》을 비롯한 수령송가문학과 백두산전설에서 시작되어 해방후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으로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이하였으며 특히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1970년대이후 전면적으로 개화하여 전성기를 펼친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시어 새로운 발전방향과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형상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써 첫째로, 수령의 위대성형상을 사상과 령도 및 인간적품도의 세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며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그릴데 대하여, 둘째로,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는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며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 창작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셋째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사업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형상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의 위대성형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결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성을 수령형상의 기본령역으로 확고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상리론의 창시과정을 그리는 특수한 주체령역에서만 아니라 위대한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작가들은 위대한 생활속에서 수령의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를 깊이 있게 밝혀냄으로써 위대한 혁명사상을 심오히 반영하고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수령의 령도가 본질에서 정치적령도임을 옳바로 인식하고 기술실무적인 비범성에 매달리는 식으로 형상을 부각할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위대한 정치가의 면모를 심오히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정치와 전략, 령도예술을 그 위대하고 독특한 측면에 모를 박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도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주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전사와 인민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생활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면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성을 부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작가들은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배격하며 수령의 인간성을 행동이나 대사로서만이 아니라 내부적체험세계에서 표현하는 보다 심화된 경지로로 나가야 한다.

수령의 활동은 철저히 3위일체의 관점과 립장에서 당과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부각되어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형상은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켜 자주위업의 승리를 마련하는 활동속에서만 담보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를 형상하는데 힘을 넣으며 한평생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로정에 갇든 잊을수 없는 이야기들을 감명깊이 그려내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수령으로서의 품모를 본질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하며 그것을 수령으로서의 활동과 인간관계속에서 담보할데 대한 요구와 방도들이 밝혀짐으로써 사상리론가로서의 품모를 간파하는 경향, 정치성일면으로 나가면서 형상을 격식화하는 경향, 기술실무적비범성일면, 덕성일면으로 나가면



서 위대성의 격을 낮추는 경향들을 다같이 극복하고 수령의 위대성을 그 전모에서 옳게 형상하며 구성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형상문학의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하여 다음으로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 사업에 주목을 돌리게 하시고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창작에서 달성된 성과를 견지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었다.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창작에서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단계별로 일정한 역사적사변을 중심으로 형상하는 원칙을 지키며 일대기식, 전기식으로 나감으로써 형상을 평면적인 라렬에 그치게 하는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총서의 매 장편소설들은 또한 실재한 원형과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인물이 서로 련결되고 사건이 계승되게 하여야 하며 주제적과제도 련관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을 끝낸 조건에서 해방후편을 완성하는데 힘을 집중함으로써 직접적인 목격자, 체험자가 살고있는 우리 수령님대에 그것을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에는 한나라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 활동하시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과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령도하시는 만큼 해방후편 총서창작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제기될수 있으며 따라서 창작의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탐구를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밝히신 강령적가르치심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수령의 후계자의 형상창조사업을 주선으로 들어쥐고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이다.

장구하고 간고한 로정을 걸어온 우리 혁명은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주체문학앞에는 수령형상문제를 혁명위업계승의 견지에서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할 시대적과제가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령형상의 테두리안에 포괄되면서 독자적인 내용을 가진 새로운 형상범주로서 후계자형상을 제기하시고 그 본성과 창조에 관한 문제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를 잘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의 기본품성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으니만큼 그 절대적인 충실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이 형상의 선차적요구로 된다.

수령의 활동을 정열적으로 보좌하며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는 후계자의 중요한 특질로 하여 작가들은 또한 후계자가 이러한 혁명업적을 통하여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후계자는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후계자형상창조에서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들이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후계자형상리론은 우리 시대의 혁명문학에 력사적전환기의 요구를 뚜렷이 구현할수 있게 한 지도적지침이다.

후계자형상리론은 우리의 주체문학에서 이미 추진되어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형상창조사업이 가지는 시대적의미를 더욱 빛나게 부각하고 총서 《불멸의 향도》를 비롯한 이 주제의 다양한 작품창작에 커다란 활력을 주었으며 그 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가르치심은 수령형상문학의 대전성기를 더욱 찬란히 꽃피워 주체문학건설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에서 밝히신 수령형상문학론의 독창성, 심오성은 다음으로 주체의 혁명적수령관과 미학관에 기초하여 수령형상의 예술적생리를 완벽하게 천명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형상작품에는 고유한 생리가 있다.》**

문학의 생리란 형상을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서로 조화시키고 살아숨쉬게 하며 생활을 그자체의 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재현하는 원리를 말한다. 작가의 주관적의도는 작품의 생리에 철저히 복종될 때만이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실현될수 있다. 수령형상문학을 주체문학의 본보기로서의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올려세우려면 모든 작가들이 수령형상의 생리를 들어쥐고 창작을 벌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형상창조과정에 일반작품과 구별되는 합법칙성이 작용함을 통찰하시고 그 고유한 생리를 완벽하게 밝혀내임으로써 수령형상의 원리를 완성된 과학으로 정립하시였으며 창조의 위력한 무기로서 안겨주시었다.

수령형상의 원리에 관한 해명의 기초에는 혁명적수령관이 밝히는 수령의 사회적본질과 특성, 력사에 실재하는 위인으로서의 수령형상의 사실

적특성 그리고 수령형상창조의 주체인 작가의 충성의 창작적열정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리해가 놓여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생명과 단결과 령도의 중심이며 력사에 실재하는 위인으로서 이것은 수령형상의 생리를 규제하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가는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인민대중을 열렬한 충성심으로 교양하려는 창작적립장과 자세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것은 수령형상의 생리를 규제하는 주관적조건으로 된다.

수령형상이 싹트고 자라며 열매맺는 과정은 이러한 주객관적조건들의 작용과정이다.

수령형상창조의 원리를 제반 주객관적조건들의 전면적인 작용과정을 통하여 밝혀냄으로써 그 진리성을 담보하고 그것을 창작의 비결로 되게 한 여기에 이 해명의 심오성, 완벽성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수령형상의 사회적기초, 다시말하여 특출한 사회적지위를 가지는 수령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심오한 철학적리해로부터 출발하시여 이 형상의 생리를 밝혀주시었다.

수령형상작품은 특출한 위인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와 현실에서 살아숨쉬고 활동하는 위인으로서의 인간적품모를 다같이 생동하게 그리게 된다.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않는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수령형상작품은 고유한 생리를 가지게 된다. 수령형상에서는 수령을 추상적으로 절대화하여 그리면서 기정사실화하거나 구체적인 인물로 그린다고 하면서 개인일반의 형상에 융해시키는 편향을 다같이 배격한다.

수령형상작품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감명깊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으며 이를 위하여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우고 형상적화폭들을 통하여 심오한 철학을 펼쳐나가게 한다.

수령의 형상과제는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것으로 특징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위대한 철학가이며 그가 창시한 새로운 철학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리념으로 된다. 마땅히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수령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그려 뛰어난 품모와 업적을 보여주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수령형상의 생활적기초, 다시말하여 력사에 실재한 위인으로서의 수령형상의 사실적특성에 관한 통찰에 기초하여 이 형상에 고유한 생리를 밝혀주시었다.

수령형상에서는 일반화된 전형에 의거하는 어느 작품과 달리 원형자체를 절대시하고 내세우는 독특한 생리가 작용한다.

실재한 위인으로서의 수령형상의 구체적인 생리는 우선 작품의 형상을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맞게 부각하는데 있으며 다음으로 실재한 수령의 면모를 보다 심도있고 의의있게 보여주는 방향에서 종자도 잡으며 사상과 주제를 밝혀나가는데 있으며 이와 함께 예술적허구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방향에서 적용하는데 있다.

수령형상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력사문헌적성격을 가지므로 작품의 기본대가 력사적사실과 부합되어야 하며 예술적환상과 허구는 사료가 인멸되었거나 불충분한 경우 력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실을 추리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되살리고 작품을 인간학적으로 세련시켜 예술적감화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수령형상의 창작적기초, 다시말하여 인민들을 수령의 위대성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하며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는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로부터 출발하시여 형상의 원리를 밝혀주시었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알고 수령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받들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수령형상에서는 수령의 위대한 품모와 혁명력사를 정중하게 묘사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창작원칙으로 내세우며 고유한 생리로 하게 된다.

따라서 수령형상작품의 양상은 밝고 승엄한 것으로 된다. 흠모심의 절절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심리를 무겁고 어두운 빛깔로 형상하는 경향은 그 생리에 어긋나는것이며 오직 밝고 승엄한 양상을 보장하는것만이 수령의 영상과 수령에 대하는 인민의 감정에 맞는 형상원칙으로 된다.

이와 함께 수령을 보좌하는 인물의 성격을 잘 형상하도록 하면서 측근인물형상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성격의 핵으로 밝혀 충실성의 산모범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수령의 주위에 수령과 교락을 같이하는 충신들의 전형이 서있도록 하면서 그 성격적특질과 개성을 또한 잘 살리는데 관심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형상의 이러한 생리들을 밝히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문학의 일반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구현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수령형상작품의 문학성에 관한 요구에는 철저히 수령을 주인공으로 중심위치에 내세우며 종자를 깊이있게 심고 주제를 바로 세우며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리용하며 시점설정이나 묘사, 언어표현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 등이 중요하게 내포되어있다.

수령형상의 고유한 생리를 지키며 그것을 문학의 일반적창작원리와의 통일속에서 구현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리론은 수령

형상의 비결을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낸 거대한 사상리론적공헌으로 되었으며 수령형상문학을 위대성을 심도있게 천명한 인간학으로, 후세에 길이 전할 역사문헌적인 문학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지침으로 되었다.

×

수령형상문학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시대 작가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영광이며 최대의 특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여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문학의 새날이 열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 이 문학이 끊임없이 개화발전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과 작가들의 크나큰 민족적자랑이다.

전체 작가들과 문학분야의 모든 일군들은 다함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충성의 열정높이 주체의 수령형상문학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높은 창작적양양으로 매진할것이다.

##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리라

오피천

해빛 눈부신 거리  
여느날과 다름없이  
서로 찾고 부르며  
주고받는 인사도 다정히  
사람들이 물결쳐간다

하지만 나에겐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고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인민군대 탄원에 떨쳐나서고  
중대를 뚫고 소대를 편성한  
용해공들과 방직공처녀들이  
조국의 운명앞에 자신들을 내세우던  
그날의 그 발걸음 그 목소리가 생생하다

준전시상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강산도 엄숙해지고  
적들의 전쟁소동을 알리는  
격노에 찬 방송원의 목소리  
분노에 찼던 그 아침

오, 그 무엇을 가슴들에 안았기에  
뜨거운 그 심장에 무엇을 지녔기에  
인민의 발걸음 그리도 씩씩하고  
배심은 그리도 든든했던가

인간복락의 봄이 깃든 강산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화약을 재운 도화선에 성냥을 그어대면  
급시라도 전쟁의 불이 달릴  
일촉즉발의 시각에

우리의 가슴가슴에 기동처럼 일어선것은  
강철의 령장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서계신다는 한  
생각  
단호한 결심으로 선언하시는 그 명령앞에서  
벌써 승리를 확신했나니

분주한 세계의 통신들이  
조선에서 전쟁의 불길을 보게 될것이라고  
세계의 눈길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을 살피며 의혹에 잠겼는데

그처럼 단호하시고  
그처럼 자신만만하신 모습  
마치도 50년 6월  
그날의 내각비상회의장에서  
그리도 통쾌하게 웃으시던  
그날의 수령님을 다시 뵈옵는듯

하늘이 무너진대도 끄떡안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철의 신념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을 쓰시여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무비의 그 담력은  
언제나 이 땅에 승리만을 안아왔기에

나는 말하고싶구나  
이 하늘이 무너진대도  
이 행성이 흔들린대도  
우리 인민은  
배심도 든든히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 한길을 가고있거니

그 든든한 심장에서 울리는  
우리의 선언은 한마디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리라

##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에 대하여

김성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주체문학의 년대기우에 찬란히 빛날 또하나의 기념비적대작이 창조되었다.

이런 대작은 한두명의 작가나 연출가, 몇사람의 배우들이 지닌 재능에 의하여서는 창조될수 없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그 창조의 첫 순간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받고 그이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수령이 지닌 심오한 철학세계와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진실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참된 생명력을 지닐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연구하는 과정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인 수령형상론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는 과정으로 되는것이다.

### 1. 위대한 전략, 심오한 철학, 고매한 인간세계

이 작품을 두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셔진 수령의 빛나는 형상부터 말하지 않을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그처럼 매혹시키고 한없는 격동속에 심장을 짹 그러잡은 걸출한 위인의 형상을 떠나 다른 말을 먼저 할 여유가 없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일반화된 전형에 의거하는 어느 작품과 달리 원형자체를 절대시하고 내세우는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도 관련된다. 종자와 모든 형상요소들이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 집중된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잘 분석하는것이 다른 모든 형상요소들을 깊이있게 파악하는 관건적고리로 되는것이다.

####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에서는 령도자의 지위에 맞는 위대한 품모가 격이 있게 그려져야 한다. 수령의 품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수령의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전략적이며 로선적인 문제와 깊이 련결되어있다. 따라서 수령형상작품에서

는 사회정치적집단을 움직이고 력사의 거창한 전진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수령의 활동세계가 펼쳐질수 있도록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면서 어떤 형상과제를 내세우고있는가.

작품은 1952년 가을의 엄혹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전쟁은 이제 막고비에 이르렀다.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군대의 철벽의 진지방어전앞에서 연거퍼 앞은방아를 찢던 적들은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모험적인 최후의 《신공세》를 준비하였다. 90여만의 대병력과 1만 7천여대의 각종 포, 1,700여대의 탱크, 수천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대소함선이 증강되었다. 이제 《신공세》의 막이 열리면 우리가 《배지개》를 떠적을 뗏다꾼지느냐, 아니면 적이 우리를 한입에 삼켜버리느냐 하는 최후의 한판이 펼쳐질것이다.

이런 긴박한 정황에서 사단장 서인호는 이렇게 말한다.

《승리? 승리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게 아니요. 전투에서 승리하자면 적들보다 군사력에서 수적, 기술적 우세를 차지해야 하며 각 군종, 병종간의 긴밀한 협동이 보장되어야 하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세배의 력량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가 옳은가? 옳다고 상식은 대답한다. 인류사의 폐지에 적혀진 무수한 전쟁의 기록,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두차레나 전세계를 휩쓴 세계대전의 실천속에서 다듬어진 공인된 군사교범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수자와 기존군사교범은 행정하게 조선의 운명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최악의 정황에서 승리의 열쇠를 찾아 력사와 인류 앞에 제시할 엄숙한 과제가 위대한 수령님앞에 제기되고있었다. 기성세대의 모든 리념과 상식을 뒤집어엎고 조선의 운명을 건져낼 새로운 군사전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만이 담당할수 있는 력사적과제였다.

승리? 그렇다. 승리란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것이 아니다.

#### 원자탄이나 로케트보다도 더 위력한 무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그 승리의 열쇠를 찾으시였다.

현대전쟁에서 《힘》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은 원자탄이나 로켓이다. 그것은 정교한 과학이 밝혀낸 물질세계의 《법칙》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말 그대로 인간의 의지로서는 움직일 수도 변경시킬 수도 없는 것이 《법칙》이 아닌가.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남먼저 원자탄과 로켓을 가진 나라는 마땅히 약소민족의 지배자로 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물질세계의 이 《법칙》에 도전하여 새로운 법칙이 발견되었다. 차라리 그것은 발견되었다기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꼭새골에서 어제날의 꼬마전령병이었던 강석련대장은 놈들의 무력이 우리보다 몇배나 더 강한데 이길 자신이 있는가고 물으시는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올린다.

《그걸 생각하면 이 전쟁을 못합니다. ...

장군님! 우리가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 전투경험이 있어서 백만대군과 싸워이겼습니까.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뿐이었습니다.》

또한 아들 머느리를 다 잃은 김씨는 자신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장군님께 간절히 아뢰인다.

《장군님! 해방된 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된 우리 만백성이 떨쳐났으니 전쟁은 우리가 꼭 이깁니다.》

소박한 전사들도 오직 결사의 각오와 맹세를 말씀올렸을 뿐 누구도 겁질린 한숨은 보이지 않았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인민의 모습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며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저 어머니의 모습에서 강철같은 우리 인민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각성된 자주적인 우리 인민의 힘은 그 어떤 원자탄이나 로켓보다 더 위력한 무기입니다.

놈들이 바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각성된 자주적인 인민의 힘!

-그것은 그 어느 군사교범에도 서술되지 못했고 적들의 작전문건에서 그 어느 수자로도 기록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미증유의 힘이었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찾아주시었다. 그 힘의 본질은 수령을 믿고 그 두리에 일심단결된 심장과 녀의 위력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전략의 기초에 바로 그 힘에 대한 타산이 놓여있었다.

### 방패와 창

인민의 힘을 믿은 주체의 군사전략은 대담한 창조적 전법을 낳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유럽의 초원이나 동북의 벌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이 많고 동서해안에 갭도를 깊숙이 파고 들어앉아 땅속길격조, 비행기사냥군조, 야간습격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주체전법을 밝히시었다. 《요새화된 갭도에 의한 적극적인 방어전》-이것이 기성의 군사교범과 관례밖에 모르는 원쑤의 발악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불세출의 천출명장이 찾아주신 철의 《방패》였다.

적의 포화가 울부짖고 비행대의 폭격이 바위를 들부실 때 전사들은 갭도에서 팔씨름을 벌리고 노래를 불렀다. 폭격이 멎으면 적을 맞받아나가 사자처럼 싸웠고 집결하는 땅크를 찾아가 불벼락을 들썩였다. 적의 공세는 이 《방패》앞에서 절벽에 부딪친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그러나 적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전담판장에서의 양보, 적소굴에서의 쑥덕공론, 전선에서의 배비변경...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새로운 전술을 제시하시었다.

《놈들이 칼을 빼들고 덤벼든다고 방패로만 막겠소? 이번엔 우리가 먼저 달려가 창으로 뚫아 찌릅니다.》

그리하여 강위력한 반타격전의 명령이 내려진다.

385 고지를 비롯한 적의 요충지들을 뚫다쳐서 12키로메터이상 남으로 적을 내몰아 놈들의 《신공세》를 아예 끝장내라는 장군님의 반타격명령에 따라 《방패》는 순간 《창》으로 변하여 적의 숨통을 찔렀다.

천번만화하는 이 천재적령군술앞에서 그 어떤 적이 견디어낼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두번째 승리의 열쇠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창조적인 주체전법이었다.

###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속에서

주인된 조국에서 자주적인 새 삶을 체험한 인민의 힘은 크다. 그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혀 새로운 전법을 밝혀주는령장의 예지도 위력하다. 그러나 그 인민의 힘이라는 《불심지》에령장의 예지가 《불씨》로 옮겨져 원자탄이나 로켓보다도 더 강한 위력을 나타내자면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에 혈연적인 뉴데와 사상의리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그이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간세계를 깊이 파헤치면서 수령이 지닌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역센것이며 그앞에 심장을 내던 인민의 충성과 효성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지극한가를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꼭새골의 한 로송나무앞에서 전쟁전 그곳에서 만나보신 평범한 농촌세포위원장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뜻밖

에도 그가 희생되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오늘 희생된 아들을 대신하여 어머님댁에서 하루밤 묵어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세포위원장의 아들인 전사 박성남이 땅크습격조에 나가 적땅크 7대를 까부시고 치명상을 입었을 때는 친히 야전병원으로 찾아가시여 의식있는 병사를 안타까이 불러주시고 기어이 살려낼 대책도 세워주시는것이다. 이 친아버지의 사랑이 다 죽었던 전사를 살려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인간세계는 련대장 강석과 그의 애인 주은경의 사랑을 친부모의 정으로 지켜주시는 장면들에서도 빛을 뿌리고있다.

마안산에서 소년중대에 입대하였을 때 감기에 걸려 장군님 등에 업혀가며 엉엉 울었던 강석이다. 해방직후 김책동무랑 그를 장가보내려고 마음써왔지만 이렇게 로총각으로 만들었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는 장군님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드는 처녀에 대해 응석처럼 고백한다. 왜 그런지 자꾸 엇서게 되고 오늘은 노엽히기까지 했다고.

《노엽혔다? 하하…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숨박꼭질을 해서는 안되오. 우선 혁명동지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대해줘야 해.》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자심한 당부를 해주셨다.

이처럼 우리의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아들이 되고 친아버지가 되시여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신다. 이 사랑과 믿음에 인민은 심장을 바쳤다. 믿음에는 충성을, 사랑에는 효성을… 그리하여 그들은 목숨바쳐 수령의 전략을 관철하였다.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결합된 이 일심단결을 깨뜨릴 힘은 없다.

### 격식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난 시기 일부 작품들에서 수령형상은 어딘가 시원하게 탁 트이지 못하고 범접할수 없는 경계와 울타리를 친듯한 감을 느끼게 하여 독자들의 실망을 자아내곤하였다.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이 문제는 작가들앞에 나선 최대의 난문제였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와 현실에서 살아숨쉬고 활동하는 위인으로서의 인간적품모를 다같이 생동하게 그릴것인가.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데서 대담한 형상적시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령과 주위인물들사이의 인간적관계를 깊이 파면서 공식적관계를 떠난 생활세부를 많이 그려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석이나 주은경을 비롯한 전사들과의 관계에서 룡담도 하시고 우스개소리와 생활적인 말씀도 자주 하신다. 쪽새골에서 강석에게서 은경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듣는 대목과 김선화, 박성남, 배한봉과 소탈하게 인사를 나누시는 대목은 매우 생활적이다.

여기서 가장 감명깊은것은 사랑하는 자제분들과의 관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낸것이다.

제 4 장 《최고사령부 집무실》에서 아드님께서 극진한 효성을 담아 손수 캐신 달래와 축원의 편지를 받으시는 장면은 이 작품에서 수령의 인간세계를 뜨겁게 펼쳐보여주는 최고의 극치로 된다.

호위군관으로부터 장군님께서 요즘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아드님께서선 입맛을 잃으셨을 땐 메주장에 달래를 넣고 끓여 올리면 식사를 잘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린 너동생과 함께 온종일 발뚱에서 달래를 캐시였다. 그 효성의 달래와 함께 글모르는 누이동생의 손을 그린 그림편지와 고귀한 충성과 효성이 담긴 축원의 글월을 올리시는것이다.

귀여운 따님의 손을 그린 그림을 보시고는 그처럼 밝게 웃으시였고 아버지께서 건강하시여 항공에 주의하고 항상 몸조심하심은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며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하신 아드님의 편지구절을 읽으시고서는 아드님이 벌써 나라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못내 대견해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은 참으로 숭엄하기 그지없다.

혁명연극은 또한 수령의 내면세계도 진지하게 파고들었다. 과학자들과 설계가를 만나신 자리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신심에 넘쳐 펼쳐보이신 다음 홀로 남게 되시자 원쑤에 대한 분노에 넘쳐 《조선은 싸운다》의 시구절을 천천히 외워보시는 대목은 그이의 깊이신 심중을 생동하게 그려주고있는것이다.

이리하여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수령의 형상에서 격식의 울타리를 벗어나 산 인간의 생동한 모습으로 훌륭히 창조할수 있었다.

### 수령의 형상이 밝혀준 불멸의 진리

수령형상에 바쳐진 주옥같은 생활세부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모든 형상이 주는 의미는 결국 385 고지습격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강석련대장이 최후의 순간 심장으로 웨친 이 한마디에 귀착된다.

《…태양이 있으면 영원한 광명이 있듯이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조선은 영원히 빛날것ियो. 우리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요.》

바로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작품에 제기된 무게있는 형상과제가 해결되었다.

여기에 작품의 사상적핵이 심어져있다.

## 2. 영웅적인간의 다양한 개성, 우리 식 극작술의 빛나는 구현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의 예술적성공을 론할 때 수령을 보좌하는 상대인물들을 일정한 사회적계층의 대표자로 전형화하면서도 저마

다 자기의 생활을 가진 생동한 성격으로 개성화하고 수령의 위대한 풍모를 보여줄수 있게 극조직을 치밀하게 해나간 창조적경험을 말해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서 극조직의 총적과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수령의 위대성을 다면적으로 깊이 파고들수 있게 립체적으로 짜고 수령의 령도선을 주선으로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치밀하게 맞물리는것이다. 감정조직도 시종일관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에 기초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체험하고 충성과 효성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는 흠모선을 기본으로 엮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성황당》식극작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

이 작품의 극조직에서 기본특징은 치렬한 전쟁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적대적관계에 있는 부정인물들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 사이의 관계속에서 극을 찾아 극성을 살린것이다.

물론 여기에 생동하게 개성화된 성격으로서 외국의 군사교범에 대한 교조에 빠져 패배주의에 사로잡혔던 서인호가 등장하나 그는 결코 수령과의 관계에서 반선이라고 볼수 없다. 오히려 그는 수령의 위대한 풍모에 감복하여 주체적인 군사전략을 체득하고 참된 충신으로 성장하는 성격으로서 수령과 전사사이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극적굴곡속에서 감명깊게 보여줄 형상과제를 안고있다.

### 수령을 중심으로 한 립체적인 인간관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인간관계만 보아도 사회계급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다양한 시공간속에 놓여있습니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속에 얽혀있는 인간생활을 본래의 모습대로 립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극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하는것은 《성황당》식극작술의 기본요구이다. 여기서 인물관계를 립체적으로 설정하는것은 갈등과 사건의 립체성을 기초지으며 구성의 립체성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파라》에서는 수령의 사색과 활동의 폭과 깊이를 보여줄수 있도록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인물관계를 립체적으로 설정하였을뿐아니라 한 인물과의 관계도 정치군사적

인것과 인정적인것의 다면적관계로 심화시키고 있다.

혁명연극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인민군지휘관들과 전사들, 인민들 그리고 과학자들과의 관계를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로 폭넓게 설정하였을뿐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지휘관들인 강석과 서인호사이의 갈등, 강석과 주은경사이의 애정, 박성남과 배한봉사이의 전우애를 비롯하여 여러면으로 엮어나가고있다. 이리하여 극이 단조롭지 않고 복잡한 생활의 리면까지 실감있게 보여줄수 있었을뿐아니라 중요하게는 전선과 후방, 과거와 오늘, 래일의 폭넓은 시공간속에서 수령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을 옹바로 보여줄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혁명연극에서는 인물관계를 극적인 관계로 근기있게 심화시키고있다. 특히 원수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직접적인 성격적충돌로 설정하지 않은 조건에서 같은 목적과 지향을 가진 동지적관계에서 나타나는 강한 극성을 찾아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여기서 강석과 주은경, 강석과 서인호, 전사들과의 관계가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처음에는 서인호의 편견으로 인하여 박성남과 배한봉이 후방부대에 《쫓겨》가는 극적체험을 겪게 되고 그것이 장군님에 의해 해결되었지만 이번엔 주은경의 《원칙성》과 령단성으로 하여 결정적계기에서 그들이 부상병으로 후송될번하는 심리적극절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어 진짜 극적체험은 서인호와 주은경이 겪게 된다. 여기서 강석도 하나는 존경하는 상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애인인것으로 하여 더 복잡한 심리적극을 체험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다면적인 극적관계들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참된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되어가는것으로 풀려나가고 있다.

### 다양한 성격적대조를

인물관계를 립체적으로 조직한다는것은 단순히 여러 계층의 인물들과 다각적인 관계를 맺어 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각적인 관계에 얹힌 인물들은 선명한 성격적대조를 이루면서 두드러지게 개성화되여야 비로소 립체성이 달성된다. 성격적대조가 뚜렷하지 않고 그저 직무나 성별 같은것을 구별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군더더기만 잔뜩 덧붙여놓은것처럼 산만감을 줄것이다.

혁명연극에서는 수령과 련결된 매 인물들이 두드러진 개성으로서 힘있게 부각되고있다.

×

련대장 강석:

마안산에서 입대한 소년중대출신의 젊은 항일투사로서 불같은 성미를 가진 패기있는 지휘관이다.

처음부터 그는 우리들앞에 이때까지 다른 작품들에서 보아온 중년급의 항일투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지금 련대장이라는 직급에 어울리지 않게 첫사랑을 하고있다. 상급준의 주은경에게 반한것이다. 하지만 왜 그런지 그와는 엄격한 말만 하게 된다. 병사들의 오락회에 들어서 2 중창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처녀에게 성이 나 부르짖는다.

《동무, 애국심은 그 메스끝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노래속에도 있다는걸 명심하시오. 마가울의 찬바람처럼 쌀쌀하구만.》

병사들의 요청앞에서는 그렇게도 소탈하고 너그럽던 강석이지만 적앞에 겁을 먹고 일부 대대에 철수명령을 내린 사단장 서인호앞에서는 강경히 전사들의 피가 스민 고지를 내줄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게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확고하고 장군님의 주체적군사사상이 체질화되어있는것이다. 하기에 장군님의 군사전략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었다. 반타격전의 서막인 385 고지습격전투때 불의의 정황들이 련이어 조성되었지만 그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부대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여제끼고 장렬히 희생된다. 최후의 그 순간에 그는 은경에게 비로소 마음속의 사랑을 고백한다. 그리고 장군님만 계시면 조선은 영원히 빛날것이며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이시라고 심장으로 부르짖는다.

혁명의 1 세대 충신의 전형이다. 대바른 사람, 불같은 사람, 순결한 사람...

×

상급준의 주은경:

그는 직무에 헌신적이고 용감하였으나 전쟁과 생활, 원칙과 인간성을 따로 갈라보았다. 병사들이 노래를 요청했을 때 《우린 싸우기 위해 전선에 나왔지 노래나 부르려고 나온건 아니》라고 대답한 《마가울의 찬바람》이었다.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도 땅크습격조를 탄원하는 전사 박성남을 무작정 후송시키려고만 한다. 하기에 강석은 내가 한번 동무의 심장을 진찰해보고싶다면 이 렇게 말하는것이다.

《동무는 원칙성과 엄격성으로 참된 군의의 위치를 지키려 하는것 같은데 생활에서는 그런걸 뛰어넘는것이 있다는걸 모르고있소.》

장군님께서 어린 성남전사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목격하고 강석을 비롯한 전사들의 불같은 심장의 열도를 느끼면서 은경은 새로운 인간세계를 발견하고 《마가울의 찬바람》으로부터 《열풍》이 된다. 그는 그 누구도 나서길 주저하는 성남의 수술에 용감히 자원해나섰으며 385 고지습격전투를 앞둔 오락회에서 정서깊은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춘다. 그는 한갓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지적사랑으로서 최후를 앞둔 강석의 마지막 고백을 눈물로 받아들인다.

×

전사 박성남:

그는 아직 임무 그자체보다 적개심을 앞세우는 미숙한 병사였다. 경찰에 나가 붙잡은 적포로놈의 허리에 《머저리수류탄》을 매달고 안전고리에 맨 노끈을 잡고 앞장서 달림으로써 포로놈이 눈이 뒤집혀 따라오게 만든 꾀있는 대담한 전사였으나 그놈이 작전문건을 없애버리는데는 관심을 두지 못하여 사단장으로부터 후방부대에 나가라는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친히 수여해주신 기관단총을 받아안고 자기 가족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부상당한 몸으로 적땅크습격조에 나가 혼자서 7 대나 까부시는 영웅으로 자란다.

×

사단장 서인호:

외국에서 배운 군사교범에 물젖어 전투의 승리를 메마른 수자와 교범의 조항으로만 타산하였다. 전사들과 심장을 맞대고 그속에 타끓는 애국심과 적개심을 감득할줄 몰랐고 따라서 소박한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다. 그는 장군님앞에서까지 역량보존과 철수를 주장하였다가 철직되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전사가 되어 용감하게 싸우며 갱생의 길을 걷는다. 장군님의 주체적인 갱도전법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뿐아니라 파오를 범한 자기를 질시할 대신 여전히 《사단장동지》로 불러주며 아껴주는 전사들속에서 식었던 그의 심장도 다시 달아오른다. 그는 피로써 병사의 량심을 되찾을 결심으로 땅크습격조에 자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그를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다시 사단장으로 내세워주시고 반타격전의 앞장에 세워주신다.

×

그밖에도 농민출신병사 배한봉, 학생출신의 너간호원 김선화... 누구를 꼽아도 생동한 개성으로 살아있다.



×

이러한 다양한 인간성격들은 인상적인 생활 세부속에서 두드러지게 개성화되면서 제가끔 위대한 장군님의 풍모를 각이한 측면에서 깊이있게 부각시켜줄 형상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수령의 형상이 추상적으로 격식화되지 않고 산 인간들의 생활속에서 생동하게 살아날수 있는것은 이처럼 주위인물들이 다채로운 성격적대조를 이루고 그려진데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 다장면구성에서의 집약화, 집중화

이야기줄거리를 다장면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엮어나가는것은 《성황당》식혁명연극의 기본요구이다.

작품은 총적으로 서장, 종장까지 포함하여 8개장으로 구성되었지만 매개 장은 다시 여러개의 장면으로 구성되고 장면과 장면의 련계가 생활을 련속적인 흐름으로 보여줄수 있게 엮여지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극적감흥이 동강남이 없이 지속되게 하는것과 함께 생활을 서사시적화쪽으로 보여준다고 하여 덜어놓고 장면수만 늘어잡다한 사건을 이것저것 벌려놓아 극구성을 산문화하는 편향을 극복하는것이다. 다장면구성일수록 한장면안에서도 이야기를 간결하게 꾸미고 생활을 고도로 집약화, 집중화하여야 한다.

사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웅건한 생활화쪽으로 구성되었다. 수령의 령도선과 나란히 전사들의 생활선이 전개되며 그것은 다시 먼 후방과 련결되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매 장면에만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알맹이만을 담고 그것을 여러면에서 심도있게 그림으로써 생활반영의 방대한 폭을 보장하면서도 극구성의 립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을수 있었다.

생활을 고도로 집중화, 집약화한 장면구성의 극치는 제 2 장 쏙새골과 제 4 장 최고사령부 집무실 장면이다. 비록 몇가지 생활세부들과 일화들을 그리였지만 이 장면들은 당시의 전반적인 정세와 전선형편, 후방의 실정, 인민군지휘관들과 전사들의 정신상태를 요약하여 보여주면서 이 모든 전국을 한손에 거머쥐시고 전쟁을 승리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있는것이다.

극의 흐름에는 비약이 많으나 우리는 생활의 흐름에서 공간을 느끼지 않는다.

### 극적인것과 융합된 서정적인것, 서사적인것

연극에 담을 생활이 따로 있고 순수한 극적방식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지상의 요구로 하고있는 《성황당》식혁명연극에서는 극적인것에 서정적인것, 서사적인것도 잘 결합침투시켜 최대한의 형상적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이 혁명연극에서는 극적방식을 위주로 하여 생활을 그리면서도 연극에서 음악이 노는 역할을 고려하여 서정적방식에 속하는 가사를 다양한 형식으로 주고있다.

2 장에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한없는 사랑을 받아안은 김씨일가의 행복한 심정을 펼쳐보여주는 방창가사와 5 장에서 의식없는 전사를 애타게 부르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경모의 정을 담은 방창가사, 그리고 6 장에서 병사들앞에서 부르는 은경의 독창가사들은 가장 극적이고 심리정서적인 대목들에서 자연스럽게 울려나오면서 극을 서정적으로 채색하고 장면의 형상적의미를 철학적으로 심화시켜줄뿐아니라 다장면구성에서의 극의 자연스러운 전환도 보장해주고있다.

또한 혁명연극에서는 서사적방식에 속하는 설화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작품에서 설화는 제 4 장의 끝에서 단 한번밖에 울리지 않지만 소낙비를 무릅쓰시고 준엄한 전진길을 떠나시는 령장의 모습을 항일의 피어린 혈전만리길과 결부시켜 웅심깊은 사색속에 우러러보게 한다.

× ×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가 거둔 커다란 사상예술적성과는 한두편의 글에서 다 밝혀낼수 없다. 주체문학의 보물고에 길이 간직될 이 대작의 창작경험은 두고두고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작품은 원썬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지켜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있는 한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줄것이며 영원한 충성과 효성의 한길로 힘차게 불려줄것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정론시

## 우리의 선언

윤영탁

나는 평범한 공민  
조선의 이름없는 한 문필가  
수수한 지방도시의 한 주택구역에  
내 생활의 거주지가 있다

허나 이 세상 판도에서는  
결코 평범하지만 많은  
나는 조선공산주의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우리 당 기발에서  
나는 붓을 틀어쥔 사람

바로 그 신분으로  
내 오늘 말하노라  
저물어가는 20세기  
황혼이 짙어가는 력사의 이 령마루에서  
세계를 향하여 말하노라

문노니 세상사람들이여  
우리 이 세기의 첫 새벽길 나설 때  
그 얼마나 많은 걸음들이  
붉은기를 따라 나섰더냐

씨비리 황야에서  
알프스의 계곡에서  
대륙의 그 어데서나...

여기 백두광야에서는  
조선의 의로운 선렬들이  
주체의 봉화높이  
압제의 짙은 구름장을 불사르며  
붉은기를 쳐들었다  
조선의 운명을 안아말아나섰다

우리 김일성동지의 전사들은  
얼음을 깨물며 풀뿌리를 씹으며  
피의 강하를 넘고 건너  
이 땅에 붉은기를 안아왔다

우리는 세계 사회주의의 한전선을 지켜

한가슴에 열한발의 탄알을 막아내며  
불바다속에서도 신념을 꺾지 않았고  
채터미우에서도 사회주의 대들보를 엮었다

모루우에 첩편을 다듬으며  
용광로를 안아세웠고  
허리띠를 조이며  
전야에 씨를 묻었다

수천년세월 인류의 가슴속에서  
정화되고 정화된 량심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진리  
바라고바라던 념원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에 있었기때문...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따라 일어서고  
남편이 쓰러지면  
안해가 다시 그자리를 메우며  
백이 열이 되고  
열이 하나가 되어도  
끝까지 쳐들었던 붉은기  
그렇게 안아온 우리의 세상

아, 심장이 있으면 대답해보라  
사회주의 기발을 내리운자들이  
붉은기를 지켜 순직하면서도  
꽃 한송이 못받고 간  
그 많은 유명무명의 렬사들앞에  
추모비는 세워주지 못할망정  
그리도 추악한 배신의 길 걷는단 말인가

다시 보라  
원썬들이 선웃음치며 쥐여준  
량심과 바꾼 그 몇푼의 금화있에  
그 어느 혁명가를 학살한  
원한의 선지피가 묻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라  
진리와 바꾼 향락의 금잔속에

어제날 교수대에 숨지면서도 굴함없던  
그 어느 투사의  
불뽕는 두눈이 쳐다보지 않는가를

누구나  
공산주의가 허물어졌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산주의가 조락되어간다는 사람들은

오, 나는 백두의 후손으로  
혁명의 기발아래 태어나 자란  
조선의 아들  
바로 그 목소리로  
저물어가는 20 세기 이 언덕에서  
《적기가》를 부르며 웨치노라  
세계를 향해 선언하노라

우리는 주체의 심장을 지닌  
조선공산주의자  
향도의 태양 **김정일**동지  
그 두리에 굳게 뭉쳐  
끝까지 따라갈 하나의 대오

하늘이 불타고  
지구가 녹아버린대도  
우리는 그 빛발로  
영원히 진리의 세기를 비칠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자주의 숨결을 빼고죽을  
조선공산주의자  
혁명의 불도가니속에서  
끝까지 타오를 하나의 불뭉치

바로 그 불길로  
세기의 어둠을 모조리 불사르고  
공산주의 붉은 지붕을

영원히 우리의 머리우에 얹을것이다!

아 공산주의  
이는 세계의 영원한 진리  
세기를 두고 인간이 바라던 념원  
목숨을 주고 생을 준 세상  
자본의 쇠사슬에 매였던 손에  
너나없이 나라의 큰 재부를  
다같이 유산으로 받아안은 세상

하나의 불티가 튀어  
수억만도의 화염으로 타번지듯이  
공산주의, 이는 지구우에  
영원한 열광을 뽐낼 세상  
하나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  
천만나락을 확산하듯이  
공산주의, 이는 지구우에  
인류의 영원한 화원을 안아올 세상

우리 수령님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성세우에  
주체의 대들보를 더 든든히 얹고  
일심단결의 장엄한 발걸음 높이  
우리는 온 세계앞에  
력사의 이 진리를 더더욱 확증하리라

내 공산주의자의 의지로  
공산주의를 위해 인류가 흘린  
그 진하디진한 선혈에  
내 감히 심장의 붓을 적서  
내 정의의 기폭우에 기록하노니

력사의 아득한 창파우에  
해일같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세기들은  
끝까지 영원히  
우리 공산주의 세기들로 파도치리라!

## 가사

# 못잊습니다

(총련) 김광숙

배움의 여섯해 보람찬 나날  
조선의 꽃으로 키워주셨네  
우리 말 우리 글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그 사랑 못잊습니다

소년단 입단식 즐거운 날엔  
맨먼저 축하를 보내주셨네

야영의 바다길도 함께 가시던  
선생님의 그 사랑 못잊습니다

그 사랑 안고서 넓어진 가슴  
그 손길 아래서 자라난 마음  
그결을 떠나서 어디에 가도  
선생님의 그 사랑 못잊습니다

## 한마음 한 모습으로

박호일

△때 현대  
△곳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건설장  
△나오는 사람들  
**박두칠** 전쟁참가자  
**김보비** 전쟁참가자  
**허 남** 청년돌격대장  
**안행순** 두칠의 처  
**장만식** 보비의 령감  
**철 남** 보비의 손자(인민군중사)  
**목 란** 두칠의 손녀(인민군중사)  
**영 달** 청년돌격대 비편제 영접지도원  
**항일투사** 조선인민군 대장  
**려단장** 건설장 돌격대 지휘관  
**기 라** 조각가, 텔레비죤기자, 돌격대원들, 군인들, 지원자들 다수

### 제 1 장

△ 무대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건설장 현장지휘부 앞

△ 중앙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속에 막이 열리면 푸름푸름 동터오는 이른 아침이다. 호젓한 건설장 한쪽 유측으로 작업복차림의 김보비가 무슨 편지인가를 읽으며 걸어온다.

**보비** (큰소리로) 사랑하는 김보비동무에게... 에그머니나, 환갑이 지난 령감이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야? ... 새빠지게...

△ 작업복을 입은 박두칠이가 들어오다가 멈춰선다.

**보비** (계속 읽는다.) 당신은 집에 있는 이 령감을 영 잊은게 아니요? 빨리 돌아와 나하구 교대합시다. 나라의 성스러운 기념탑이 건설되는데 이 장만식이도 흠 한삽이라도 떠야 할게 아니요. 당신이 정 내려오지 않으면 건설장지휘부에 사망전보라도 쳐서 소동을 일으킬줄 아오? 흐흐흐... 원 령감두...

**두칠** (폭소를 터뜨린다.) 하하하...

**보비** (깜짝 놀라 돌아보며) 화대 두칠동무, 다 들었수?

**두칠** 다 들었수다. 아무래도 봉산 보비동문 그 령감 성화에 내려가야 할것 같수다.

**보비** 내가 왜 내려가요? 이게 다 우리 령감이 제가 여기 와서 일하고싶으니까 오그랑수를 쓰는거야요.

**두칠** 하긴 나도 전쟁때 함께 싸운 전우가 훌쩍 내려가면 섭섭하지요.

**보비** 두칠동무, 우리 이 전승기념탑이 완공되는 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두칠** 아무렴... 그 약속을 지키자면 내려가선 안되지요...

**보비** 그렇구 말구요.

△ 휴대용 확성기를 멘 주영달 나온다.

**영달** 화대아버님과 봉산어머님, 또 밤을 꿰다 먼서요? (두칠의 손을 만지며) 아이구, 손에 물집까지 생겼구만요. 이거 정말 감동됩니다! (눈굽을 훔친다.)

**두칠,보비** 비편제 영접지도원, 왜 벌써 나왔나?

**영달** 비편제? ... 하, 내 비록 직무는 비편제지만 이 건설장의 술한 지원자들이 다 내수하에서 움직인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도 나한테 잘 보이는데 좋아요.

**두칠,보비** 다, 다시는 그렇게 안부르겠네, 절대루...

△ 세사람 즐겁게 웃는다.

△ 보통강반에 아침노을이 피여오른다.

△ 《사회주의 지키세》의 노래를 부르며 공화국기발을 든 청년돌격대원들이 씩씩하게 렬을 지어 건설장으로 걸어간다.

**영달** 야! 벅찬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

△ 두칠이와 보비도 돌격대원들을 따라나간다.

△ 술한 지원자들이 지휘부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든다.

**영달** (언덕우에 올라선다.) 지원자여러분! 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건설지휘부 직속 청년돌격대 영접지도원으로서 이 건설장에 흠 한삽이라도 바치고저 찾아오신 전국 각지의 지원자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동됩니다. 감동됩니다. 가만 평천구역 지원자들이 어데 있는가요?

**녀인들** 예, 우립니다.

**영달** 평천구역지원자들은 끝재하차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녀인들** 알겠어요. (나간다.)

**영달** 그다음 시 공로자협회지원자들은 돌아가 공전투장으로 가주시시오.

**공로자들** 알겠습니다. (나간다.)

**처녀 1** 영접지도원동지, 우린 어떻게 하랍니까?

**영달** 동무넌 어디요?

**처녀들** 방직공장입니다.

**영달** 음... 3 중대로 가오. 총각중대에 처녀들을 보내주면 모두 입이 굴착기바가지처럼 버그려질거요.

**처녀들** 어마나! ... (꺅꺅 웃으며 달려나간다.)

**청년들** 우린 어디로 가랍니까?

**영달** 동무넌 또 어디요?

**청년 1** 강철공장입니다.

**청년 2** 요그르트공장입니다.

**처녀 2** 식료공장입니다.

**영달** 야! ... 모두 끝끝하구만. 조각가동무가 람이 나 하겠소. 조각가동무! 조각! 아이구 목이야...

**처녀조각가** (달려나오며) 예, 여기 있습니다.

**영달** 동무, 새벽부터 날 줄줄 따라다니며 성화를 먹이더니 어델 갔댔소? 이 영접지도원 편도선이 이젠 다 마비됐소.

**조각가** 정말 미안해요.

**영달** (청년들에게) 동무넌 이 조각가동무를 따라가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줄거요.

**청년들** 조각가를? ... 모를 일이다.

**조각가** 자, 어서 잡시다.

△ 청년들이 조각가를 따라나간다.

△ 허남이 참모들을 주련이 달고 나온다.

**허남** 이제부터 우리 청년돌격대의 모든 력량을 승리군상 대돌올리는 전투에 총 집중해야겠소. 이 대돌을 자기 기일에 올리는가 못올리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요. 1 중대장동무! 동무네 연공중댄 다 준비됐소?

**1 중대장** 돌격대장동지! 우리 중댄 언제나 준비되어있습니다.

**허남** 시공참모동무! 대돌올리는 시공설계를 다시 했소?

**시공참모** 아직 채 끝내지 못했습니다.

**허남** 수백톤짜리 대돌을 올리는 큰 전투인것만큼 기존공법에만 매달리지 말구 광범한 대중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새 공법을 찾아내야겠소. 나도 연구해보겠소.

**시공참모** 알았습니다.

**허남** 후방참모동무,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후방사업은 문제없겠지?

**후방참모** 걱정마십시오. 두발고기 못먹는 사람에게는 네발고기가 준비되어있구 네발고기 못먹는 사람에게는 두발고기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온 나라의 지원의 마음이 여기로 달려오니 이 후방참모의 창고가 모자랄지경입니다.

**허남** 좋소, 그럼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봅시다!

**참모들** 알았습니다.

△ 참모들 나간다.

**허남** (주머니에서 전보용지를 꺼내보며) 령감 급병이라... 이거 야단났군.

△ 영달이 달려나온다.

**영달** 돌격대장동지!

**허남** 아 영달동무, 마침 잘 만났소.

**영달** (제 기본에 떠서) 대장동지, 전쟁로병들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그 봉산어머님과 화대아버님 있지 않습니까? 어제밤을 또 밝혔습니다. 난 자꾸 감동돼서... (눈을 슴벅인다.)

**허남** 이사람 또 감동됐구만! 이 전보를 좀 보오. (전보를 준다.)

**영달** (읽는다.) 김보비 앞. 령감급병 급래요함... 아이쿠 이거 큰일났구나.

**허남** 이 김보비가 그 봉산에서 오신 어머니가 아니요?

**영달** 옳습니다.

허남 여보 영달동무! 뭐 좀 생각되는게 없소?  
영달 뭘 말입니까?

허남 전쟁로병들이 여기 곁에 와 있으니 어드래?

영달 예, 마음이 든든합니다.

허남 나두 이때까지 그렇게만 생각해왔소. 현대 그들을 야길줄 몰랐거든. 그들이 세운 위훈을 빛내주자구 이 탑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꼭 일을 시켜야 되겠소?

영달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허남 그러니 이제부터 동무의 임무는...

영달 몽땅 내려보내는겁니다.

허남 아니,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설복해서 내려보내오. 우선 당장 김보비어머니부터 내려보내오.

영달 알겠습니다.

허남 (나가다가) 동무 또 몇마디 안팎에 감동돼가지구 이 중요한 사업을 떨쩔하게 했다간 큰일날줄 아오. (나간다.)

영달 아 넘려마십시오. (나가려는데)

△ 맞들이를 든 두철, 보비 나온다.

영달 아, 봉산어머니, 나 좀 봅시다.

보비 왜 그러나?

영달 이거 야단났구만요. 집에서 전보가 왔구만요. (전보를 준다.)

보비 전보?... (받아보고) 아이쿠나, 이 령감이 끝내...

영달 어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보비 아니, 이사람, 이 전본 사실...

영달 어머니두 참... 집에서 령감님이 그렇게 앓고있는데 여기와서 일을 하시다니요.

보비 아니, 저...

영달 여기 일은 그저 우리 새 세대들에게 맡기고 어서 내려가십시오.

보비 아이구, 이사람! ...

두철 지도원! 나두 이 전보의 내막을 좀 아는데... 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처리하면 안되지 뭐...

영달 아버님은 웬 참견입니까?

두철 참견 안하게 됐나? 함께 일하던 전우가 위험에 처했는데... 거 사정 좀 봐주라구.

영달 예, 좋습니다. 그럼 두분 다 내려가십시오.

두철 뭐?... 뭐라구?... 전보는 저 로친한테 온 건데 왜 나까지 피해를 주는건가? 엉?... 왜?

영달 그러게 아버님은 상관하지 말란 말입니다.

두철 상, 상관 안하겠네... 에에, 큰일날뻔했군.

영달 자, 그럼 어머니 어서 떠나십시오. 이견 대장동무의 지십니다.

보비 야 사정 좀 와달라구.

영달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상소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영달 달려나간다.

보비 이사람! 지도원! ... 제발... 아이고 두철 동무, 동무가 가서 말좀 해달라요.

두철 그러다가 나까지 또 피해를 불러구...

보비 그럼 동문 강건너 볼보듯하겠다는거예요?

두철 글썄 나로선 어쩔수 없다니까.

보비 야...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두 변질되는구나.

두철 변질?... 내가 무슨 기한 지난 리터맥주라구 변질된단말이요?

보비 사십년전 돌박산고지전투때 우린 셋이 남아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기만 살겠단구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두철 거야 죄다 사실이지.

보비 그리구 이 탑이 완공되는 날 둘이 함께 중요한 일을 하나 하자구 약속을 굳게 하구서두...

두철 그것도 죄다 사실이지...

보비 그런데 이제와선 저만 남게 됐다고 그 약속두 헌신짝처럼 차버려요? 으흑! ... (얼굴을 싸진다.)

두철 차 이거... 보비동무... (팔을 잡는다.)

보비 (뿌리치며) 이제부터 우린 전우관계가 아니예요.

두철 진정하오. 보비동무...

보비 비켜요. 일메터 밖으로...

두철 가만! 그 전보가 보비동무한테 온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보비 (울먹이며) 전보엔 분명... 김보비라구 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한단말이예요.

두철 차... 이 넓은 건설장에 보비라는 이름을 가진 녀자가 또 있을수도 있지 않소.

보비 (벌떡 일어선다.) 그렇지! ... 이젠 됐다. 가자요. (나가다가) 가만! ... 방금전까지 내 전보라구 해놓군 이제와서 뒤집는다는게 말이 되우?

두철 그제 또 그렇구만... 야! 의리를 지키는게 험치 않구나! (생각을 굴리다가 무릎을 치며) 풀렸다! 보비동무, 뻘소. 방책이 하나 있소.

보비 방책이요? 어서 말해요.

두철 현대 이견 어려운 일이 돼놔서...

보비 우리가 전쟁때 어려운 고비를 한두번 겪었나요. 어서 말해요?

**두칠** 하지만 이건 웬만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

**보비** 에그 답답하다... 숙제뚜꺼먹은 아이처럼 뭘 자꾸 갑자르는데?

**두칠** 보비동무, 주어진 주객관적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부부로 행동할것을 요구하고 있소.

**보비** 에그머니나, 부부로요?

**두칠** 그집 령감이 앓는다는 전보가 말썽인 조건에서 내가 령감으로 척 나서면 만사가 다 풀릴거란 말이요.

**보비** 아유... 어쩌면 두칠동무머린 자전거베 아령처럼 뱅뱅 잘 돌아갈까? 호호호...

**두칠** 하하하...

**보비** (갑자기 새침해지며) 아니,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빈집에서 돼지물이나 주면서... 애오라지 나만 눈이 까매 기다리는 우리 장만식동무! 아 그이가 이걸 알면 난...

**두칠** 흥! 그럼 맘때루 하슈... 난 그래두 절 생각해서 여러가지 방책을 내놓았는데... 잘 땡겨가슈. (나가려다.)

**보비** 아이고 두칠동무... 그럼 당분간 가짜부부가 되자는 동무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요.

**두칠** 진작 그랬어야지...

**보비** 빨리 영달지도원한테 갑시다.

**두칠** 그 지도원보다 돌격대장이 기분이예요.

**보비** 아, 허남대장이야 영달지도원처럼 쉽게 감동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넘긴다구 그래요?

**두칠** 감동을 시켜야지... 보비동무, 우리 작년 열병식때 입었던 전시군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보비** 그게 좋겠어요. 감동두 시킬겸.

**두칠** 본때두 보일겸! ... 자, 날따랐!

△ 둘이 급히 나간다.

△ 청년들 한패가 달려나오고 뒤따라 조각가가 달려나온다.

**조각가** (청년들의 앞을 막으며) 야... 동무들, 제발 달아나지 마세요. 예?...

**청년 2** 동무! 우리가 뭐 이런 조각모델이나 서자고 여기 온줄 아요? 그런 한가한 일은 낚시군들이나 데려다가 시키란 말이요. 아니면 유치원아이들을 열려서 세우던지... 콩사탕이랑 주면서 ...

**조각가** 여기엔 끝끝한 청년들이 있어야 해요.

**청년 1** 흥! 동무가 그런다고 우리가 설줄 아오?

**조각가**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청년 1** 비편제지도원한테 가서 비로력을 받으란 말이요. 괜히 웅근 로력보구 못살게 굴지 말구...여, 동무들 가자!

**청년들** 가자! ... (달아난다.)

**조각가** 아이... 동무들... 동무들! ...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른다.)

△ 허남이가 도면을 보며 나오다가 걸음을 멈춘다.

**허남** 아니? 조각가동무 웬일입니까?

**조각가** 돌격대장동무, 이거 정말 못해먹겠습니다. 글썽 조각모델로 받은 청년들이 몽땅 도주했습니다.

**허남** 뭐요?... 그제 어느 공장 친구들이요?

**조각가** 강철공장하구 요그르트공장 청년들 갑습니다.

**허남** 알겠소. 내 영접지도원한테 말해서 그 동무들을 다시 보내주겠소.

**조각가** 그럼 믿구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허남** 예, 그렇게 하오.

△ 조각가 나간다.

△ 허남이 도면을 보는데 영달이 나온다.

**영달** 대장동지! ...

**허남** 여보 영달동무! 동문 도대체 뭘하는 사람이요?

**영달** 예? ...

**허남** 조각모델로 준 청년들이 다 도망쳤단 말이요.

**영달** 아니?... 또 도주했습니까?

**허남** 빨리 그 동무들을 데려다가 붙이도록 하오.

**영달** 알겠습니다.

**허남** 그리구 내가 준 임무를 수행했소? 봉산 어머니를 내려보내는 일말이요.

**영달** 아... 내 그 어머니를 설복시키느라고 땀깨나 뿔었습니다. 처음에는 못가겠다고 땅땅 으르더니 나의 진지한 해설과 완강한 설복앞에 끝내는 머리를 숙이더군요. 아마 지금쯤 기차를 탔을겁니다.

**허남** 여보 정말 수고했소. 가보오.

**영달** 예... 그럼 전...

△ 영달이 좋아서 달려나간다.

△ 군복입은 두칠이와 보비가 발을 구르며 정보로 걸어나온다.

**두칠** 차렷! 병사-셋! 돌격대장동지! 하사 박 두칠외 일명 만날수 있습니까?

**허남**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두칠** 어험! ...

**허남** 갑자기 군복까지 입으시구? ...

**두칠** 우린 전쟁참가자들이니까... 어험!

**허남** 예, 전쟁때 군복을 입은걸 보니...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두칠** 생각이 깊어지시?

**허남** 예, 깊어집니다.

**두칠** 글썸 그러면 그럴겠지. (보비에게 눈짓한다.)

**보비** 이보라구 돌격대장! 사실 난 말이야.

**허남** 아니?... 김보비어머니, 왜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까?

**보비** 글썸 그 문제 때문에 찾아왔단니까. 이 전본 가짜 아니, 나한테 온 전보가 아니야. (전보를 준다.)

**허남** 아니라니요. 이 전보엔 분명 김보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비** 이 건설장에 또 다른 김보비가 있는 모양이야. 이걸 우리 령감이 다 증명하네, 그렇지? 령감!

**두칠** 고름, 우리 집엔 이 로친네하구 나하구 들뿐이어서 전보칠 사람이 없다네. 그렇지? 로친!

**보비** 고름요.

**허남** (놀라며) 그러니 두분은 부부간이었습니까?

**두칠,보비** 고름! 우린... 부부간일세.

**허남** 하... 그래요! ...

**보비**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속에서 사랑이 맺어져 어언 40년! ... 오늘까지 하루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는 하사부부요.

**허남** 아, 그랬었구만요, 그럼 이 전보는 다른 사람한테 온건가?

**보비** 고름! ... 그러니 령감 혼자 남겨놓고 나만 내려보내면 이거야 강제리혼두 아니구 생리별 당하는게 아닌가?

**두칠** 옳네. 난 우리 로친이 옆에 없으면 하루도 못사는 사람이야.

**허남** 하지만 두분은 어쨌든 내려가셔야 할분들입니다.

**두칠** 뭐? ... 뭐라구? ...

**허남** 오늘 아침 지휘부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또 내가 영접지도원한테 그렇게 지시를 주었습니다. 두분 다 내려가십시오. (나가려다.)

**두칠** (막아서며) 돌격대장! 정 이러긴가?

**허남** 난 바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두칠** 뭐가 어째? 야, 이녀석아! ... (주먹을 쳐 들고 달려든다.)

**허남** (날째게 피하며)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보비** (두칠을 잡으며) 아이고, 돌격대장앞에서 왜 이러슈?

**두칠** (보비를 뿌리치며) 대장이면 다야? 어른들이 말하면 줌 듣는멋두 있어야지 뭐가 어찌구 어째?

**허남** (어이없어 입만 다신다.)

**두칠** 그래 자네 눈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돼지물이나 주구 손자들 엉덩짝이나 두드려주는게 우리 전쟁로병들로 보이는가? 응?

**보비** 제말 진정하라고. 우리의 뒤를 이은 새세대가 말 한마디 잘못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구 돌박산전투때 육박전 나갈 때처럼 흥분해서 이래요? 예?...

**두칠** 저 사람이 돌박산이나 육박전을 알게 뭐요?

**허남**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압니다.

**두칠** 알긴 뭘 알아?

**허남** 압니다.

**두칠** 몰라!

**허남** 안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보비** 아이구, 안다면 안다구 칩시다요.

**두칠** 진짜로 안다면 그러지 않아.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싸웠소? 응?...

**보비** (눈굽을 훔치며)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두 그때 생각을 하문...

△ 《결전의 길로》가 은은히 울린다.

**두칠** 열두번째 적의 공격을 물리친 돌박산 전 호숙에는 단 세명의 전사들만이 남았다. 한사람은 분대장 허순필동무였고...

**허남** (놀란다.)

**두칠** 또 한사람은 고지에 식사를 가지고 올라왔던 취사원, 다음 한사람은 부상자 후송으로 올라왔던 나어린 처녀간호원이었지...

**보비** 놈들은 또 이리때처럼 덤벼드는데 분대장 허순필동무가 끝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

**두칠** 그러자 취사원이 사수가 되고 간호원이 부사수가 되어 결사전을 벌렸다. 그런데 탄알마저 떨어졌다. 바로 이때, 쓰러졌던 분대장이 거인처럼 일어섰다.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이 살아있는 한 이 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 있을것입니다...》 하고는 수류탄뭉음을 안고 놈들의 무리속으로 뛰어들었다.

아, 지금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허남** (울먹이며) 그 취사원의 이름은 박두칠이었구 간호원의 이름은 김보비였지요...

**두칠,보비** 어영? ... 자네가 그걸 어떻게? ...

**허남** 그 허순필분대장이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두칠** 뭐라구? ...

**보비** 그럼 네가 허순필분대장의 아들이란 말이나?

**허남** 그렇습니다.

**보비**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다구... 허남아!

**허남** 어머니! ...

**두칠** 허남아! ...

**허남** 아버지! ...

△ 뜨겁게 포옹한다.

**두칠** (갑자기 허남이를 밀쳐버리며) 예끼! 이녀석! ...

**허남** 아니 왜 또 이러십니까?

**두칠** 허순필이 아들이라는 녀석이 우릴 쫓아내?

**보비** 그래서야 안되지.

**두칠** 한개중대에서 세명이 살아남았다가 이젠 또 두명으로 줄었는데 희생된 전우들



이 우릴 보구 뭐라구 하겠니?... 그런데 뭐 내려가라?...

**보비** 우리가 젊은것들한테 이런 팔시를 받자구 피를 바쳤나요, 감시다! 가자요.

**두칠** 아! ... 허순필이... 자넨 똑똑하기로 온 전선에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저런 부실한걸 남겼나 응?... (가슴을 두드리며 나간다.)

**허남** 셋! 서십시오. (달려가 붙잡는다.)

**두칠** 나라, 우린 간다.

**보비** 그래요, 우린 허순필이 아들한테 쫓겨간 다.

**허남** 못갑니다.

**두칠** 이젠 또 못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간다.

**보비** 기어코 간다.

**허남** 기어코 못갑니다.

**두칠** 그게 본심인가?

**허남** 진심입니다.

**두칠** 그렇다면 말쑥 하자. 비록 우리가 젊은 이들처럼 일을 제끼지 못하는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린 이 건설장을 한시도 뜰수 없는 사람들이야.

**보비** 생각 좀 해보라구, 지금 다른 나라들에선 전쟁에서 피를 흘린 로병들이 거지신세가 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로병들을 이렇게 내세워주고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야 옳겠나.

**허남** 예... 잘 알겠습니다.

**보비** 그러니 이젠 내려가지 않아도 되지?

**허남** 그렇게 하십시오.

**두칠,보비** 글썄 그러면 그렇게지...

△ 이때 영달이 들어온다.

**영달** 아니? 웬 군복을 이렇게?... 아, 무슨 씨클을 하려구 입으셨나요?

**보비** 씨클?...

**영달** 아니?... 봉산어머니, 왜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보비** 우린 승인을 다 받았네.

**영달** 승인이요?

**허남** 영달동무, 이분들의 생활상 편의를 잘 돌봐드리오.

**영달** 생활상 편의요? 방금전까지 내려보내라고 하더니...

**허남** (전보를 주며) 이 어머니는 우리가 찾는 그 김보비가 아니요.

**영달** 예? ...

**허남** 이분들은 부부간이요.

**영달** 부부간이요?

**허남** 그렇소.

**영달** (땀해 보다가) 대장동지! 혹시 대장동지가 나처럼 감동된게 아닙니까? 이분들은 부부간이 아닙니다.

**허남** 무슨 소릴 하오. 동무가 이분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겠소.

**영달** 차 이거 정말 이상하다? 분명 새빨간 거짓말인데... 아니 여기 처음 올라왔을 때 두분이 나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장부책

을 펼치며) 어머님은 봉산에서 오셨구, 아버님은 화대에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비** 거야 그랬지, 화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구...

**두칠** 고롬! ...

**보비** 봉산엔 내 본가집이 있다구 그랬지.

**두칠** 고롬!

**영달** 어디 그렇게 말했습니까?

**두칠,보비** 그렇게 말했네

**영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칠,보비** 말했네.

**허남** 영달동무, 무슨 말이 그리 많소? 이분들의 신원은 내가 보증하오.

**영달** 보증이요?

**허남** 두분은 돌아가 보십시오.

**두칠,보비** 고맙네, 그럼 우린...

△ 두칠 보비 너무좋아 활개치며 나간다.

**영달** 나 원 무슨 소린지... 그럼 그 전본 도대체 누구한테 온거란 말입니까?

**허남** 이 큰 건설장에 김보비라는 이름이 딱 한명이겠소? 빨리 전보의 주인을 찾아서 내려보내오.

△ 허남 나간다.

**영달** (머리를 기웃거리며) 모를 일인데... 10분전까지 남남이던 사람들이 10분후에 부부로 둔갑을 했다... 아무래도 좀 캐봐야겠어...

△ 영달이 달려나갈 때 간막이 내린다.

△ 간막앞으로 두칠이와 보비가 나온다.

**두칠** 허순필이!... 자넨 정말 똑똑한 녀석을 남겼네.

**보비** 그래요. 어쩌면 우리 새 세대들은 전세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꼭 닮았을가요.

**두칠** 보비동무, 이제부터 매사에 심중해야 하오. 우리가 부부로 가장하고 여기에 남은 이상 가짜라는게 뻥짜나면 큰일 날수 있소.

**보비** 명심하겠어요.

△ 이때 처녀들이 웃으며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두칠** (급히 나가며) 아 여보, 빨리 따라오라는데 뭘 그리 꾸물거리오.

**보비** 여보 령감... 같이 가자구요... (뒤따라 나간다.)

## 제 2 장

△ 무대 건설장 돌격대 중대부앞  
대형전망도와 속보판이 놓여있다.

△ 막이 열리면 남녀 휴가군인들이 달려나온다.

군인 1 야, 대단하구나! ...

군인들 멋이 있는데...

철남 오, 왔노라 건설장이여!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달려오는 여  
기 선렬들의 모습이 탑으로 솟아나는 이  
곳 총천 병사 우리의 마음도 합치고싶어  
고향으로의 휴가길을 돌려세웠나니 나도,  
성일이도, 그리고 목란동무도...

군인들 (웃음과 박수)

군인 1 여, 동무들, 이거 좀 보라. (속보제목을  
읽는다.) 잠을 모르는 하사부부!

모두 하사부부?

녀군인 1 어마나? 인민군대 하사가 부부생활  
을 하다니? ...

녀군인들 호호호...

남군인 1 차 웃지만 말구 밑의 내용을 읽어보  
란 말이요. 전쟁로병들인 박두칠, 김보비  
하사부부! 련일 돌가공에서 혁신!

철남 김보비?... 이젠 우리 할머니 이름인데...

목란 박두칠?... 어마나 이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인데...

해군병사 여, 동무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부간이라면 동무넌 형제간이 되어야  
할게 아니요?

목란 싱거운소리 그만두라요. 우리 할아버지  
한텐 안행순이라는 우리 할머니가 있어  
요.

철남 우리 할머니한텐 장만식이라는 내 할아  
버지가 있소.

△ 영달이 달려나온다.

영달 이거 기다리게 해서 안됐소. 자 우리가  
정해놓은 병실로 빨리 갑시다!

군인들 알았습니다!

철남 좌로 돌앗! 목표 병실, 앞으로 갓!

△ 군인들 씩씩하게 걸어나가고 영달이 그뒤  
로 따라나가기려는데 조각가가 모델인원을  
데리고 달려나온다.

조각가 아아! 영접지도원동지! ...

영달 야 이거 또 잡혔구만, 동무 모델인원들  
을 다시 보내주었는데 왜 또 성화요, 성  
화가...

조각가 이 동무들 말입니다. 죽어두 모델을  
못서겠다는데 이거 야단아닙니까?

영달 뭐요? 못서겠다?... 누구요? 우리 사업조  
직에 반항하는 동무가 누군가 말이요? 씩  
나서지 못하겠소?

청년 2 (한발을 꿇 구르며 나선다.) 접니다. 그  
래 어쩔렘니까?

영달 동문 누구요?

청년 2 요그르트공장 에스키모 및 까까오작업  
반 포장공 맹병도입니다.

영달 맹병도? ...

청년 2 그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준다고 하  
더니 기껏 맡겨준다는게 하루종일 떡 뽕  
치고 서있는 모델입니까? 그래 우리가 저  
논판의 허수아빔니까? 예?... 이거야 답  
답하구 안타까워서 어디...

처녀 2 (한걸음 나서며) 옳아요, 나두 이 동무  
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영달 동문 또 누구요?

처녀 2 식료공장 된장직장 고추장작업반 왕두  
실이에요.

영달 왕두실?

처녀 2 우리가 뭐 일백화점 상품진열장에 서  
있는 대형인형인가요? 인형인가 말이에  
요.

영달 음... 더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는건데...

청년들 그렇습니다.

영달 동무네 말에 감동이 되오.

조각가 아아... 감동되면 어떡합니까?

영달 어영?... 내가 왜 또 감동되니?... 안돼!  
동무네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수 없소.

청년 2 좋습니다. 여 동무들, 우리 가자. 주공  
전선인 대돌전투장으로 가자구.

청년들 가자우...

영달 아아, 동무들, 동무들...

△ 이때 아까부터 보비와 함께 들어와 서있던  
두칠 짹 소리친다.

두칠 뭐가 어찌구 어찌? 허수아비? 사람인형?  
... 어느 녀석이야?

영달 저 똥똥한 동무가 그랬습니다.

두칠 씩 나서지 못할가!

청년 2 납니다. 아바인 도대체 누구게 짹 짹 소  
리치면서 이럽니까?

영달 동무 동무! 이분이 뉘신지 알기나 하구  
그래?

온 건설장에 하사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박두칠아바이란 말이요.

청년들 아니, 그럼 저 속보에 난...

두칠 어험! ...

청년 2 하사아바이! 이거 로병두 몰라보구 버  
릇없이 군걸 용서하십시오.

보비 동무네말이야, 이 일을 나무라면 안돼!

처녀 2 할머니 또 누구예요?

보비 누군누구야, 하사 김보비지!

두칠 보비동무! 내 아무래도 이 녀석들에게  
말좀 해야겠소.

보비 알았수다, 일렬횡대로 모였! ... 나란히!  
차렷! ... 두칠동무, 이 녀석들을 정렬시  
켰수다.

두칠 내 지금 시간이 매우 바쁜 사람이지만  
말좀하자. 그래 이 탑을 왜 세우지?

**청년 2** 옛!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길이 전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두칠** 똑똑한 녀석이로군. 이 기념탑 총 건설  
부지면적이 얼마더라?

**청년 2** 옛 건평 한 열정보쯤 됩니다.

**두칠** 틀렸어. 열다섯정보야. 그리구 우리 나  
라에 이런 탑이 어데어데 또 있드라?

**청년 1** 옛,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이 빛나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이 있습니다.

**청년 2**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삼지연대기  
념비.

**청년 3** 왕재산대기념비와 만수대동상 대형군  
상비.

**청년 4** 아 서해갑문! ... 서해갑문 대형문주에  
도 영웅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칠** 옳거니!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선렬들의 기념비가  
우리 나라처럼 많은 나라는 없지... 이자  
렬사릉얘기도 나왔지만 대성산에 려사릉  
을 세울 때에두 자, 어떤 투사들은 사진  
도 없지, 어떤 투사들은 생일도 모르지...  
하지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투  
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대  
성산마루에 되살려 주셨단 말일세.

그런데 오늘은 또 이 전승기념탑건설  
을 몸소 발기하시고 술한 군상모형들을  
일일이 다듬어주셨단 말일세.

여기에 1211 고지 영웅전사들의 모습  
은 왜 보이지 않는가! 월미도와 대전, 전  
선과 후방, 하늘과 바다의 그 모든 전사  
들이 다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후  
대들에게 앞선 세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되살려주셨단 말일세... (목이 맨다.)

**청년들** (자책에 잠겨 머리를 숙인다.)

**두칠** 이 높이신 뜻을 받드는 일에 무슨 중한  
일이 있구 덜 중한 일이 따로 있겠나,  
영?...

**영달** (눈굽을 훔치며) 아버님 말씀을 듣구보  
니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 동무네 똑똑  
히 들으라!

**청년 2** 아바이,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서  
졌습니다. 하루종일이 아니라 일년동안  
이라도 서겠습니다.

**청년들** 서겠습니다.

**두칠** 암! ... 응당 그래야지, 조각가동무, 이  
동무들이 말은게 어느 군상 모델이던가?

**조각가** 예 전투부주제 일곱번째군상-후방인  
민들의 전선원호편입니다.

**두칠** 아주 중요한 군상이구만. 모두 한번 자  
기 맡은 자세를 잡아보라구.

△ 청년들 자세를 잡으며 군상을 짓는다.

**두칠** 틀렸어... 몇만 부리면서 감정이 없거든.  
(청년 2 에게)자넨 왜 몸매가 그 모양인  
가?

**청년 2**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때부터 몸매가  
대체로 이러루합니다.

**보비** 아유... 이 체네 모양도 왜 이래?

**청년 2** 저 84.2 키로가 돼서...

**두칠** 조각가동무! 이 두사람은 안되겠소. 전  
쟁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  
단 말이요.

**조각가** 일없습니다. 조각할 때 그저 폭폭 깎  
아버리면 됩니다.

**두칠** 글쎄 그렇다면 몰라도... 자, 그럼 결전  
장으로 나가는 내 시범동작을 좀 보라구,  
자! ... (동작을 잡는데 그 꼴이 가관이  
다.)

**보비** 자, 내 동작두 좀 보라구, 자! ... (역시  
꼴불견이다.)

**두칠** 자기 위치로!

△ 모두 군상을 잡는다.

**조각가** 아주 좋습니다.

**영달** 아! ... 이건 정말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화폭이구나!

△ 군인들이 달려나와 군상을 보며 감탄한다.

**목란** (군상속의 두칠을 발견하고) 아니?... 할  
아버지?... 할아버지! ...

**두칠** 어영? 목란아! ... (왈칵 달려나와 목란이  
를 껴안았다가 다시 체자리에 들어서며)  
난 지금 군상이다. 헌데 여길 어떻게 왔  
니?

**목란** 우린 표창휴가기간을 여기서 보내자고  
왔어요.

**두칠** (그냥 부동자세로) 장하다 장해!

**철남** (군상속의 보비를 찬찬히 보다가) 할머  
니! ...

**보비** 이게 누구냐? 철남아! (와락 달려나가  
껴안는다.) 내 손주야!

**두칠** 보비동무! ... 이게 무슨 일이요?

**보비** (급히 제 동작을 다시 잡으며) 너두 휴가  
를 바치자고 왔니?

**철남** 예.

**보비** (부동자세로) 장하다! 어쩌면 우리하구  
똑같은 생각을 했니?

**영달** (깜짝 놀라서 예리한 눈초리로 그들을  
살핀다.)

**조각가** 호호호... 좀 쉽시다!

△ 철남이와 목란이 각각 두칠이와 보비의 품  
에 안긴다.

**철남**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무고하시나요?

**보비** 할아버지?... (영달의 눈치를 살피며) 그 애긴 후에 천천히 하자꾸나.  
**목란** 할아버지! ... 할머니랑 다 편안하시나요?  
**두칠** (영달의 눈치를 살피며) 할머니애긴 후에 따로하자.  
**영달** (귀를 도사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  
**철남** 할머니, 속보에 난 김보비란분이 혹시 할머니가 아니예요?  
**보비** (얼결에) 응, 그게 바로 나야! ... 아니 내가 아니야.  
**목란** 저 속보의 박두칠이라는분이 할아버지가 아니나요?  
**두칠** 응, 그게 바로... 내가 아니다. (바빠서 어쩔줄 모른다.)

△ 밖에서 소리- 모엿!

**보비** 그래 어디서 일하느냐?  
**철남** 승리다리 건설장에서 일해요.  
**보비** 어서 가봐라!  
**두칠** 내 인차 찾아가가!

△ 철남, 목란 머리를 기웃거리며 나간다.  
 △ 두칠, 보비 영달의 눈치를 슬슬 살피며 나간다.

**영달** 드디어 단서를 잡았다. 뭐 ? 하사부부라고? 하하...

△ 여기로 허남이 급히 나온다.

**허남** 여보 영달동무, 어떻게 됐소? 아직도 그 전보의 주인을 찾지 못했소?

**영달** 찾았습니다. 헤해...

**허남** 누구요?

**영달** 그 김보비어머님니다. 그들은 부부간이 아닙니다. 이건 보름날 보름밤에 보름달을 보듯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허남** 뭐요?... 이 사람이 이거 찾으라는 사람은 찾지 않고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만 하는거요?

**영달** 야... 이건 죄다 사실입니다.

**허남** 사실이구 오실이구 당장 다른 김보비를 찾소. 이것 보오. 또 전보가 왔단말이요. (전보를 준다.)

**영달** (전보를 읽는다.) 김보비 앞, 령감 사망 직전, 급래요함? ...

**허남** 동무 정 일을 그렇게 하겠소? 찍하면 감동돼가지구 눈물을 흘리지 않나, 찾으라는 사람은 찾지 않고 뽕발에 가서 헤매지 않나. 하여간 떨떨하단말이요. 빨리 찾소, 빨리!...

△ 허남이 급히 나간다.

**영달** 뽕발?... (어이없어 제킴에 웃는다.)

△ 텔레비죤기자와 촬영가가 나온다.

△ 촬영가는 건설장전경을 찍는다.

**너기자** 영접지도원동무! ...

**영달** 아, 텔레비죤기자동무로구만요.

**너기자** 이 건설장에 소문이 자자한 하사부부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달** 하사부부요? 그건 왜요?

**너기자** 텔레비죤에 소개하려고 그러니다.

**영달** 그건 안됩니다.

**너기자** 예?...

**영달** 그들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서 그러니다. 그럼 난...

△ 영달이 달려나간다.

**너기자** 지도원동무! ... 지도원동무! ...

△ 부르며 따라나갈 때 간막이 내린다.

△ 간막앞으로 락심천만한 두칠이와 보비가 나온다.

**보비** 범의 굴을 피해간곳이 사자굴이라더니 여기서 글썽 손주녀석들을 만날줄이야...

**두칠** 시련의 고비는 갈수록 험난해지고있소.

**보비** 두칠동무! 우리 내막을 허남대장한테만 말해주지 않겠나요?

**두칠** 정신있소?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면 어쩔려구...

**보비** 난 어쩐지 자꾸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두칠** 우리 완공의 날에 하자던 큰 일을 생각해서 참고 견딥시다. 대장한테 후에 사죄하기로 하구...

**보비** 하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되지요. 용진 용진 뚫고 나가자요.

△ 둘이 힘있게 걸어나간다.

## 제 3 장

△ 무대 승리군상 대돌전투장.

△ 막이 열리면 대돌가공전투가 한창이다.

영달이가 철남이와 목란이를 데리고 나온다.

**영달** 그러니까 동무들은 생판 남남이란 말이지?

**철남** 아니?... 우리가 형제간 같습니까?

**영달** 알만해, 그러니까 동무네 이걸 어떤 정황속에서 그 누구앞이라 해도 말할수 있지?

**목란** 뭘말입니까?

**영달** 박두칠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다. 김보비할머니는 내 할머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간이 아니다.

**철남** 거야 사실인데 말하구 안하구가 있습니까?

**영달** 중소. 그저 사실대로만 말해주오.

**목란** 지도원동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영달**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니까!...(급히 달려나간다.)

**철남,목란**?!...(의아해 마주본다.)

△ 여기로 작업공구를 든 두칠이와 보비가 나오는데 너기자 뒤쫓아나온다.

**너기자** 저... 하사부부이지요?...

**두칠,보비** 예... 그렇수다.

**너기자** 중앙텔레비죤기잡니다.

**두칠** 얼마나 수고하슈. 현대 무슨 일루?...

**너기자** 여러분들을 텔레비죤에 소개하려고 그러니다.

**두칠,보비** 예에?...

**두칠** 하... 그건 안되겠는데...

**기자** 지휘부측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보비** 여보 령감, 어쩐지 속이 떨려오지 않소?

△ 한쪽에서 바라보던 철남이와 목란이가 깜짝 놀란다.

**철남** 뭐? 령감?...

**두칠** 기자선생... 우리 로친네 말이우다.

**목란** (놀라며) 뭐? 로친네?...

**두칠** 사진기앞에 서면 와들와들 떨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확-내돋아나는 체질이 돼놔서... 그럼 우린...

△ 두칠, 보비 슬금슬금 나간다.

△ 너기자 그들을 막아서며 설복한다.

**목란** 그럼 우리 할머닌 어디로 갔니?

**철남,목란** 혹시 잘못된게 아니야?

**철남** 할머니!...

**목란** 할아버지!...

**두칠** 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인사해라, 김보비할머니시다.

**목란** (새침해서 인사를 안한다.)

**보비** 인사하렴... 박두칠할아버지이시다.

**철남** (건승 인사한다) 할머니, 제가 군대에 나온사이에 봉산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잘못되셨는가요?

**보비** 어영?... (기자의 눈치를 살피며) 그 얘길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말하겠니... 그쯤 알아뉘라.

**철남** 틀림없었구나.

**목란** 할아버지, 제가 군대에 나온 다음에 화대에서도 불상사가 있었나요?

**두칠** 불상사?... (기자를 돌아보며) 됐다. 그 얘긴 더 묻지 말아다고...

**목란** 틀림없었구나... (끝내 참지 못하고 터진다.) 할머니이- 내가 군대에 나올 때... 동구박까지 따라나오시며... 꼭 기다리겠노라고 하시더니... 어찌 그렇게 가시나요... (발을 동동 구른다.)

**철남** 할아버지... 내가 조국을 통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곳곳이 기다리겠노라고 하시더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가슴을 두드린다.)

**보비** 애들아, 그만들해라... 아이고 두칠동무-이건 정말 못할짓이구만요.

**두칠** 난 뭐 지금 할짓을 하는줄 아오?...

**철남,목란** (눈물을 씻으며 정중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린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 아무조록 부디...

△ 둘이 울며 달려나간다.

**너기자** 듣구보니 저도 가슴이 아프군요. 그러니 두분은 최근에 새로 결합되셨구만요.

**보비** 결합이구 비결합이구 왜 졸졸 따라다니면서 성화요?...

**기자** 예... 예... 미안합니다. 전 그럼... (황황히 나간다.)

**보비** (폴짝 주저앉으며) 아이구... 이젠 저것들 가슴에까지 못을 박았으니 이걸 어찌면 중소...(급히 일어서며) 내 가서 다 말해주겠습니다. (달려나간다.)

**두칠** 보비동무 첫!

**보비** (선다.)

**두칠** 뒤로 돌앗!

**보비** (돌아선다.)

**두칠** 오라구.

**보비** 제가 무슨 상관이라구. 같은 하사끼리...

**두칠** 완공의 날에 중요한 일을 하자던 그 약속을 벌써 잊었소?

**보비** (그만해야 고개를 숙인다.)

두칠동무, 잠시나마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절 용서해주세요.

**두칠** 보비동무, 우리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또 전투장으로 나갑시다! 날따라 앞으로!

**보비** 알았습니다.

△ 둘이 힘있게 걸어나갈 때 간막이 내린다.

△ 간막앞으로 조선인민군 대장의 군복을 입은 항일투사가 건설장려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나온다.

**려단장** 투사동지, 일두 바쁘실텐데 또 나오셨습니까?

**투사** 여기에 나와 우리 새 세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말ियो.

**려단장** 전번에두 투사동지가 지원물자랑 가지구 나오셔서 돌격대원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우린 두고두고 외운답니다.

**투사** 그런 소리 마오. 참 려단장동무, 이 건설장에 늙은 하사부부가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

**려단장** 예,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전쟁 때 돌박산에서 인연이 맺어진분들인데 지금두 젊은 사람들이 시샘이 날 정도로 다정하게 지낸답니다.

**투사** 전쟁때 돌박산? ...

**려단장** 예...

**투사** 그 동무들이 지금 어데 있소?

**려단장** 승리다리 건설장에 있을겁니다.

**투사** 승리다리 건설장?...

**려단장** 지금 거기서는 우리 돌격대원들과 전 쟁로병들이 한데 어울려 오락회가 한창 일겁니다.

**투사** 그럼 저기로 가보지요.

**려단장** 예, 가십시오.

△ 투사와 려단장이 나간다.

△ 경쾌한 전시가요가 울려 퍼지는속에 막이 열린다.

## 제 4 장

△ 무대 승리다리 건설장.

△ 막이 열리면 대단원을 이룬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의 오락회가 한창이다.

△ 손풍금과 기타반주에 맞춰 한 처녀돌격대원이 《아무도 몰라》 노래를 부른다.

△ 남녀 청년들이 북동을 두드리며 노래에 화답한다.

**군중들** (박수를 치며) 재청!

**허남** 동무들, 이번에는 전쟁참가자인 박두철, 김보비 하사부부의 혼성 2 중창을 듣는것이 어떻습니까?

**군중들** 좋습니다! (박수)

△ 청년들이 달려가 두철, 보비를 끌어낸다.

**두철** 아이구, 난 못부르네.

**보비** 나두 우리 령감을 닮아서 노래를 못해요.

**청년들** 그래두 불러주십시오.

**두철** 난 장가가는 날두 노래를 못부른 사람 이야. 그날두 지금처럼 자, 노래는 자꾸 하라지, 난 못한다고 딱 뻔치지... 그러니

동리너석들이 정 못하겠으면 새각시를 업으란다. 내 오죽 급했으면 신랑이라는 게 갱치머리없이 색시를 업구 소비조합 마당을 두바퀴 돌았잖나,

**모두** (폭소)

**청년 3** 그럼 거 전쟁때 돌박산에서 맺은 사랑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청년들** 들려주십시오.

**두철,보비** 어영?... (아연하여 마주본다.)

**청년들** 어서 들려주십시오.

**보비** 사랑?! ...

**청년들** 예! ...

**보비** 사랑말이지? ...

**청년들** 그렇습니다.

**보비** (활달하게 나서며) 그럼 사랑이야기를 좀 합시다...

**청년들** (박수친다.)

**보비** (승엄한 생각에 잠기며 말을 시작한다.) 불비 쏘아지는 전호속에서... 사랑이라면 그런 참사랑이 어데 있겠나요! ...

가렬한 전투후 설참이면... 우린 탄피 등잔밑에서 편지를 썼지요. 나이 많은 축들은 고향의 처자에게 편지를 썼구... 또 젊은 병사들은 어머니와 선생님들, 그리구 역에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던 정다운 동무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고향에 대한 사랑이었구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열여덟살의 리수복영웅에게는 위대한 조국찬가를 남기게 했고, 강호영영웅에게는 불굴의 신념을, 조곤실영웅에게는 불사신의 용맹을 날게 했던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란 무엇이겠나요?... 우리 장군님과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이 아니였겠나요! ...

**군중들** (박수를 치며) 옳습니다! ...

**두철** (감동되며) 로친네! 수고했소!

**보비** 원 령감두...

**두철** (청년들에게) 어힘! 바로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나!

**청년들** 그렇습니다.

**두철** 이제 만족하지?

**청년 4** 잠깐만! 또 있습니다.

**두철,보비** 아니? 또?...

△ 투사와 려단장이 한쪽에 들어와 선다.

**청년 4** 두분은 탑이 완공되는 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자구 약속하셨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공개하실수 없습니까?

**두철** 아니... 그건 안되네.

**보비** 절대루...

**허남** 자자, 동무들, 너무 조급해들 마시오. 지금 텔레비죤기자들이 로병혁신자들을

소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우리 후에 활영기앞에서 두분의 이야기를 마저 듣는게 어떻습니까?

**군중들** 좋습니다! ...

**투사** (한걸음, 두걸음 앞으로 나간다.) 저 혹시... 돌박산에서 싸우던 박두칠동무가 아니요?

**두칠** (찬찬히 바라보다가 놀란다.) 아니?! 련대장동지가? ...

**투사** 옳구만!

**두칠** 련대장동지! ...

**투사** 두칠동무! (뜨겁게 포옹한다.)

**보비** 련대장동지! 련대군의소 하사 김보비! ...

**투사** 우리 간호원 보비동무! ...

△ 그들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 군중들이 박수를 치며 상봉을 축하한다.

**투사** 그러니 그 돌박산전투가 인연이 돼서 부부가 됐구만.

**두칠,보비** 예? ... 그... 그렇습니다...

**두칠** (당황해서) 돌격대장! 전쟁때 련대장동지를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끼리 좀 얘기를 나누게 해달라구. 빙 둘러서서 구경하니 이거야 어디 방송야회 무대에 나선것 같아서...

**허남** 예, 알겠습니다. 자 동무들! 우리 화선 병사들처럼 또 전투장으로 나갑시다.

△ 군중들이 호응하며 나간다.

△ 철남이와 목란이 나오다가 걸음을 멈춘다.

**두칠** 련대장동지, 혼자만 알고계십시오. 우린 사실 가짜부부입니다.

**투사** 뭐? 가짜?...

**보비** 예, 여기 동무들이 어찌나 내려가라고 성화를 먹이는지 할수없이 토론끝에 가짜부부가 됐습니다.

**두칠** 전쟁때 우리 련대 정찰병들이 부부로 가장하고 적후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투사** (목소를 터뜨린다.) 하하하... 전쟁방법이 별 분야에 다 도입되는군 그래, 하긴 여기도 포성없는 전투장이지.

**철남,목란** 할아버지! 할머니! ...

△ 달려와 품에 안긴다.

**철남,목란** 우린 사실 그런것두 모르구...

**두칠** 에쿠야! 요것들한테 다 들켜났으니 이걸 어찌오?

**철남** 우린 다 알았습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짜부부로 되면서까지 여기에 있으려고 했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철남,목란** 두분의 비밀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보비** 고맙다. ...어쩌면 너희들은 우리하구 똑같은 마음이구 똑같은 모습이나!

**두칠** 련대장동지, 제 손녀입니다.

**보비** 제 손자입니다.

**철남** 중사 장철남.

**목란** 중사 박목란.

**철남,목란** 휴가기간을 바치자구 여기로 왔습니다.

**투사** 장하다! ...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새 세대들이 다르거든. 두칠동무, 보비동무! 나두 동무네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겠소.

**두칠,보비** 고맙습니다.

**투사** 내 그럼 다시 오겠소.

**두칠,보비** 안녕히 가십시오.

△ 투사 나간다.

△ 그들이 나가려는데 영달이가 허남이를 데리고 달려나온다.

**영달** 가만 가만! 좀 서십시오.

**두칠,보비** 왜 그러나? 지도원...

**영달** (허남에게) 대장동지, 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 영달이 철남이와 목란이에게 웃으며 다가간다.

**영달** 동무네 아까대루 딱 말해야 돼.

**철남** 그럼요.

**영달** (두칠, 보비를 가리키며) 이분들이 뉘시지?

**철남,목란** 온 건설장에 소문난 하사부부입니다.

**영달** (와들 놀라며)어영? ... 하사부부라고?...

**철남,목란** 그렇습니다.

**영달** 그럼 동무네는 형제간이라는거요?

**철남** 김보비할머니는 내 할머니가 아닙니다.

**목란** 박두칠할아버지도 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철남,목란** 따라서 우리는 형제간이 아닙니다.

**영달** (썩 소리친다.) 여! 군복입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되는가?

**철남** 이거 왜 이럽니까? 사실대루 말했는데 ...

**허남** (입이 쓰거워) 으음... 철남동무, 목란동무, 이거 안됐소. 어서 가보소.

**철남,목란** 돌아가겠습니다! (썩썩하게 나간다.)

**허남**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쓰게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양해하십시오.

**두칠** 그러게 간부란 밑의 사람을 잘 두어야  
한다니 ...  
**허남** 그럼 두분은 돌아가 보십시오.  
**두칠,보비** 그럼 우린...

△ 두칠, 보비 땡해 서있는 영달이 앞을 찬바  
람을 일कु며 나간다.

**허남** (영달이를 호되게 다긋는다.)  
영달동무! 이게 무슨 꼴이요. 동무 말을  
그대로 믿은 내가 잘못이지...동무 좌우  
간 그야말로 하여간...

**영달** (한숨을 쉬며) 이건 버선목이라고 뒤집  
어보일수도 없구...

**허남** (시계를 보며) 좋소. 이제부터 두시간내  
로 전보의 임자를 찾지 못하면 동무 문제  
를 따로 보겠소.

**영달** 예? ...

△ 허남이 나간다.

**영달** 두시간내로 찾으라. 아이쿠! 이거 야단  
났구나.

△ 영달이 쓴살같이 달려나갈 때 간막이 내  
린다.  
간막앞으로 려행용가방을 든 장만식이  
나온다.

**만식** (두리번거리며) 하... 로친네를 어디서  
찾는다. 전보를 두장씩이나 쳤는데두 통  
소식이 없으니...

△ 가방을 든 안행순이 나온다.

**행순** 저 말씀 좀 물읍시다. 여기 건설장에서  
일을 보시나요?

**만식** 아니... 난 여기 일하러 오는 사람이웨  
다.

**행순** 예... 나하구 같구만요. 헌데 어딜 그렇  
게 두리번 두리번 살피슈?

**만식** 우리 로친네가 달포전부터 여기와서 일  
하는데 나하구 교대를 좀 하자구요.

**행순** 아이구나 그것두 같구만요. 우리 령감  
님두 여기와서 일해요.

**만식** 허... 그러니 아주머닌 령감 보구싶어서  
찾아왔수다레.

**행순** 그러문요. 님두 불검, 뽕두 딸검... 령감  
님은 뭐 로친네 보구싶지 않습디까?

**만식** 하긴 나도 끄찍이 보구싶어요. 더우기  
달밝은 밤이면 어찌나 생각나는지...  
**행순** 흐흐흐... 아직 속은 젊었수다레.

△ 장부책을 낀 영달이 덜렁거리며 나온다.

**영달** 아 방금전에 도착하신 봉산아버님과 화  
대어머님이시구만요. 자 가십시오.

**만식** 영접지도원동무! 거 사람 하나 좀 찾아  
주슈.

**행순** 나두 좀 찾아달라구.

**영달** 누굴 찾으십니까?

**행순** 저 박두칠이라구.

**만식** 거 김보비라구...

**영달** 박두칠, 김보비?... 아 하사부부를 찾으  
시는군요.

**만식,행순** 뭐 ? 하사부부?...  
**영달** 왜 그러십니까?

**만식,행순** 아 아무것도 아닐세.

**영달** 가만 있자... 두분은 그 로인들하구 어  
떤 관계입니까?

**만식** 그 김보비가 내 로친이야!

**행순** 그 박두칠이가 내 령감이야.

**영달** 예?... 그... 그게 사실입니까?

**만식,행순** 아 그럼...

**영달** (무릎을 치며) 글썄 그러면 그렇겠지...  
(너무 기뻐 행순이를 안으려고 하다가  
만식을 덥석 안고 빙빙 돌아간다.)

**만식,행순** 아니? 왜 그러나?...  
**영달**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자, 가십시오!

△ 만식, 행순 앞서 나간다.

**영달** (경충뛰며) 이제야 정체가 드러났구나!  
...

(춤을 추며 달려나간다.)

## 제 5 장

△ 무대 대돌전투장

△ 막이 열리면 돌가공으로 들끓는 전투장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 허남이가 러단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앞  
에서 도면을 설명한다.

**허남** 바로 이것이 기둥을 이루는 12 메터짜  
리 철근봉주입니다. 이 꼭대기에 회전그  
네처럼 쇠사슬고리를 늘여준 다음에 수  
백톤짜리 대돌 두개를 끌어올렸다가 동  
시에 량쪽벽에 갖다 세우자는겁니다.



모두 야!...

**려단장** 멋이 있소. 이렇게 하면 기일을 닷새나 앞당길수 있소. 허남동무, 어떻게 그런 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소?

**허남** 려단장동지! 이게 바로 박두칠아버이가 내놓은 화선식 야전공법이라는겁니다. 그 아버이를 만나서 토론해보니 비행기 사냥군조때 달구지바퀴우에 중기를 태우고 빙빙 돌리던 이야기랑,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리던 이야기랑 해주더군요.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모두** (감탄한다.)

**참모 1** 이젠 풀렸습니다. 화선식 야전공법 만세!

**모두** (웃음)

**려단장** 잘 준비했다가 본때있게 내밀어봅시다!

**참모들** 알았습니다.

△ 려단장이 일부 참모들을 데리고 나간다.

△ 허남이도 나가려는데 녀기자가 들어선다.

**녀기자** 돌격대장동무!...

**허남** 아, 기자동무... 그래 하사부부를 촬영했습니까?

**녀기자** 촬영이 다 됩니까?...

**허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녀기자** 알고보니 그들은 가슴아픈 사연을 안고있는분들이더군요. 그분들은 최근에 결합된 분들입니다.

**허남** 예?... 하하하... 이거 기자동무가 하도 많은 사람들을 취재하다보니 뭔가 혼돈하셨구만요.

**녀기자** 예?...

**허남** 그들은 전쟁때 인연이 맺어져 오늘까지 하루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는 부부입니다.

**녀기자** 아니 저...

**허남** 내 이제 우리 돌격대원들을 데리고 촬영장으로 오겠으니 기자동문 먼저와서 준비 하십시오. 대렬참모동무, 동문 이제부터 이 사업에 전적으로 붙으시오.

**대렬참모** 알았습니다!

△ 허남 나간다.

**녀기자** 모를 일인데?...

**대렬참모** 기자동무, 어서 갑시다.

**녀기자** 예...

△ 녀기자 머리를 기웃거리며 나간다.

△ 소리- 휴식!-

△ 두칠이와 보비가 바깥쪽을 들고 들어온다.

**보비** 자, 휴식인데 시원하게 좀 마시라구.

**두칠** 단물이야.

**돌격대원들** 고맙습니다.

△ 여기로 영달이가 달려들어온다.

**영달** 아, 여기들 계셨구만요.

**두칠,보비** 왜 그러나? 영접지도원.

**영달** (땀을 씻으며 그들의 주위를 한바퀴 돈다.) 이제부터 제가 묻는말에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에- 답변의 솔직성 여부에 따라서 관대성이 적용될수도 있고 무자비성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두칠** 뭐?... 뭐라구?...

**영달** 박두칠아버님?... 화대에 사는 안행순이라구 아십니까?

**두칠** 안행순?... 알지 않구... 그야 우리 집사람... (하다가 흠칫 놀라며) 난 그런 너자 모르네.

**영달** (쓰겁게 웃으며) 김보비어머니! ... 장만식이라구 아십니까?

**보비** 장만식? 아, 그럼 알... 지... 못하네, 절대로...

**영달** 좋습니다. 어디 본인들앞에서두 그렇게 말하나 두고 봅시다!

**두칠** 그럼 안행순이가 여기 나타났단 말인가?

**보비** 장만식이두 나타났나?

**영달** 내가 방금 담화하고 오는 길입니다.

나도 과학적증거를 가지고 말한단 말입니다.  
첿!...

**두칠,보비** (낮이 까맣게 질린다.)

△ 밖에서 소리- 영접지도원동무!...

**영달** 예- (두칠이와 보비에게) 자, 저기 오게 누군가 푹푹히 보십시오. 어디 3자대 면해봅시다. (의기양양해 밖을 향해) 여깁니다!

△ 두칠, 보비 바빠서 어쩔줄 몰라하다가 속보관뒤에 달려가 숨는다.

△ 만식, 행순 나온다.

**만식** 로친넬 만나게 해준다더니 어떻게 됐나?

**행순** 우리 령감은 어데 있나?

**영달** 자, 어서 만나보십시오. (돌아보다가 놀란다.) 영?... 어데간? (속보관 밑을 발걸한다.)

△ 두칠, 보비의 발이 속보관밑에서 바빠서 쿵쿵 뚫다.

△ 지나가던 철남이와 목란이가 이 광경을 본다.

**영달** 으하하... 고민속에 허덕이지 말구 자, 어서 나오십시오.

△ 이때 철남이가 《할아버지! -》 하며 만식의 품에 와락 뛰어든다.

**만식** 어영?... 네가 웬일이냐?

**행순** 여보!- (팔을 벌리고 두칠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간다.)

△ 이때 목란이가 《할머니! -》 하며 행순의 품에 뛰어든다.

**행순** 아니?... 넌 어디서 날아왔니?...

△ 철남이와 목란이가 자꾸 두칠이와 보비쪽으로 가려는 만식이와 행순이를 억지로 반대쪽으로 끌고간다.

**영달** (성이 나서) 동무넌 뭐야? 결정적인 대목에 홀랑 날아들어가지구... 비끼라!

△ 그러는새에 두칠이와 보비가 쏜살같이 달아뺀다.

**영달** 영?... 박두칠아버님! 서십시오. 셋! 셋! ...

△ 영달이 따라 나간다.

**행순** 아니?... 대관절 어떻게 된 노릇이냐?

**만식** 좀 자세히 말해라고...

**철남** 할아버지! ... (만식의 귀에 대고 말한다.)

**목란** 할머니! ... (행순의 귀에 대고 말한다.)

**만식** 오, 그런 일이 있었니! ...

**행순** 아이구... 난 그런줄도 모르구...

**만식** 아주머니, 하마트면 큰일날번 했습니다.

**행순** 그러게 말이우다. 아주버니, 우리 령감이 어쩌면 그런 묘한 생각을 다 했을가요? 전쟁때 후방에서 보잡이를 한 나보다 전선에 나가 싸운 우리 령감이 확실히 달라요.

**만식** 내 말이 그말이웨다. 전쟁때 후방에서 소비조합 부기를 한 나보다 일선에서 싸운 우리 로친이 달라요.

**철남** 할아버지! 두분의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합니다.

**만식** 암! ... 지켜주구 말구, 이 성스러운 탑에 자그마한 지성이라도 고이려는 그 마음들을 적극 도와나서겠다.

**행순** 나두 비밀을 꼭 지켜주마! ...

**철남,목란** 아! ... 고맙습니다.

△ 이때 영달이가 두칠이와 보비를 떠밀며 들어온다.

**영달** (허떡이며) 자, 데려왔습니다. 어서 만나들 보시오.

**만식,행순** (가만히 서있다.)

**영달** 아니?...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왜 그냥 서있습니까? (옥박지른다.) 안행순어머니! ... 어서요! 어머니! ...

**행순** (그만에야 망각한채) 여보!... (팔을 벌리고 두칠에게 달려간다.)

**만식** 아주머니! 정신차리시오! (쩍 소리친다.)

**행순** (떡 멈춰서며) 에그머니나! 내가 왜 이러니?... (휙 돌아서며 영달이를 와락 껴안는다.) 그새 얼마나 수고가 많았나?

**영달** (몸부림치며) 이... 이 어머니가 환장을 했나?... 난 왜 포옹하는겁니까? 예?...

**행순** (영달의 볼을 두드려주며) 교와서 그래 ...

**영달** 내가 교와요?... 야, 생후 38 년만에 처음 듣는 소리로구나, 자자... 서로 만나보라는데 왜 떡 뺄치고 서있기만 합니까? 예?...

**만식** (성큼성큼 보비에게 다가가 손을 쑥 내든다.)

**보비** (치는줄 알고 와들 놀라 움츠린다.)

**만식** (보비의 손을 잡으며) 보비동무! 이렇게 혁신자가 된 보비동무를 보니 앞집에 사는 나도 정말 기쁘웨다.

**보비** (울상이 된다.) 예?... 앞집이라고요?

**행순** (활달하게 두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두칠동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동무를 보니 한마을에 사는 나도 정말 기뻐요.

**두칠** 뭐? 한마을?...

**만식,행순** (점잖게 인사하고 자기자리로 돌아온다.)

**보비** (가슴을 두드리며) 아이고, 두칠동무... 이대루 더 참아야 하는가요?...

**두칠** 난 뭐 지금 참을걸 참는줄 아오?...

(너무도 안타까와 노래를 부른다.)

**두칠** 누구에게 말을 하랴 이내 심정을

**보비** 딸에게도 말 못하는 이 내 사연을  
목숨보다 귀중한 조직의 비밀  
굳게 다진 그 맹세를...

**영달** 아니... 아니... 이건 또 뭘니까? 영?...

**만식** (노래를 받아부른다.)

**행순** 세상사람 모두다 믿지 않아도  
나는 아직 복순이를 믿고싶다네...

**영달** (발을 탕 구르며) 중지하십시오, 중지하십시오! 여기가 뭐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무대인줄 압니까?

**두칠** (감격에 겨워 만식에게) 그럼 그쪽에서도 다 안다는 겁니까?

**만식** 탑을 빛내려는 똑같은 마음인데 왜 모르겠소.

**영달** 아니?... 이젠 또 무슨 접선암호같은 소리입니까?

**두칠** 영달동무! 동무가 아무리 요동을 쳐두난 지금 무한히 행복하오. 난 일구사팔년도에 결혼해서 이날이때까지 살면서 우리 로친이 이렇게 고와보기는 처음이요.

**보비** 옳아요. 나두 우리 령감이 저렇게 의젓해보이긴 처음이예요.

**영달** 그만들하십시오. 이 영접지도원을 뭇루알구 이릅니까?... 내가 뭇 당반에 엮어놓은 오토기인줄 압니까? 그래 아직도 부부라고 우기겠습니까?

**두칠** 이 사람이 이거 정신이상이 생긴게 아니요?

**영달** 정신이상이요?

**보비** 비편제지도원! ... 뭇가 아직 석연치 않아 이 소동이요?

**행순** 글쎄 어쩐지... 아 비편제지도원이니까 이런 일 하나 제대로 가려보지 못하지요.

**만식** 그래서 편제하구 비편제하구 차이가 크다는거요.

**영달** (머리를 싸쥐며 주저앉는다.) 야... 이젠 정말 혈압이 튀기 직전이구나.

△ 녀기자와 촬영가가 나온다.

**녀기자** 비편제지도원동무! ...

**영달** 아니?... 동문 뭇 안다구 비편제요 뭇요 하면서 붙는불에 키질이요?

**녀기자** 난 그저 남들이 부르는대로 불렀을뿐인데요.

△ 허남이가 돌격대원들을 데리고 나온다.

**허남** 아, 기자동무, 벌써 촬영을 시작했습니까?

**녀기자** 시작이 다 됩니까? 이 동무가 늙은이들을 세워놓고 계속 뭇 따집니다. 시간이 없다는데...

**허남** 아 영달동무! 무슨 일을 그렇게 하오? 영?...

**영달** 야, ... 잡아먹을건 돼지라더니...

**허남** 뭇라구? ...

**영달** 아니... 오늘 지원돼지가 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웃는다.)

**허남** 어서 촬영하십시오. 자, 꽃다발! ...

△ 박수속에 돌격대원들이 두칠이와 보비에 게 꽃다발을 안겨준다.

**보비** (바빠서 쿵쿵 뛰며) 이젠 정말 안됩니다!

**두칠** 텔레비죤촬영만은 절대루... (얼굴을 가리운다.)

**만식** 뒤집동무! 어서 나서시오.

**행순** 한마을동무! 용기를 내세요.

**녀기자** 촬영!

△ 촬영가가 촬영기를 바싹 들이댄다.

**영달** (번개같이 촬영기를 막아서며) 중지! 중지하십시오!

**모두** (아연해진다.)

**녀기자** 아니? 이거 왜 이릅니까? 이제 무슨 볼뻔는 화구라구 가슴으로 막으면서 이릅니까?

**영달** 안됩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분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모두** (의아해서 웅성인다.)

**허남** 이 동무가 아직두?... 동무 정신나가지 않았소?

**영달** 정신은 대장동지가 나간것 같습니다.

**허남** 뭇요?... 동무 비편제지도원이치?

**영달** 예?... 비편제입니다.

**허남** 당장 인계할 준비를 하오.

**영달** 예?... 대장동지!... 아깐 두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직 2분이 남아있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주십시오.

△ 영달이 철남이와 목란이에게 달려간다.

△ 투사와 러단장이 나오다가 걸음을 멈춘다.

**영달** 동무네 말이야... 제발 좀 사실대로 말해보라, 저분들은 부부가 아니지?...

**철남** 아, 몇번 말해야 믿겠습니까?

**영달** 저쪽으로 비키라! ... (목란이앞에 갔다가 자신만만해 있는 기상을 보고 행순에게 다가간다.)

**목란** 왜 날보군 물어보지 않습니까?

**영달** 동무한텐 물어보나마나해! (행순의 손을 잡고 애원한다.)

어머님! ... 어머님이야 진실을 말해주겠지요? 예? ...

**행순** 내가 언제 비진실을 말했댔나?

**영달** (손을 획- 내리그으며 만식에게 다가간다.) 아버님! 아버님이야 년세도 많으신데 좀 바른대로 말해주십시오. 이젠 아버님 한분밖에 없습니다. 아이구 시간이 다 갑니다. 5 초, 4 초! ...

**만식** (한참 갑자르다가) 야... 이젠 정말 택간이심정이가구나! 부부간이 맞네!

**영달** 예?... (눈을 뒤집으며 뒤로 서서히 넘어간다.)

**모두** 아아!... (달려가 영달이를 부축한다.)

**투사** 두칠동무! 사람부터 건지구 봐야 하지 않겠소?

**두칠** 그럼 다 말하십니까?

**투사** 진실을 말할 때가 된것 같소!

**두칠** (영달의 손을 잡고) 이사람! 자넌 우리 때문에 편제지도원두 못해보고 비편제에서 물러나게 됐구만.

**영달** (벌떡 일어나며)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말이지요?

**두칠** 후... 우린... 부부간이 아니야...

**모두** (아연해진다.)

**영달**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모르며)

대장동지! 보십시오! 이래두 내가 비편제두 못할 사람입니까!

**허남** (땡해진다.) 아니? 아버님, 이게 사실입니까!

**두칠,보비** 대장! 우릴 용서하게...

**허남** 예?...

**투사** 두칠동무! 어서 속마음을 다 말해주오.

△ 음악이 흐른다.

**두칠** 돌격대장! 여러분!... 우린 사실 이 건 설장을 뜯수 없는 깊은 사연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웁니다...

사십년전... 우리 중대 전우들은 이제 전쟁을 이긴다음 전승광장으로 다 함께 가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박산 전투에서 중대전우들은 다 희생되고 우리 둘만 살아남았수다... 그러니 전승광장으로 다 함께 가자던 그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십년이 돼오는 오늘... 우린 그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수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선... 우리 중대 전원을 이 영생의 언덕에서... 다 만나게 해주셨수다... (목이 뻔다.)

**군중들** (감격으로 설레인다.)

**두칠** 그래서 우린... 이제 완공의 날이 오면... 고마우신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리자고 약속을 했던겁니다. ...

**군중들** (박수를 친다.) 아버님! 어머니!...

**허남** (울먹인다.) 용서하십시오. 전 그런줄도 모르고... 우린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세대들의 모습을 보았고...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바라는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영달** 대장동지!... 전 이번에 전국각지의 지원자들을 영접하면서... 정말 생김새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르는 우리 인민은 다 한 마음이고 한모습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허남** 웁소!...

△ 진짜 부부끼리 상봉한다.

철남이와 목란이, 허남이와 영달이 그리고 투사와 려단장도 두 부부를 둘러싸고 뜨겁게 축하해준다.

△ 텔레비죤촬영가가 이 장면을 찍는다.

△ 너기자자가 마이크를 들고 격조높이 웨친다,

**너기자** 전국의 시청자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니까!

앞선 세대는 뒤세대에 충성의 대를 변함없이 넘겨주고, 새 세대는 앞선세대가 넘겨준 혁명의 계주봉을 끄떡없이 틀어잡고 나아가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구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투사** 여러분! 시대와 혁명의 진두에 서서여 사회주의 방향타를 역세계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제막식을 진행하게 될 영광의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 음악이 터진다.

△ 음악속에 완공된 전승기념탑의 전경이 펼쳐진다.

△ 각계각층의 군중들이 달려나오며 환호를 올린다.

**두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지금 세상 하늘을 살펴보면

사회주의가 세운 기념비들이 하늘아래에서 자취를 감추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가엔 탑이 솟고있습니다.

동서고금에 그 언제 이런 탑이 있었습니까!

**허남** 진정 이 탑이야말로

**김정일**식 사회주의의 성공탑이고

**김정일**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승리탑입니다!

**보비** 사회주의는 **김정일**장군님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사회주의

장군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장군님이 없으면 조국도 없습니다!

**두칠** 일심단결의 한모습으로 대가정을 이룬 혁명의 1 세 2 세대들과 3 세, 4 세대들은 우리 대가정의 아버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전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전체가 붉은 수기를 흔들며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노래를 합창한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만세!》의 환호가 터진다.

△ 음악이 고조되는속에

-막-

1993 년 2 월

# 불멸하라, 승리의 탑이여!

차영도

누리를 향해  
한껏 머리들고 웨치고싶은  
승리자의 그 모든 긍지와 자부름  
우리는 여기에 탑으로 세웠다  
전승기념탑!

다듬어 쌓아올린  
저 화강석대돌마다에 무겁게 실린  
아, 싸워이긴 조선의  
하많은 위훈의 무게

이 탑에 전승의 만세소리  
하늘가에 사무치던 그날로부터  
마흔해 긴긴세월의 그 등줄기에  
피줄처럼 즐기치게 뻗어온  
이 나라 승리의 력사가 새겨있거니

다가서면  
넉마처럼 찢겨진 침략자의 기발이  
우리의 발밑에 다시금 밝혀오는 탑  
우러르면 항일전의 찬란한 승리를 이어  
오늘의 강대무적의 조선이  
누리를 향해 배심 좋게 서있는 탑!

오, 이 거룩한 탑을  
친애하는 우리의 령장께서  
백두가 뿌리박은 이 땅을 대돌삼아  
조선의 기상으로  
해쫓는 동방에 거연히 세우셨으니

사람들이여, 이 탑앞에서  
삼가 가슴에 품은 푸른 공민증을  
조용히 손더듬으라  
그리고 위대한 령장을 받들어 모신  
승리한 조선의 공민이  
어떻게 머리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으라!

새겨안으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뜻으로 이 땅에 솟은  
신념의 탑, 불멸의 탑을  
새겨안으라! 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여기서 엄숙히 선언하시는  
위대한 령장의 그 기상을

오, 전승기념탑!  
여기서 1211 고지의 만세소리  
후손만대 영원히  
우리의 하늘땅에 메아리치리  
여기서 월미도 영웅들의 멧지 않은 심장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 높뛰거니

탑이여, 탑이여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 조선이 가야 할  
그 승리의 천만리를  
리정표마냥 엄숙히 가리키는 탑이여  
이 탑이 억척같이 솟아있는 땅은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없으리라!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시조

## 고향과 추억

량덕모

### 내 기쁨이 자라오른곳

다투어 막아선 산짐에 끼워  
한눈에 차는 골짜기  
처음 들리는 사람들은  
갑갑한 두메라고 탓하여도  
고향아 나는 네가  
비좁은줄 모르고 자랐다

푸른 산 맑은 샘에 정들어서였던가  
그보다 풀밭에서 뛰놀던 나를  
선생님이 찾아와 학교에 붙여주고  
어느해부터인가 교복까지 입혀주어  
웃음을 흘리며 철이 들던 시절

하루하루 새롭던 나날이었다  
한적하던 바위목굽이로  
우리가 만든 트랙토르가 굴러오고  
새 농기계들 들이닥치는  
전변의 그 기쁨에 끌려  
내 로동의 첫땀을 뿌린 땅아!

별방처럼 사래긴 이랑은 없어도  
주체농법이 은을 내는 산골농사  
년년이 풍년이어서  
읍을 벗어나면 모르던 너의 이름  
온 나라에 놀랍게 퍼지고  
나에게도 농민휴양권이 차례지고...

취덕산너머 울러오는  
원라선 먼 기적소리에 마음 들뜰 때면  
그 마음 갖혀주려는듯

평양의 배우들 내려와  
소박한 회관의 막을 열었다

아, 산이 높아도 거침없이  
내 바라는데로 다 찾아오고  
골이 좁아도 막힘없이  
내 꿈을 펼치며 마음껏 자라오른  
생활의 기쁨

바로 그것이였다  
다투어 막아선 산짐에 끼워  
한눈에 차는 산골  
내 고향 험한 땅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조국이 고르롭게 꽃피준  
사회주의 삶이여!

그 삶이 있어  
세상천지 넓으나넓은 땅이 많아도  
고향아 네가 비좁은줄 나는 몰랐다  
첩첩한 산그늘도  
내 마음속엔 드리우지 못했다

내 지금은 시원히 트인 도시에 살지만  
고향집 마당가  
저 쓸모없는 둥글바위마저 못잊는 땅

고향아! 너를 두고  
산골이라 타발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키워준 은혜로운 조국의 표상  
죽어도 났은 너를 베고 숨지리!

## 이웃들

길도 새길 집도 새집들이건만  
눈에는 밝혀와라 내 어릴적 옛마을이  
우리 집옆에 살던 창일이 인숙이네며

그 건너 순녀 삼신이네들  
어찌다 령넘어온 물고기토막도

이집 저집 나누어먹고  
더더구나 명절날 음식은  
네집 내집 따로 있었던가

이웃간에 의가 상하는 일 없이  
순박하고 화목하던 동네  
나라에서 하라는 일이라면  
열두밤 패며 해내던 성미들

술罈이 기름바른 종이를 덮어서도  
랭상모를 어벌지게 키웠고  
수백리 목장에서 양을 사다가  
한가스레 조을던 풀판을 깨웠다

래일의 꿈은 커 많기도 하던 어려운 일  
술잎밑에 감춰졌다는 논배미들  
뿌려놓은듯 널려있던 돌각담들  
그 얼마나 이랑을 펴고 들어냈던가

어른들은 겉싸게 일해가는  
농사일로 가까워지고  
우리는 아이들대로 착한 일로 친해졌다  
그렇게밖에 달리 살줄 모르던 이웃들

아깝게 세상떠난 이도 있고  
내 친구들 머리에도 흰서리 보이건만  
그 시절의 마음 가뭇처럼 이어  
더 홀롱해진 고향사람들

아, 제집 먼저  
마을을 걱정하고 조국을 위하는  
성실하고 깨끗한 그 성미 그 인정  
내 어디간들 때묻히라

뜨거운 혈맥처럼 이어져  
사회주의 밝은 생활에 숨결을 주는  
그 마음의 추너를 잃는다면  
내 어찌 이 나라 인민이라 하랴

## 맑은 흐름

살오른 버들치 모래무치  
흰구름 타고 오락가락하니  
하도 맑은 네 물속은  
신비한 동화의 세계인듯  
다시 보면  
청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펼친  
긴 비단필 흐름같은  
내 고향의 북대천아!  
너는 예나 다름없이  
내 마음속에 젖어드누나  
해지는줄 모르고 물놀이하던  
그 어린 시절 정이 댈 물빛으로  
풀벌레소리 여물은 초소의 밤  
내리는 달빛에 실려오고

바람찬 개발지  
타오르는 모닥불가에 삼삼하던 네 흐름  
세월도 흐르고 너도 흘렀건만  
변함없는 물빛으로  
내 뉘를 씻어주는 북대천아!  
네가 이리 맑아  
어머니조국을 받드는  
내 마음도 그지없이 맑아지나니  
아, 너로 하여 피터워진 이 심장  
너를 지켜 바친들  
그 무슨 아쉬움 있을가  
너의 방울방울  
내 가슴의 붉은 피로 뛰여라!

## 새파란 풀밭

예가 첫사랑으로 가슴달던  
새파란 풀밭이로구나  
어서 긴 회초리 쥐여다오  
고향의 산천아!  
찬이슬 반기며  
내 다시 양몰이하고싶구나

저기 나리꽃 핀 등성이였지  
토끼사양궁 그 처녀

아침마다 풀뜯으려  
웃음이 찰랑이는 고운 눈으로  
나를 부르며 달려오던곳이

이끼오른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간밤에 엄지양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내가 어깨를 으쓱하면  
또 한배 새끼토끼 세간났다고  
살그니 속삭이던 처녀

우리 서로 풀이슬 헤쳐갈수록  
 불어나던 양무리 토끼무리  
 달밝은 산골길 걸어 걸어 십리길  
 둘이 함께 둥둥 안고오던  
 하루일의 기쁨이어

그 기쁨이 무엇이길래  
 마주보는 눈길에  
 더는 못감출 마음의 다리를 놓아주었던가  
 늘 듣는 내물소리 산새소리  
 떨어져 못살 고향의 노래 같고  
 차거운 비바람도 녹녹한 안개도 싫지 않았던가

아 어찌다 한번 못만나면  
 해종일 그러지던

그 처녀 얼굴이 있어  
 흰눈이 내려도 이 가슴에 싱싱하던 풀밭  
 내 황금빛 주단우를 걸어 간들 잊으랴

두팔벌려 안아보자 쓸어보자  
 그 처녀와 내 마음 이어주는  
 살뜰한 손길갈던  
 이름모를 풀잎 하나하나  
 향기로운 들꽃 송이송이

첫사랑의 그 시절처럼  
 고향앞에 조국앞에  
 달아오른 심장 식지 말라고  
 나를 불러 시들지 않는 풀밭  
 아, 새파란 풀밭...

## 고향과 추억

어릴적 입에 오른 사투리만 들어도  
 봄을 맞은 버들잎처럼  
 파랑게 살아나는 고향의 추억  
 세월도 그우엔  
 망각의 그늘을 못던집니다

찍어든 사진마냥 변하지 않는  
 그 갈피갈피를 나는 번져봅니다  
 맨발로 뽕박질하던 잔디밭이며  
 살구나무를 심어가던 학교울타리며  
 길손의 짐을 들어다주던 뽕스정류소...

그것은 아무때든  
 고향으로 마음앞서 찾아갈수 있는  
 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눈가에 주름지는 나이에든  
 송아지 동무시절  
 그 살뜰한 정을 이어줍니다

추억은 즐겁습니다  
 눈물흘리며 듣던  
 선생님의 꾸중조차  
 멋없이 우물렁거리다  
 처녀애들앞에 당하던 그 망신마저

추억은 좋아만 보입니다  
 인민학교 최우등 상장을  
 오늘의 큰 훈장보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년신문에 발표한 첫 동요를

오늘의 어느 시보다 외우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부끄럽던 일도  
 지금은 웃음이 되고  
 이제는 하찮은 일도  
 해를 따라 그리움속에 소중해지며  
 생활의 먼길을 함께 가는  
 내 인생의 그림자 나의 길동무

행복의 즐거움은 더해주며 떠오르고  
 슬픔의 괴로움은 덜어주며 어려워는  
 그 추억이 없다면  
 고향이 아닙니다  
 내 위훈과 재능이 뿌리내릴  
 토양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고향을  
 그 사랑의 물결타고  
 떠가는것이 추억입니다  
 추억의 뜻을 달지 않으면  
 마음의 고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오, 정든 고향과 추억은  
 변함없을 내 사랑-  
 불속에도 타지 않고  
 광풍에도 휘청이지 않을  
 조국의 억센 아들로  
 나를 키워주는  
 삶의 젖줄기랍니다!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투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 그는 말없이 걸어가고있었다

신병강

당비서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어제날 전쟁참가자  
오늘의 평범한 로동자  
방에 들어서자 조용히 모자를 벗는데  
젊은 당비서 그의 손 뜨겁게 잡는다

-아바이, 축하합니다!  
표창상무에서 아با이를 부릅니다

순간, 펑-  
눈가에 어리는 이슬...  
그는 더 다른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방문을 나선다

오, 방문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서  
누빈 솜동복저고리에 손을 지른채  
청사의 긴 담장을 에돌아가는 아با이를  
젊은 당비서와 함께 창너머 바라보며  
내 목메이는 순간이여!

저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던 그때 벌써  
총잡고 불타는 전장을 달린 사람  
헤치고 넘은 사선의 불비는 그 얼마?...

위훈은 많아도 자랑을 모르며  
묵묵히 당을 받들어  
보수도 직위도 바람이 없이  
오늘도 열관리공으로 사는 사람

어쩔수 없는 세월앞에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에 흰서리 있었어도  
맡겨지는 일감앞에 마음 달리한적 있던가  
차례지는 명예를 놓고 저울질한적 있던가  
오직 일밖에 모른 사람

오, 끝없는 존경으로 눈물이 솟구친다  
늙지 말아야 할 사람들,  
락동강까지 갔다온 전쟁참가자들은  
귀중한 혁명의 보배라 불러주며  
우리 당이 것처럼 아끼는 사람들

머리를 숙이노라  
모자밑에 불리는 저 흰머리칼과  
자개바람 일던 그 시절을 넘어  
뜨적이는 저 걸음앞에,

그리고 인사를 드리노라  
전화의 불길넘어 40년  
당을 받들어온 말없는 그 공로앞에

나는 다시 창박을 바라본다  
긴 담장 한끝에 사라져가는 그 모습  
자꾸자꾸 이끄러는 마음 따라세우며  
창문가를 못떠나는 나에게  
젊은 당비서 의미깊게 말하네

-얼마나 미더운 모습인가!  
주는 일감앞에선 가벼운 걸음이었지만  
받는 평가앞에선 늘 저렇게  
무거운 걸음이었네

## 받아다오 이 기발을 외 1편

-조국해방전쟁에 의용군으로 참가한 로병들을 대신하여-

최인덕

우리 초소의 미더운 병사들아  
헤여지면 그립고  
만나면 함께 있고싶은 마음

우리 안고 온 기폭마다에도 어려있으니  
받아다오 이 기발  
우리의 신념이 새겨진 기발을!

40 여년 세월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기발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 넘던  
그날의 낮이 깃들어 숨쉬는  
우리의 공화국기발이다

밤을 새워만든 기발이라면  
안고 온 마음 이다지도 뜨거우라  
총탄에 뚫리고 선혈에 물든것은  
전우들의 곁을 떠난 세포비서아바이  
우리에게 넘겨준 피의 뜻이다

어서 받아다오 이 기발  
세월은 흘려어도  
영원히 마음속에 휘날리는 기발이다  
해방된 서울의 거리와 거리  
마을의 집집마다 지붕우에 높이 날려  
새 생활을 펼치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발이다

이 기발아래 처음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배웠고  
이 기발 가슴에 품고  
지키는 땅에 영생의 봄이 있음을 안 전사들

필력이는 소리에 들려오지 않느냐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쓰러져도 이 기발만은 놓지 않은 그 목소리  
전우들의 그 목소리 하나로 비껴  
기발은 필력이며 눈시울 더웁힌다

아, 흘린 피 땅만을 적시지 않았다  
이 기발을 보아라  
기발은 속삭이며 웨치고있지 않느냐  
전우들의 그 목소리가 들려오고있지 않느냐  
전우들의 그 념원이 별이 되어  
붉게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고있지 않느냐

혁명의 세대는 바뀌어도  
끝까지 추켜들어야 할 이 기발  
내리면 죽음  
추켜들면 승리인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의 상징!

받아다오 이 기발  
하루빨리 고향땅에 가고싶어  
로병들 마음속에 품고 살던 삶의 표대다  
이 기발 고향집 지붕우에 날리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남녘형제들에게 배워주고싶은  
로병들의 간절한 소원 담겨진 기발이다

오! 기발은 넘겨주고 넘겨받아도  
조국통일 이 하나의 임무만은  
더 넘겨줄수 없거니  
로병들의 마음속에 높이 계양된 기발  
병사들아 이 기발 대오앞에 날리며  
조국 위한 성전에서 언제나 앞장서다오  
이 기발 날리는곳에 병사의 승리가 있어야 한다

## 우리 그날에 안고가자

초소의 병사들아  
그대들 보고싶어  
마음 앞세워 달려온 이몸  
부디 나무람 하지 말아다오  
내 향기질은 꽃다발  
아름아름 안고오지 못하였음을

그리고 그대들과 함께 마련한  
뜻깊은 련환모임의 이날  
너무도 격식없는 나의 인사를  
부디 탓하지 말아다오

하건만 내  
후방초소 인민들의 부탁으로

불처럼 뜨거운 심장 안고왔나니  
축하를 받아다오  
나의 인사만이 아닌  
부모형제들이 보내는 가장 뜨거운 인사를

우리 지켜선 초소는 다르고  
직무는 높고 낮아도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  
그이의 명령 지켜 운명을 함께 하는 한형제

우리 언제나  
한 전호속의 병사로 함께 살았다  
그대들 초소를 지켜 낮과 밤을 지낼 때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 흐른 그 시간

그 시간속에 함께 피운 충성의 꽃송이들

온 나라가 전호가 되고  
온 나라 인민이 병사가 되어  
최고사령관동지를 옹위하는  
총포탄이 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우리만이 피울수 있는 효성의 꽃송이들

총포성 울리는 격전장에서만  
승리가 있는것 아니여라  
제국주의의 거만한 코대를 다시 한번 꺾어버리고

이 땅우에 터쳐놓은 승리의 꽃바다  
이것이 그대들의 삶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냐

이제 우리 함께 안고가자  
조국통일의 그날  
7 천만겨레의 념원 담아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꽃바다우에 모실  
향기로운 그 꽃을 안고가자

## 전 사 여 !

박래설

그전날 포연이 흐르던 고지우에  
우리의 머리우에  
죽음의 파편이 휘뿌려지던 전호가에  
지금은 철따라 꽃이 피고  
고운 새들 지저귀며 날아옴다

전사여, 그대 기억하는가?  
산도 강도 불타던 락동강싸움을  
그리고 전선동부, 몹시도 가렬하던  
진지방어전의 그해 여름  
고지에 수류탄도 떨어져  
련사홀 원쑤와 먹씨름하며 싸워지킨  
무명고지전투를,

그 시절 함께 싸운 전우들  
벌써 오래전에  
고향으로 정든 집으로들 돌아갔으나  
그대는 지금도 서있어라  
포연 자욱하던 고지의 그 새벽처럼  
여기 보통강기슭 전승탑우에  
아직도 식지 않은  
기관단총 가슴에 비껴잡고

그대 지금 무엇을 보고있느냐  
포화에 밤으로 낮으로 피빛노을 붉던  
잊지 못할 그 격전의 언덕인가

아니면 우리 함께 배밀이해가던

저 락동강기슭의 여울목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승리를, 조국의 번영을 부르며 간  
전우들의 목소리 듣고있느냐

오늘은  
창조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높은  
우리의 락원을 삼키려고  
또다시 저 남쪽바다우에  
원쑤들이 구름떼마냥 밀려드는데...  
쓰러진 전우들의 목소리-병사여 의무를 다하라!  
귀가에 쟁쟁한데

전사여, 너는 부르고있구나!  
우리함께 원쑤를 끌어놓히던 싸움의 날처럼  
결전의 고지에서처럼  
우뚝 서서- 나 여기 있소! ...

전사여, 내 달려가리라  
전우들의 원한, 조국의 부탁 채운  
병사의 총 틀어잡고  
또다시 원쑤를 무찌르며  
승리의 기발 휘날리며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 적후의 밤

-화선시첩에서-

전동우

여기는 강원도땅, 먼 적후방  
이밤도 산을 넘어 원쑤를 찾아  
우리의 대오는 소리없이 흘러간다  
보이지 않는 불줄기처럼... 비수처럼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다  
바다밑처럼 고요한 밤이다  
개짖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어딘가 먼데서 겁먹은 파궁소리뿐

다만 무거운 어둠속에서  
가랑잎 자박자박 밟히는 소리  
그우에 불덩이가 굵이치는 소리  
-뒤로 전달, 행군속도를 높이라!

적후의 밤은 분노의 밤이다  
적후의 밤은 서리발진 밤이다  
락동강에서 원한품고 쓰러진  
전우의 부름소리 가슴에 쟁쟁해

타버린 마을, 어머니를 찾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 귀에 쟁쟁해  
적후의 밤은 총구를 잠시도 식힐수 없는  
무자비한 복수자, 복수자들의 밤이다

돌아보니 저기저 북녘 산마루우  
우리를 비쳐주는 정겨운 별 하나  
저것은 북극성이다... 우리를 굽어보시는  
그리운 장군님의 눈빛이시다!

아, 남으로 멀리 갈수록 가까이 있는 별  
적후 천리 그 어디나 우리와 함께 가는 별  
이밤따라 유난히도 밝아  
달없는 밤길이 이리도 환하다

그렇다 이 길은 우리 장군님께서  
작전도우에 그어주신 길이다  
복수하라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라고  
시뻔건 화살표로 그어주신 길이다

살려두지 말자, 원쑤는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자, 침략자는 한놈도!  
저 고개 넘어서면 원쑤의 아성  
이제 통쾌한 섬멸전은 벌어지리니

동무여 전달, 행군속도를 높이라  
뒤로 전달, 행군속도를 높이라  
이밤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의 복수전을 지켜보신다

## 잊지 못할 목소리

석광희

옛 전우들이여  
생각나지 않느냐  
불기둥 솟구쳐오르던 락동강가  
강언덕에 불타던 초가지붕  
그 집뜨락에 뒤설레던 감나무 한그루

그밑에 서서 울부짖던

나어린 처녀애  
지는 해 등에 지고  
발 동동 구르던 모습  
애처롭던 정경

다시 오마  
기어이 오마

우리 심장으로 웨치며  
 비분의 눈물 씻고 강을 건널 때  
 불길은 강물우에 너울거리는데  
 포성은 하늘땅을 흔드는데

- 아저씨이!  
 아저씨-이!

가슴을 쥐어뜯던 그 모습이여  
 우리 가슴 앓게 하던 그 목소리여  
 귀전에 울려오는구나  
 어서 오라 어서 와달라고  
 심장의 벽을 치는 그 목소리

오오 전우들이여  
 어이 잇으랴 어이 잇으랴

남녘의 그 모습 그 목소리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남기고 온 병사의 약속  
 그날의 성스러운 맹세

세월과 더불어 간절해지는  
 그 모습 그 약속 그 맹세  
 우리 한시인들 저버린다면  
 어찌 이 나라의 아들이라 하랴  
 어찌 인민의 병사라 하랴

잊지 못할 그 목소리  
 피를 끓이는 그 목소리  
 -아저씨이!  
 -다시 오마!

## 우리 나라 역사유적소개

# 동명왕릉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자리잡고있는 동명왕릉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무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동명왕릉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고구려를 일떠세운 건국시조 고주몽의 무덤인 동명왕릉을 발굴고증하시고 그 주변의 유적들을 잘 정리하고 보존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으며 오랜 세월 력사학자들도 옳게 해명하지 못하고있던 동명왕릉에 대한 문제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특히 최근에 동명왕릉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시조왕의 룡묘답게 품위있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동명왕릉 개건형성안과 도면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다.

새롭게 개건된 동명왕릉은 동방천년대국이였던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무덤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유구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의 하나이다.

풍치수려한 드넓은 옛자리에 160여개의 기단돌이 받들어올리고있는 웅장한 무덤과 30여점의

돌조각품들, 동명왕의 화상을 비롯한 고구려인민들의 강대성과 생활습을 보여주는 수십점의 미술작품들, 정릉사를 비롯한 민족고유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왕릉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글발을 새긴 **《동명왕릉개건기념비》**가 세워졌다.

왕릉앞에는 진주못과 넓은 공지가 펼쳐져있으며 그 주변은 립체교차차도, 다리, 직선도로와 아름답리 소나무, 화초들로 유원지처럼 아름답게 꾸려졌다.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하여 동명왕릉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자주성이 강했던 강성대국으로 천년력사를 이룩떨친 고구려의 옛모습을 잘 보여줄수 있게 되였으며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물려줄 또하나의 귀중한 력사적문화재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통일된 조선민족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수필

## 그날은 오리라

박창민

박사는 내가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온 정신을 신문에 쏟아붓고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었다 끼며 붉은 연필로 진하게 표시를 해가며 씹새없이 머리를 끄덕인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몹시 툄동적이었다.

얼핏 살펴보니 로동신문에 실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5 차회의에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이었다.

(박사선생이 대단히 흥분했구나!)

나는 로학자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한동안 침묵을 지켜 조용히 서있었다.

이윽고 나를 알아본 박사가 열정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볼수록 감동을 금치 못하겠소.》

박사는 여전히 흥분의 파도에 실려있었다.

《정말 민족대단결의 강령이요.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렸소. 이건 력사적사변이요! 민족의 경사요!》

나는 박사선생이 그렇게도 열정에 넘쳐 말하는것을 처음 보았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나라의 통일에 기여하여 민족분렬을 끝장내자, 얼마나 뜻깊은 말씀이요. 정말 명철하신 방안이요.》

그는 짧은이처럼 벌떡 일어나 책장앞으로 다가가더니 《**김일성**저작집》 제 1 권을 가지고와서 벌컥벌컥 번져나갔다.

《보시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며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자, 장군님의 유명한 개선연설이요. 해방된 우리 인민은 장군님의 이 연설을 높이 받들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했소.

그때처럼 이 10 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전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하오.》

로박사의 얼굴에 깊은 감회가 어려있었다.

박사의 경력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의 심중을 리해할수 있었다.

박사선생은 식민지 지식인이었다.

조국해방의 환호성 강산에 메아리칠 때 그도 민족환희의 파도에 뛰어들었다.

(저마다 애국자로 자처하며 주의주장을 부르짖는 혼탁한 이 세상이 과연 바로잡힐것인가.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기는 해도 과연 조선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것인가?)

그는 자신의 운명도 우려하였다.

《주구청산》이라는 《타도바람》에 언제인가는 이 거리에서 쫓겨날것만 같은 위구심이 자꾸만 앞섰다.

환희, 갈망, 불안, 초조 속에 거리를 거닐던 그는 평양공설운동장으로 달려갔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시는것이였다.

암담한 그 시절 장군님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희망의 별처럼 그려보던 그이를 어서 뵈고싶어 그의 마음은 주석단쪽으로만 쏠리는데 아- 설레는 바다우에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런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장군님께서 주석단으로 나오시어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은 유명한 개선연설을 하시였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은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는 장군님의 호소는 민족대단결의 강령으로, 새 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공

포하시여 반일애국력량을 조국광복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

민족대단결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여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으로 통일의 밝은 전망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의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면 10대강령의 그 어느 조항이나 다 접수되고 크게 공감할것이다.

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가 명백하고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뚜렷하다.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민족단합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 10대강령!

참으로 10대강령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무엇보다도 민족의 리익을 제일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킬데 대한 애국애족의 강령이며 수십년 세월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전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단합의 대헌장이다.

삼천리강산이 둘로 갈라지고 한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으로 오랜 세월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겨레가 갈라져 근 반세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50년이 돼오도록 한가정이 남북으

로 갈라져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는 이 비극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다.

이 땅우에 피롭게 흘러가는 분단의 력사,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외세에 룡락되어 세계의 면전에서 동족끼리 반목하고 적대시하며 대결의 총을 겨누고있는것은 민족자멸의 길이며 조선의 수치이다.

북과 남은 서로 갈라져 살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이며 민족의 최고리익은 조국을 통일하는데 있다.

그 길은 오직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10대강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민족이 굳게 단결하는 길뿐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민족으로 굳게 단결하자.

대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

박사선생과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굳게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치따라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광복을 이룩한것처럼, 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높이 받들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새 조선을 건설한것처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 고국송 (3)

(중국) 황장석

### 래일의 뿌리

여기서는 꽃들도 자유롭게 피고  
여기서는 새들도 자유롭게 난다  
아니 황홀하게 피는 꽃들만이 아니다  
자유 의 화신인 새들만도 아니다

지식이 분수되어 쏟아지고  
행복이 꽃바다를 이룬 여기서는  
아이때부터 배움의 전당 마련되고  
어른이 되어도 마음껏 공부할수 있거니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에서

내 아름다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조선의 래일을 보나니

백두성산에서 혁명의 뿌리 뻗어내린것처럼  
그대 인민대학습당에선  
바야흐로 뻗어내리고있구나  
과학 기술 문화의 찬란한 뿌리가  
빛나는 조선의 오늘이  
찬란한 조선의 래일이 뿌리되어 내리고있구나!

### 금은보화 국보모두 고귀하여도

미소한 존재라도 가치를 주는  
불멸의 진리는 어디에 있던가  
숭고한 중심찾아 우러른 마음을  
몸가까이 느꼈네 친눈으로 보았네

아무리 넓고 큰 지구라 해도  
촌으로 옮겨온 이곳이로다  
금은보화 국보모두 고귀하여도  
해와 별 비치여 휘황하도다  
-국제친선전람관에서-

### 바른 인간 되려거든

나는 풍경시인이 아니다  
하기에 조선의 수려한 산을 보고도 쓰지 못했고  
맑디맑은 조선의 물을 두고도 읊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말하고싶은것  
이 나라에선 풀 한포기라도 금처럼 아끼고  
물 한방울이라도 더럽혀질세라 아낀다

평양으로 와보라  
가로수의 아지 하나 끊어졌는가  
정원의 꽃 한송이 떨어졌는가!

그처럼 드넓은 대동강도 맑고  
어지러웠다면 보통강물도 맑다  
수도물도 맑고 음료도 맑다

하기에 이 나라에 와선  
나도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거니  
모든 결함을 스스로 씻어버리게 되거니

바른 인간 되려거든 사람들이여  
한번씩 고국으로 와보시라  
몸과 마음 깨끗이 씻게 되어  
신선은 몰라도 선한 사람은 되리!

### 안내원동지

안내원동지는 말수가 적은 동지  
무엇을 물어서야 말을 하고  
묻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는 동지

안내원동지는 걸음을 아끼지 않는 동지  
동포를 위한 일하기에 십리길도  
왕복으로 서너번씩 걷는 동지

동석식사를 갈망하여도  
우리가 불편하리라 말대신 미소로  
기어이 거절을 하고야마는 동지

창광유치원에서 귀여운 애들  
저마다 신동같이 경탄의 눈물을 흘릴 때  
남모르게 뒤에서 손수건을 내미는 동지



일정표가 사정에 의해 바뀌면  
 죄나 저지른것처럼 동포들앞에서 비는 동지  
 정말 안내원동지는 보기 드문 동지지요

그러나 저는 평양거리들을 거닐 때에야 알았습  
 니다  
 세계의 최고층건물 류경호텔이며  
 주체사상탑에 대해 것처럼 이야기 잘하는 동지들

동지의 얼굴엔 긍지와 행복이 물결치고  
 어군마다엔 조선사람이라는 열이 숨쉬었습니다  
 내용마다엔 혁명적수령관이 맥박치었습니다

안내원동지는 처녀가 아닙니다  
 서른도 넘은 이 나라의 평범한 지도원

그의 몸에선 주체사상이 가식없이 빛뿌리었습  
 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안내원동지에게서  
 처음 조선의 동지들을 알게 되었고  
 주체의 조선을 알게 된것입니다

조선이 위대한것도 불패적인것도  
 조선사람이 근로하고 용감하며 재간있는것도  
 이 안내원을 통해 더욱 실감했지요

정말입니다 안내원동지는 평범한 동지여도  
 저만은 이 나라의 귀감으로 알고있어요  
 신념과 배심이 있는  
 주체형의 인간이란 이런분이겠지요...

## 평양

평양은 웅위로운 강산  
 여기엔 눈부시여라  
 혁명의 줄기 뻗치며  
 세기의 높은 봉에서 흰갈기 날리는  
 백두의 기상이  
 여기엔 비껴있어라  
 구름 치뚫고 만물상 보이는  
 천하명승 금강산 절경이

평양은 아름다운 별장  
 대동강과 보통강 출렁이여서만도 아니고  
 모란봉과 룡라도 꽃으로 덮여서만도 아니다  
 여기서의 한낮에도 뽕꼭재 노래부르고  
 여기서의 평도 푸르릉 날아간다  
 귀맛좋은 새소리마저  
 낮선 길손의 마음 취하게 한다

평양은 위대한 예술품  
 지하로 들어가면 궁전으로 뻗었다  
 위훈으로 뚫은 불빛은 지하철이  
 하늘로 오르면 고층건물의 숲

만사람 황홀케 한다  
 위대한 민족의 상아탑 되어  
 강으로 나가면 갖가지 배들  
 길손의 격동된 심장에  
 한수의 서정시를 읊어준다  
 잊지 못할 여운을 담은...

평양은 슬기로운 기상  
 도시의 중심부에서 인민대학습당 발돋움치고  
 구름우에 날아올라  
 비약의 시대를 주름잡는다  
 웅위로운 천리마동상이

아득히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며  
 밝은 봉화를 추켜든 주체사상탑  
 온 누리에 불멸의 위업 펼쳐간다  
 날아가고 날아오는 구름 붉게 물들이며

평양은 환한 얼굴  
 동서남북 어데를 봐도 겨레의 모습대로 일떠서  
 하얀 냇을 떨치며 지워준다  
 이 가슴의 그늘을  
 유리창문을 보아도 정답게 웃어주는 거리  
 무딘 귀를 기울여도  
 반갑다 노래같은 인사소리 들려주는 평양

평양은 언제나 새로운 결심이다  
 길에서 봐도 골목에서 봐도  
 하나의 지향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들  
 걸음마다 힘차고 씩씩하다, 지축을 울리듯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온몸에 지혜와 힘만 뽐겨나와  
 창조와 기적으로  
 분초를 다투며 세상을 놀래우는 평양

어이하여 그토록  
 동포의 가슴을 파도처럼 충격하는지  
 어이하여 그토록  
 조선민족이란 긍지로 가슴 뻐근케 하는지  
 길을 걸어도 더 걸어보고싶은 평양의 거리여  
 보고보아도 더 보고싶은 평양의 위용이여  
 내 웅위로운 그대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웨치노라  
 -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를 모신 조선은  
 영원히 누리에 빛나리라  
 길이길이 번영하리라!...

# 잠들수 없는 밤

리영환

7 월의 한밤이 깊어간다. 텔레비존방영이 끝난지 오랫동안 아들에는 잠자리에 들 생각을 않고 창가에서 오래동안 서성거리고있었다.

중학교 4 학년생인 그는 오늘 사로청원이 되었다, 인생에서 청년이라는 시절을 맞이했으니 삶에 대한 제나름의 생각이 많은 모양이었다.

전승 40 뿔을 앞둔 수도의 야경은 그야말로 거대한 경축무대를 방불케 했다.

《아버지, 리인모영웅도 전승열병식에 나가겠지요?》

나는 원고지에서 눈을 떴고 새삼스레 아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아들에는 지금껏 리인모동지를 생각한것이다.

《그렇지 않구,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4 월 15 일 몸소 그를 찾아주시고 전승열병식에 꼭 참가하라고 교시하시잖았니!》

이 말을 하는 나의 가슴이 찌르르 달아오름을 느꼈다.

어느덧 나의 생각도 리인모동지가 원수들에게 모진 학대와 악형을 받던 그 시절을 더듬는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새 조국 건설에서 삶의 참된 보람을 감수하던 리인모동지는 우리 나라에 전쟁의 불이 터지자 용약 전선으로 종군하였다.

재능있는 종군기자로서 명성을 날리던 그는 불행하게도 전투도중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원수놈들에게 불잡힌 몸이 되었다.

내가 요람속에서 행복동으로 자랄 때, 내가 대학모자를 쓰고 푸른 꿈을 키울 때, 내가 작가가 되어 창작적흥분속에 밤을 지새울 때 리인모동지는 차디찬 감방에서 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가 체포될 때 첫걸음마를 떼던 내가 어느새 사로청원의 아버지가 되었을진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는 웅변적으로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갓 시공간적개념만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정녕 리인모동지는 얼마나 파란많은 고통많은 지루한 운명의 세기를 헤쳐왔던가?

파쑈교형리들은 《전향 안한 빨갱이는 영원히 해빛을 보지 못할것이다》라고 씨벌이면서 리인모동지를 다리도 펼수 없는 좁고 캄캄한 독감방에 가두어놓고 운동도 진찰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추운 겨울날 옷을 벗긴 알몸에 찬물을 퍼붓고 몽둥이로 두들겨졌으며 세면장에 끌어내다가는 코로 물을 부어넣으면서 무리로 달려들어 사정없이 밟아대는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군하였다.

리인모동지는 갈비뼈가 꺾이고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지만 끝까지 《비전향장기수》로서 놈들의 중세기적고문을 이겨냈으며 오늘은 승리자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왔다.

아들애가 나에게 묻는다. 리인모동지는 풀을 뜯어먹고 쥐까지 먹으면서도 어떻게 꺾이지 살아올수 있었는가고...

나의 생각은 더더욱 깊어만 간다.

과연 리인모동지는 어떻게 34 년동안이나 야수적고문과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혁명가의 령혼과 육체를 지켜낼수 있었겠는가. 그의 낮은, 그의 심장은 무엇으로 충만되고 무엇으로 고동쳤겠는가.

나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리인모동지의 고향을 찾아갔을 때 그의 소꿉친구라는 로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던 리인모는 출옥후 어느날 뒤산에 올라갔다가 울창한 숲속에서 한그루의 구호나무를 발견하였다.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하늘을 찌르고 솟은 아름답리 로송나무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조선사상에 대통운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모신것이고 백두항일 녀장수 김정숙장군을 모신것이고 백두광명성을 모신것이다. 3 대통운 만만세!》

어느 한 투사가 갓 써놓고 지나간듯 너무나 생생한 구호를 본 리인모는 사그라져가던 자기의 청춘이 다시 용솟음치는 부활과 환희를 느꼈다. 그는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산이 떠나갈듯 환성을 내질렀다.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대를 이을 신장군성이 솟았으니 조선의 앞날은 얼마나 창창한가! 아, 백두성이여!》

리인모는 조선의 세 장군을 모신 사나이로 태어난 긍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나무를 찾아 세분의 장수를 빌면서 려명을 기다렸으니 진정 이 구호는 리인모에게 있어서 꺼질줄 모르는 희망이였고 삶의 기둥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리인모에게도 땅을 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일군으로 키워주셨다.

하기에 리인모는 해방된 이듬해 봄 구호나무 두리에 정성껏 진달래를 심으며 장군님의 전사로 일생을 살아갈 충성을 다짐하였다. 그는 종군기자로 전선으로 떠나갈 때도 정든 고향과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처자와 작별하기에 앞서 마음속으로 이 구호나무앞에 머리를 숙이고 엄숙히 맹세를 다졌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장군별을 안고 살리라!)

이처럼 그의 심장속에는 백두성이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언제나 가슴속에서 빛나는 그 별빛에서 용기를 얻고 새힘을 가다듬곤하였다.

이러한 리인모였기에 부상당하여 대오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도 스스로 지리산빨찌산에 들어가 싸울수 있었던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리인모동지가 그 어떤 전향강요나 유혹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드물지 않은것은 가슴속에 백두의 별, 광명의 별을 안고 살아왔기때문이란 다.》

그렇다. 리인모동지는 항상 가슴속에 광명의 별을 안고 살아왔다. 하기에 그는 원썬들이 전쟁이 끝났는데 뭘 믿고 버티겠는가고 회유할 때도 신심에 넘쳐 이렇게 웨쳤던것이다.

《...살렌해성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지구와 해성이 부딪쳐 지구가 박산난다고 아우성쳤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세와 절망에 사로잡혀 타락해버렸다. 하지만 아무일도 없었다.

우주는 이렇듯 영원한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바보가 되고 타락하는 법이다.

뭘 믿는가고? 우리에게는 우주의 령장이 계신다. 광명의 별, 백두의 장군님을 너희들이 알기나 하는가? 나는 백두성을 따르는 전사다.》

정녕 조선을 빛내일 백두성의 영원성을 믿지 않았다면 리인모동지는 장장 40 여년을 허무와 고독속에서 지탱해낼수 없었을것이다. 한순간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생매장당할수 있었어도 그는 백두성이 자기를 굶어보고있음을 항상 가까이 느끼고 살았다.

그랬었다. 위대한 당은 리인모동지를 언제나 눈부신 빛과 뜨거운 열정으로 보살펴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인모동지의 딸 리현옥녀성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몸소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 어느때나 리인모동지를 잊지 않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절개를 송죽에 비기어 칭송해왔으며 인간의 굳센을 금강석에 비겨 보석으로 일컬어왔다. 하지만 수렁속에서는 대나무가 자랄수 없으며 저열속에서는 탄소가 금강석으로 될수 없다. 소나무가 눈속에서도 푸를수 있음은 풍요한 대지에 뿌리를 박고 태양의 따사로운 빛을 받기때문이요, 타다남은 숯덩이가 금강석으로 될수 있다면 그것은 뜨거운 열을 받으며 초고압속에서 다져졌기때문이라.

그렇더라. 리인모동지가 세상이 다 아는 신념의 화신, 의지의 화신으로 떠받들리울수 있는것은 오로지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핌의 결과이다. 우리 당은 그의 걸음걸음, 자욱자욱을 다 굶어보았고 다 부축하여주었다. 그가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반드시 찾아내도록 대책을 취해주었고 그가 뇌출혈로 병약해졌을 때는 구급책과 함께 당장 조국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강경한 조치를 취해주었다.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리혜안과 현명한 령도, 령장의 담력과 아버지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리인모동지는 민족의 장한 아들이 되어 처자가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서만이 별들이 빛을 뿌리며 불변의 궤도를 돌듯이 오직 우리 당이 있음으로 하여 리인모동지와 같은 신념의 인간들이 충신으로 영원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이 절해도 도에 홀로 있다고 해도 항상 잊지 않고있으며 그가 설사 남모르는 지구의 한끝에 가 있다고 해도 열번백번 세상을 다 뒤지는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찾아내어 붉은기에 휩싸안는다. 이러한 당이 있기에 전사들은 자기의 운명을 당에 의탁하고 숭배하며 따르는것이다.

이 밤 나는 마치도 하나의 세계를 발견한듯싶었고 거대한 진리를 체감하는듯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꼈다.

아들애도 나와 같은 심정인듯 숭엄한 표정이 되어 묻는다.

《아버지, 나도 리인모영웅처럼 살수 있을까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아들아, 그런건 왜 묻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너 혼자뿐이라더냐. 바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저 불밝은 창가에서 잠못들고있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의리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장군님의 전사로 살 때 너도나도 리인모영웅처럼 될수 있고 조국통일도 앞당겨질수 있는거란다.

너도 이제 사로청원이 아니냐. 우리 리인모영웅처럼 살며 일할것을 약속하자.

참으로 생각이 많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밤이다.

이제 날이 밝으면 승리와 영광의 날, 전승 40돐을 맞게 된다. 해빛넘치는 광장에서 우리는 전승열병대오에 서있는 리인모동지를 보게 될것이다.

새날이 오면 리인모영웅 하나만이 아닌 수백수천의 《리인모》가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만세!》 높이 웨치며 행진해가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올라 더더욱 이밤 잠들수 없다.

## 옛 병사의 노래

리영백

### 나는 미처 몰랐다

나는 미처 몰랐다 그때는  
노란 줄 하나 없는  
빨간 견장을 단 어깨우에  
키를 넘는 보병총을 메고  
대전해방전투에 참가했으니

나는 미처 몰랐다 그때는  
여름날의 짧은 하루밤새에  
힘한 산발을 타고 백여리  
강행군을 다우쳐  
적진 깊이 썰기를 박으면서도

나는 미처 몰랐다 그때는  
분대장의 짙막한 구령따라  
은밀히 잠든 시가에 포위망을 좁혀  
원썬들의 소굴을 들부셔놓으면서도

놈들이 불퇴선이라 호언장담하던  
대전을 타고앉아 높이 부른 만세소리  
포연과 함께 사라진 새벽

담배를 피우며 전사들끼리 소곤대는  
《입통신》을 통해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불구름 타래치는 최전방까지 나오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전선지휘처 한겹 천막속에서  
진격의 붉은 화살표를 손수 그어주시고  
밤새도록 쪽잠도 잊으신채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을 이끄셨다는것을  
감격의 눈물속에 가슴깊이 새겨안았거니

아, 위대한 수령님 진두에 계셨기에  
이름없는 나 어린 병사가  
침략자의 호전 《장군》을 때려잡을수 있었고  
청소한 우리 인민군대가  
《강대성》을 뿔내던 적을 타승한 첫 승리자로  
력사에 기록되리라하는것을  
나는 그때에야 알게 되었다!

### 꽃과 파편

내가 싸우던 옛전호가  
반겨 설레는 꽃들이 소중한  
진달래 한포기 떠안고 가려고  
흙을 파헤치는데  
뿌리밑에 빨강게 녹슨 파편

오, 원썬의 파편을 놀려딛고  
활짝 피여 웃는 진달래 송이송이  
눈시울 뜨거이 바라볼수록  
하많은 생각이 가슴에 젖어드누나

얼마나 처절한 격전의 불이 지나간  
어제날의 전장에 꽃들이 설레이느냐  
침략자는 이 땅의 꽃과 생물체를  
다 불태워 없애려고  
철과 불의 소나기를 쏟아부었어도

불사신처럼 흙무지를 털며 일어서던  
우리 전사들의 그 모습  
진달래 송이송이에 어려오누나

불먼지에 목이 타고 입술이 타들어도  
물통에 남은 몇방울 물마저  
강도속에 옮겨심은 진달래에 부어주고  
육탄되어 적진에 뛰어든  
전우들의 그 값높은 삶이  
상처입은 조국땅을 꽃으로 덮었구나

진달래  
옛전호가의 진달래  
원썬의 파편을 놀려딛고  
활짝 피여 웃는 꽃송이는  
우리 전사들의 불굴의 기상

승리한 조선의 빛나는 모습  
진달래  
옛전호가의 진달래  
조국의 고지우에 더욱 만발하라

세월이 갈수록 파편이 녹슬듯  
원수의 운명은 파멸뿐이고  
세월이 갈수록 꽃들이 활짝 피듯  
우리의 승리는 영원히 빛나리

## 온정령길

쥘아지른 벼랑을 안고 돌며  
우거진 푸른 숲속을 누비며  
굽이굽이 감돌아오르는  
온정령길

흥겹게 달리는 뺨스에 몸을 싣고  
금강의 절경으로 오를수록  
못잇을 전화의 추억으로 이끌어가는  
온정령길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온다  
쫄쫄 - 원시림을 찍어내며  
쏟아지는 불비를 헤쳐가며  
낮에 밤에 울리던 마치소리, 꼭깡이소리...

금강의 절경  
금강의 단풍잎에서 쏟아질 돈벌이를 꿈꾸며  
여기에 큰길을 내려던 일제놈들  
험한 산세앞에 쫓겨갔어도  
우리는 내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단 몇달만에 큰길을 번듯이 내였다

이 길로 넘어온 군량미  
이 길로 넘어온 총포탄  
그것은 불타는 전선, 불타는 고지마다  
필승의 힘으로 샘솟아올랐다

그렇다 너는  
평범한 인민, 근로하는 우리들이  
금강의 절경을 마음껏 즐기는  
오늘을 지켜 오늘을 위해  
여기에 굽이굽이 뻗어올랐나니

온정령길  
온정령길  
불굴의 정신, 신념의 승리를 새겨안았기에  
너는 지금 숲속 깊이 가리워있어도  
세상 사람 누구나 너를 보고있다  
이 땅의 주인된 인민의 힘만이  
불비속에서도 이런 길을 낼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며, 새기며

## 아들에게 하고싶은 말

붉은 넥타이 날리던 그 시절  
전승메달을 꺼내놓고  
아버지가 전쟁참가자라고  
동무들에게 자랑을 곧잘 하던 아들이

군복입고 떠나는 네 모습이 장해  
창가의 꽃들도 설레며 웃는 이 아침  
크고작은 훈장과 메달중에서  
나는 전승메달을 꺼내놓고  
너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

이 전승메달을 앞가슴에 달 때까지  
불의 언덕을 얼마나 넘어왔는지  
피의 언덕을 얼마나 넘어왔는지  
너는 아직 다는 모를게다

이 전승메달을 바라보며

눈에 삼삼히 어려오는 전우들의 모습  
어이하여 수류탄을 안고 적땅크를 맞받아  
수령님 만세를 부르며 나갔는지  
너는 아직 다는 모를게다

3년세월  
이 아버지가 전투의 불길속에서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  
탁월한 명장을 받드는 그 길에  
승리가 있고 조국이 있고 인민이 있음을  
네 가슴에 소중한 새겨안아라

보람찬 군무생활의 걸음걸음  
언제나 정보로 걸으며  
일당백의 담력으로  
날뛰는 원수들의 준동을 짓눌러버리며  
친애하는 그이의 명령을 승리로 빛낼 한마음

네 가슴에 소중히 안고 가거라

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셨던 병사  
너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병사  
너와 나의 심장에 한피줄이 뉘뉘듯  
탁월한 령장을 모신 행운도 신념도 하나같거니

사랑하는 아들이  
군사복무의 나날에  
너도 많은 훈장과 메달을 탈수 있겠지만  
군복입은 병사라면  
위대한 령장의 전사라면  
전승메달을 앞가슴에 꼭 달고 와야 한다  
그래야 승리자의 추억을 간직할수 있고  
후날 너도 너의 아들에게 할말이 있을것이다

## 시조

# 병사의 어머니는 말한다

박세일

## 아들의 입대증에 쌓이는 생각

먼지 한점 앓을세라 액자에 넣어  
아침 저녁 볼수 있게 벽에 걸었습니다  
내 아들이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입대증입니다

바라보면  
군복을 입은것이 저로써도 장한듯  
싱글벙글 거울앓을 떠날줄 모르던  
그애의 모습이 생생히 어려와

다시보면  
한생을 곁에 끼고 살리라던 그 아들을  
주저없이 천리방선 초소로 떠나보낸  
병사의 어머니된 궁지가 북받쳐

보면볼수록 저 입대증은  
총을 메고 모인 혁명의 대가정에  
또 한명의 새 세대가 태어났음을  
소리높이 알려주는 전사의 출생증입니다

아들을 잘 키워 나라에 바쳤다고  
모든 병사의 어머니들에게  
우리 당이 안겨준  
표창증에 제일 큰 표창장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곁에  
영웅증서까지 있으면 더 좋을걸  
감히 이런 《육십》도 불러일으키는  
아, 조선인민군 입대증입니다

## 어머니는 무엇을 제일 걱정하는가

언제인가는 내 품에 돌아와 안길  
아들아, 네 모습은 얼마나 림름하랴  
어깨에 팔뚝에 두다리에  
군복이 팽팽하게 힘이 내뻗치리  
맑은 눈엔 새 생활의 기쁨이 빛발치리

허나 일이란건 뜻대로만 되지 않아  
아들아 너 혹시  
쌍지팽이에 몸을 맡긴채  
동구길에 문득 나타날수도 있으리

아니면 흐려진 눈동자  
색안경으로 가리우고  
손더듬 안타까이  
정든 집 프락에 들어설수도 있으리

그래도 이 어머니 근심하지 않으마  
몸은 비록 불구가 되었다 해도  
조국이 당할 상처를 막아  
제한몸 기꺼이 입은 그 상처  
그렇다 훈장인양 자랑스러울게다

그러나 너 만일  
군대에서 몸성히 돌아왔다 해도  
두렵구나, 그것이  
조국의 위협앞에 비겁한 값이라면  
죽음을 피해 비켜선 대가라면

대답해봐라, 내 아들이  
도대체 그 죄악을 변명할수가 있느냐  
죽는대도 그 치욕을 씻을수가 있느냐

## 글썸 우리 집이 후방가족이라고

며칠전 농장에선 당비서가 나를 불러  
7. 27 기념보고회 주석단에 앉히더니  
이것보오 오늘은 인민반장이  
새형의 부엌세간도 안고왔다고  
글썸 우리 집이 후방가족이라고

작년에도 그렇지 진주네 할아버진  
비바람에 넘어진 울바자를 고쳐줬소  
김장철엔 허영계 살진 배추가  
마을에서 선참 우리 집에 들어왔소  
글썸 우리 집이 후방가족이라고

대추나무집이라고 불리우던 우리 집  
편지속에 아들사진 날아온 그날부터  
하루아침 그 이름이 달라졌다오  
땅크병네 집이라고 부러워들 한다오  
글썸 우리 집이 후방가족이라고

정말이지 요즘엔 딸가진 부모마다  
은근히 우리 집을 넘겨다본다오  
피와 정을 다 나눈 이 에미 못지 않게  
내 아들 소식을 기다리는 눈치라오  
글썸 우리 집이 후방가족이라고

## 당신이 부럽군요

같은 병사의 어머니로서  
나는 당신이 부럽군요  
상등병 한영철의 어머니  
공화국영웅의 어머니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둘수 있었나요  
병사답게 살줄도 알고  
병사답게 죽을줄도 안  
장한 아들을 키울수 있었나요

그랬다지요, 당신의 아들이  
터지는 수류탄 가슴으로 덮어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지켜냈다지요  
전우들의 목숨을 구원했다지요

그렇다고  
그애가 이젠 이 세상에 없다고  
당신은 영영  
아들을 만날수 없는가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되었나요

아니예요  
아들이 보고싶을 때 당신은  
어제날 아들이 공부하던  
오늘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운동장에 들어선다지요

거기 세워진 아들의 동상앞에  
하고싶은 말 다 속삭여보고  
품에 철철 휘감기는 학생들속에서  
어머니의 애뜻한 기쁨도 누려보고...

당신은 이렇게 한 생명을 낳아  
영생이 어떤건지 체험하고있군요  
한 아들을 나라에 바쳐  
수백수천 아들을 새로 얻었군요

그래서 당신이 부러운거예요  
이 나라 병사의 어머니들중에  
당신이- 공화국영웅의 어머니가  
단연 행복의 앞자리를 차지한거예요

## 병사의 어머니는 말한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라면  
누구든 제자식의 앞날을 두고  
좋다는 생각은 다 가져보리라  
희망이란 희망은 다 품어보리라

누구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  
기사로, 연구사로 키워볼 생각  
누구는 딸의 재능을 꽃피워  
시상대나 무대우에 내세울 생각

좋다, 물론 그것도 좋다  
박사의 어머니가 되는것도 좋고  
이름난 배우나 체육인의 어머니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것도 좋다

그러나 조국이 없어봐라  
명예의 꽃다발은 서리맞아 시들리라  
지금껏 지켜온 사회주의를 잃어봐라

희망의 별도 안개속에 묻히리라

하거니  
내 병사의 어머니로서  
가슴속에 안고사는  
남다른 긍지가 있나니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을 입은  
선렬들의 피가 스민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 저기 저 전호가에  
내 아들도 서있다는 크나큰 행복이

사회주의 보루를 겹겹이 웅위해나선  
이 나라 장한 아들들중에  
내 아들도 있어라  
한자루의 총대로!  
한개의 폭탄으로!